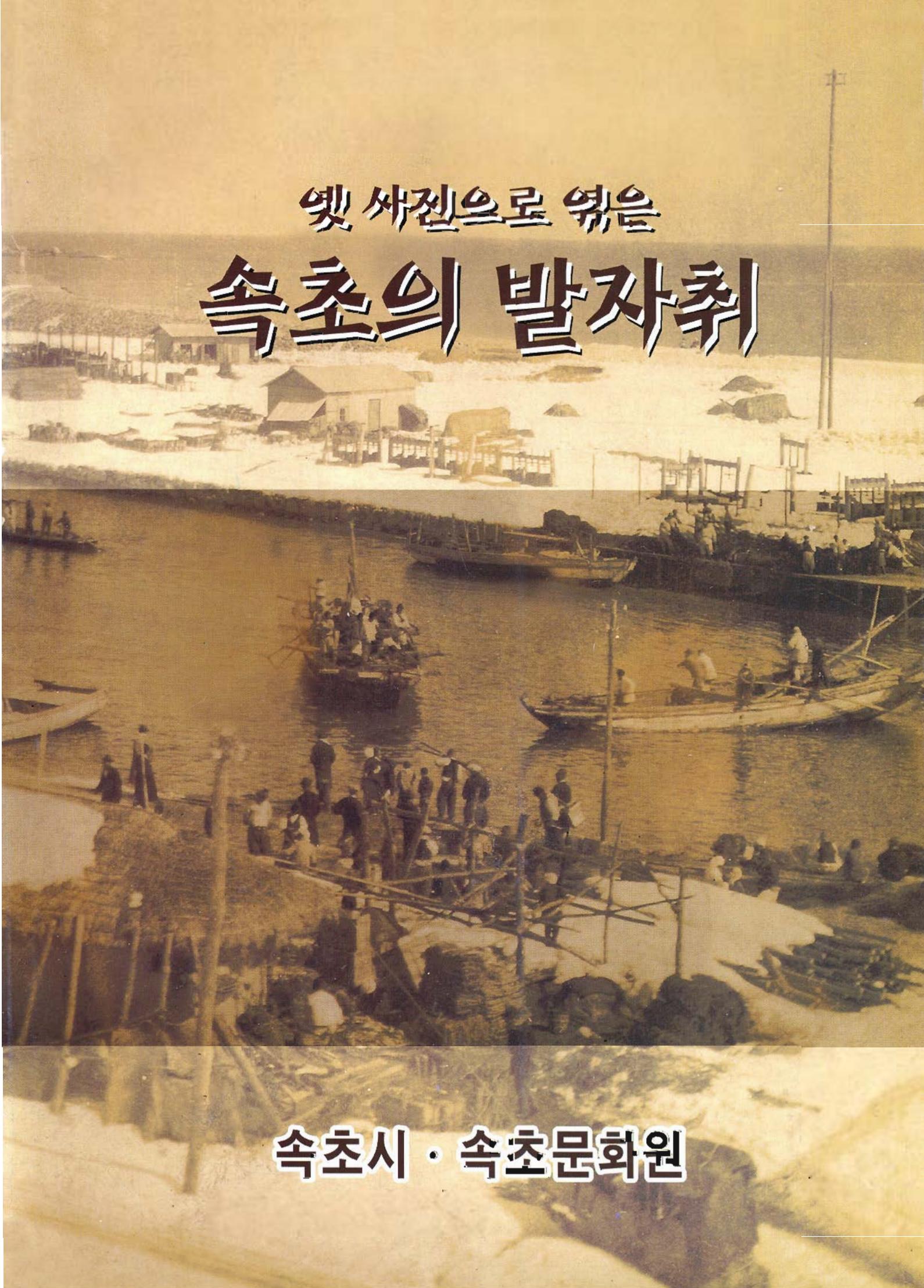


옛 싸진으로 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發 刊 辭

우리속초의 옛모습과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자료집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귀한 사진을 기꺼이 회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자료집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는 해방전후 속초의 옛모습과 한국전쟁이후 변모하는 도시의 모습은 물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상을 잘 표현한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1963년 시승격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주변에서 일어났던 각종 기념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사고 기록사진들을 수집하여 발간하므로써 우리시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항만시설의 정비와 함께 어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전쟁이후에는 실향민이 대거 이주·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부터 설악산 관광지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 일신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국내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명소로 성장하기까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우리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이번에 발간하는 사진자료집에 수록된 빛바랜 사진속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옛 추억의 향수에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발간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사진자료집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속에 널리 소개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발굴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속초의 진면목이 담긴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 12. 30

束草市長 董文星

차 례

발간사

I. 도시의 변천	5
II. 주요건물	63
III. 어촌생활	89
IV. 농촌생활	117
V. 설악산의 옛모습	127
VI. 사건사고	145
VII. 행사일반	171
편집후기	194
도움 주신분	195

I. 도시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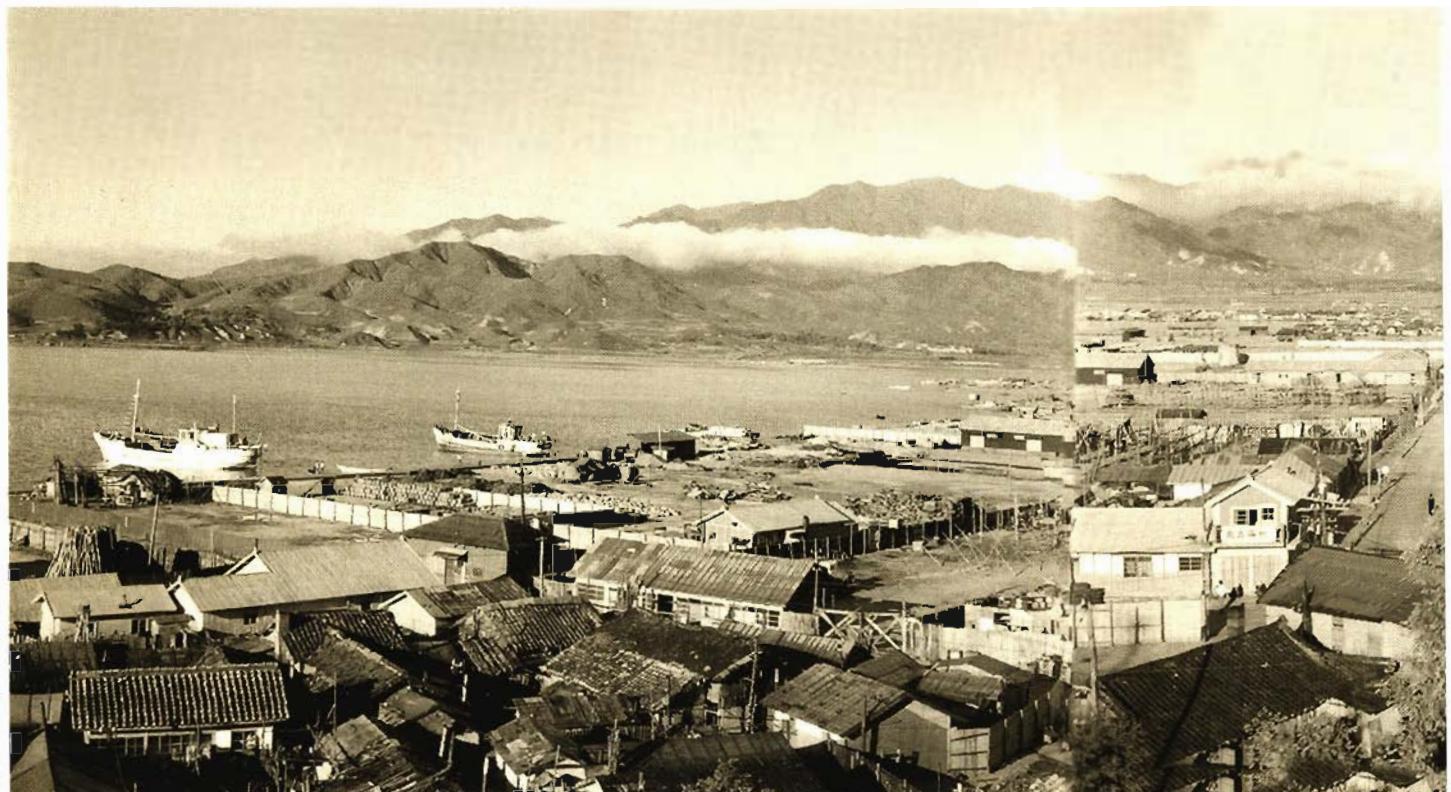
속초는 강원도의 東北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맑은 東海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雙川을 경계로 襄陽郡과 접하고 있으며, 北으로는 국사봉을 경계로 高城郡과 접하였고, 西로는 응장한 雪嶽山이 경계를 이뤄 麟蹄郡과 접하고 있다.

속초는 옛 襄陽都護府의 道門面과 所川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두 면을 통합하여 道川面으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속초리에 두었다. 그후 1942년 속초읍으로 그리고 1963년 1월 1일 市로 승격되었다.

속초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 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포항과 더불어 천혜의 良港인 속초항의 규모와 역할이 증가하여 속초항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실향민이 청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1970년대 萬泉洞·溫井里·青垈里·蘆里·桃李原里의 농촌지역이 개발되면서 현재와 같은 도시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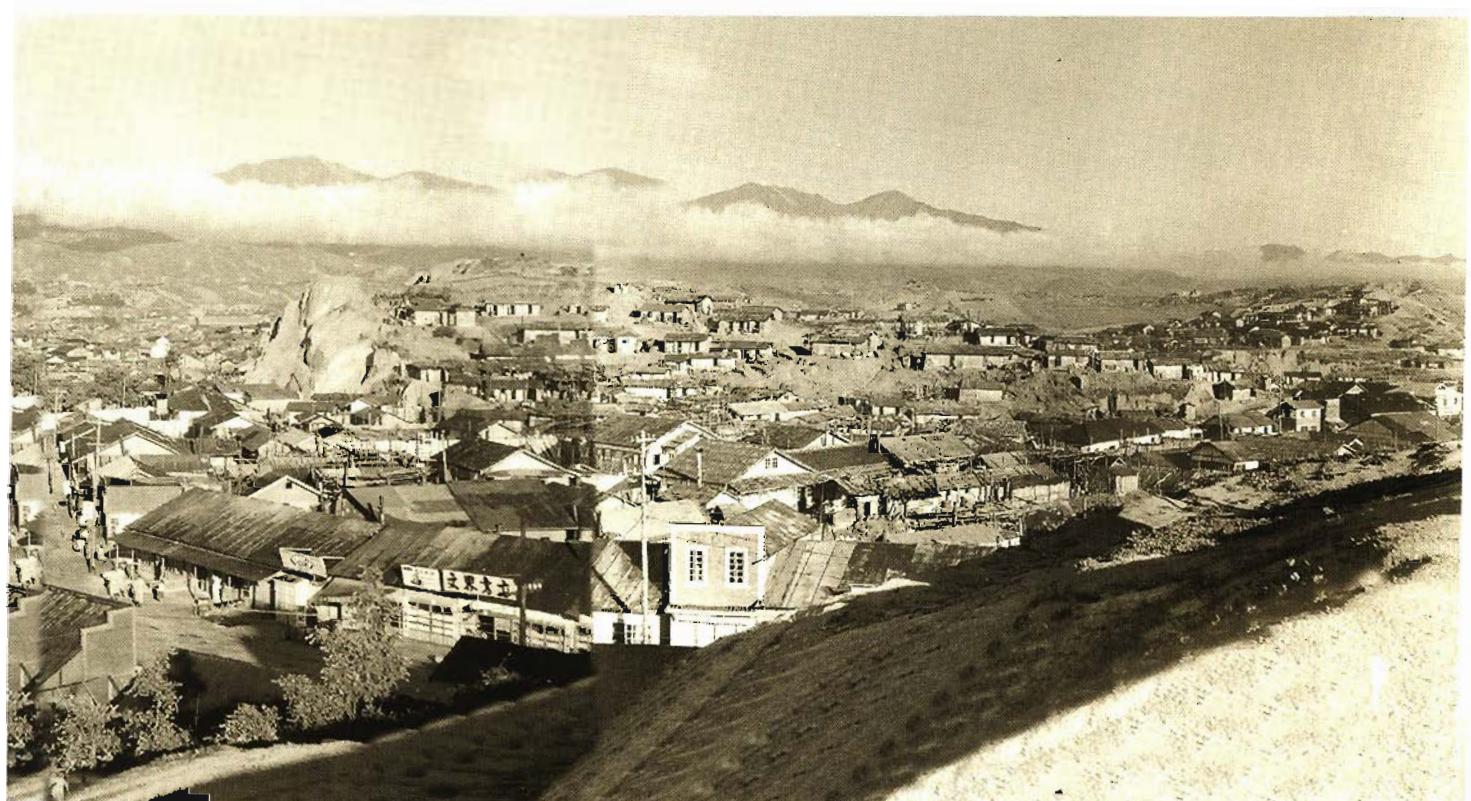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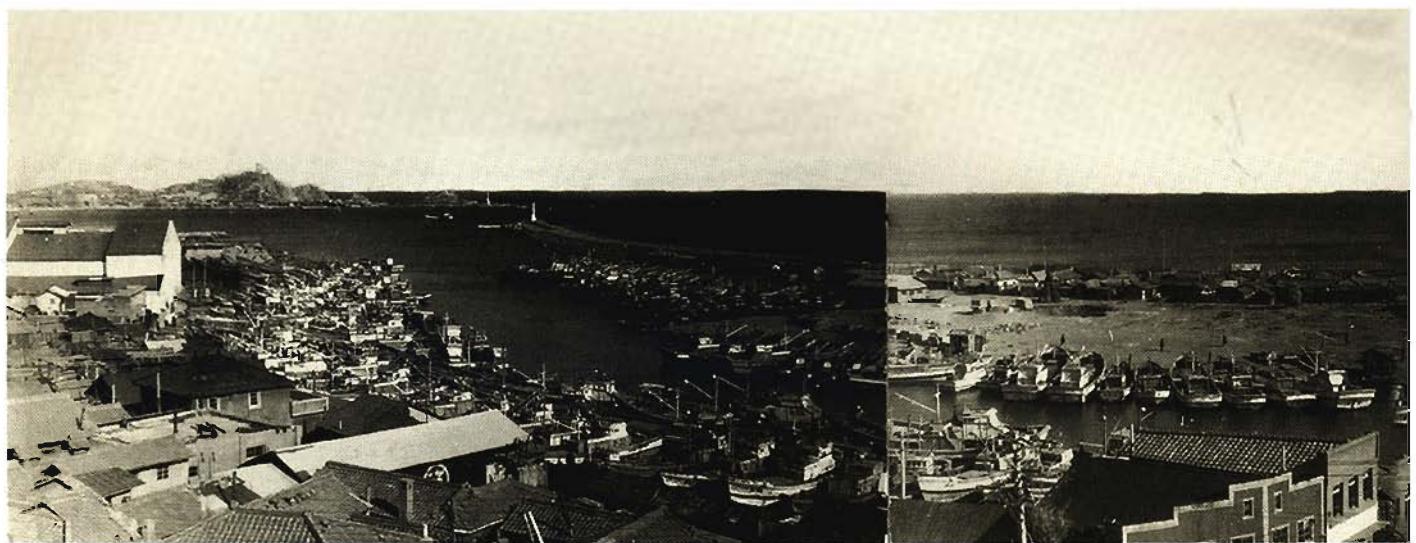
1950년대 속초항 및 중앙동 거리 전경

속초항과 7번국도를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며, 청호동과 이어진 방파제와 빽빽하게 정박한 어선들과 덕장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금호동 전경

7번 국도를 경계로 좌측에는 덕장들이 우측으로 가옥과 상가가 있으며 멀리 낮은 구름사이로 청대산과 설악산이 보인다





1965년 갯배나루 주변 전경



1966년 속초항과 동명동 · 중앙동 전경

동명항에 정박한 어선과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옛 마을을 볼 수 있다





1966년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왼쪽으로 束草驛舎가 보이고 낮은 구릉지대에 경작을 위한 논과 밭을 볼 수 있다.



1966년 교동주택지

낮은 구릉지역에 개간한 논과 밭 뿐이나 현재는 속초
이구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다.





1960년대 속초 전경

청초호를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가와 청호동, 조양동, 노학동 전경





1960년대 속초

동녕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전경





1960년대 영금정을 중심으로 한 동명동, 영랑동과 영랑호 전경



1960년대 외옹치지역과 청대산 전경



1960년대 속초해수욕장과 속초의 해안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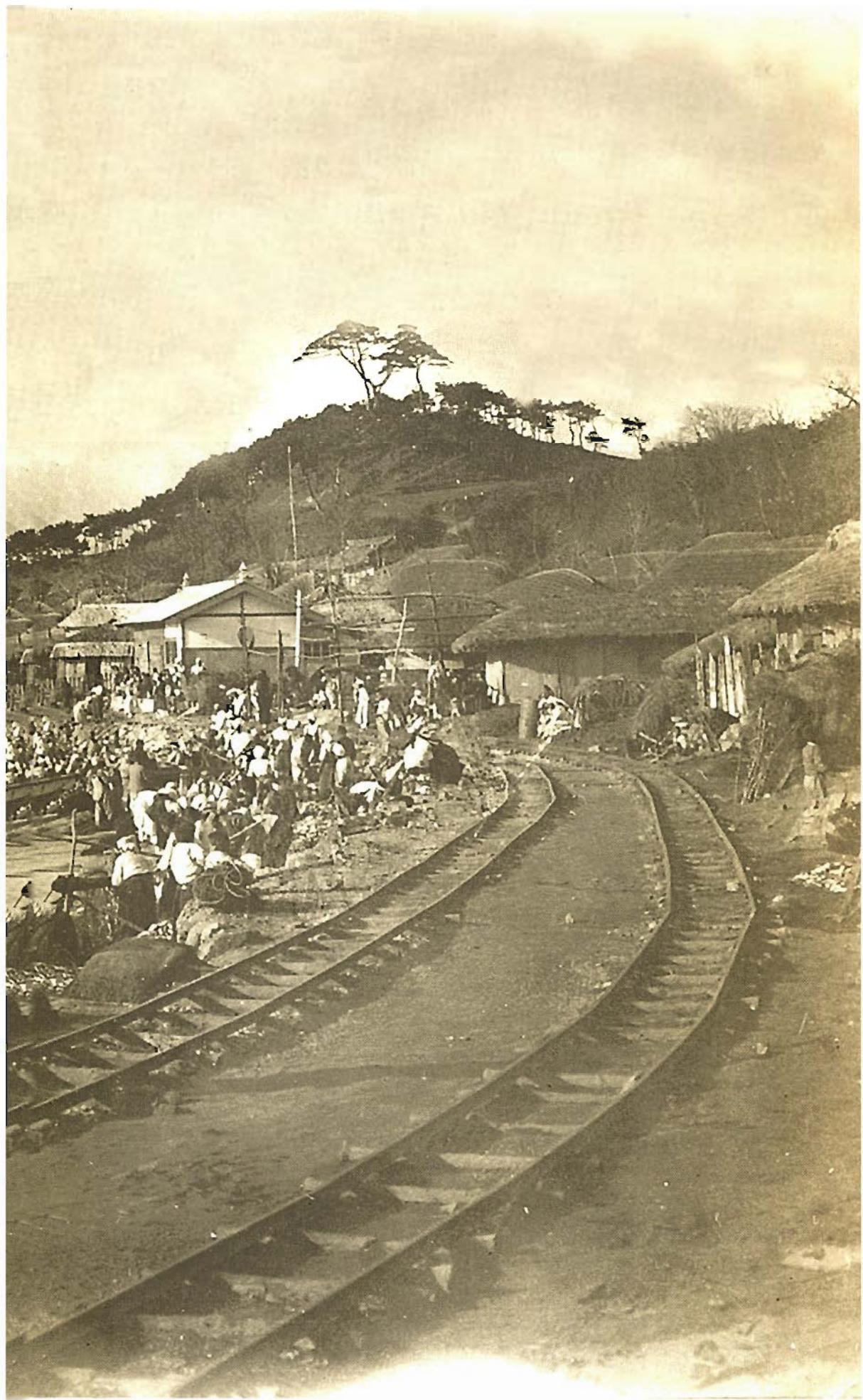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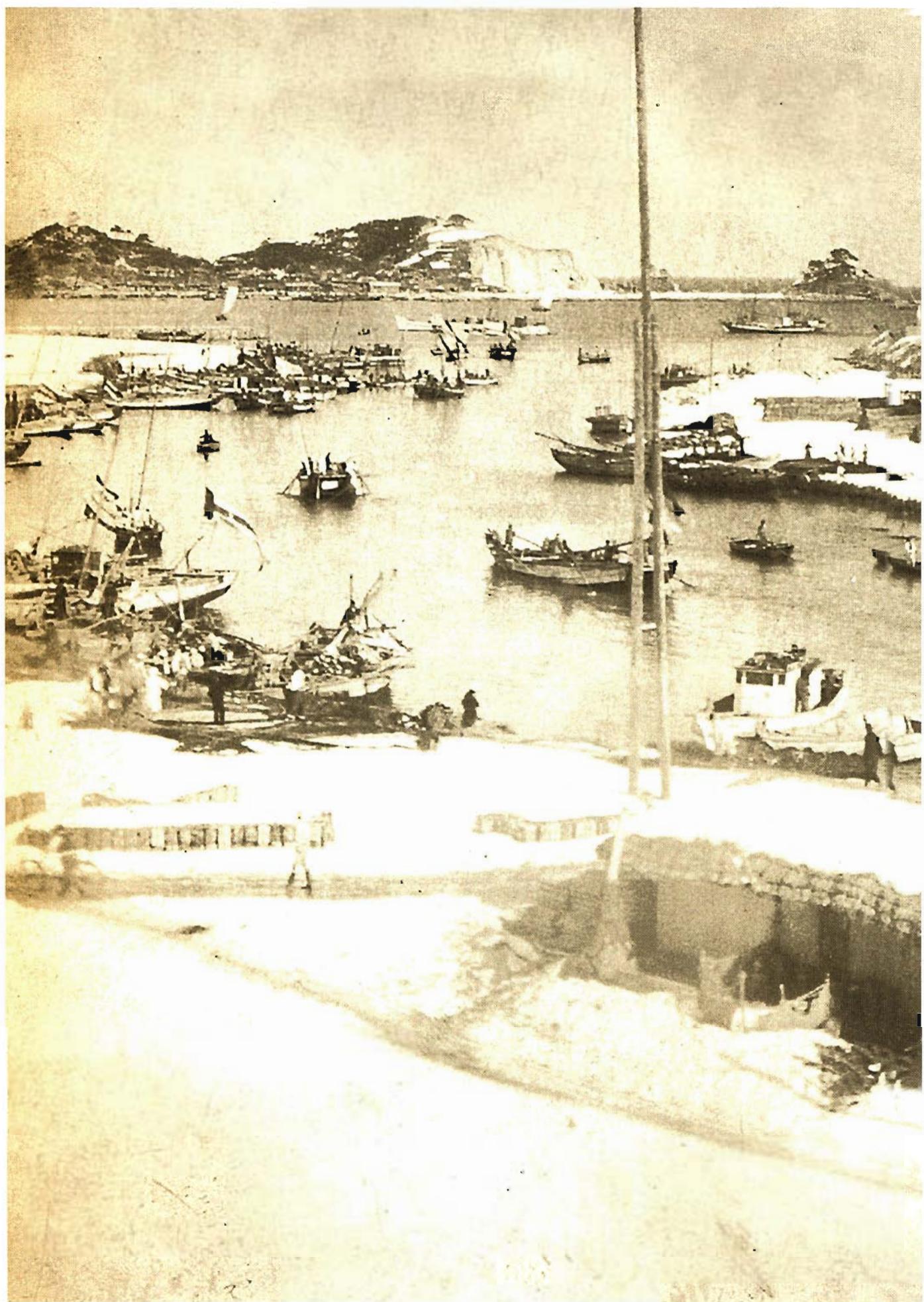
1990년대 속초시 항공사진
1992년
11월
13일



1930년대 후반 동명항 인근 전경

돛을 내린 어선과 바쁜 엔진을 놀리는 어민들
레일웨이 속초항 방파제 築港場를 위해 영업점에서
채취한 磁盤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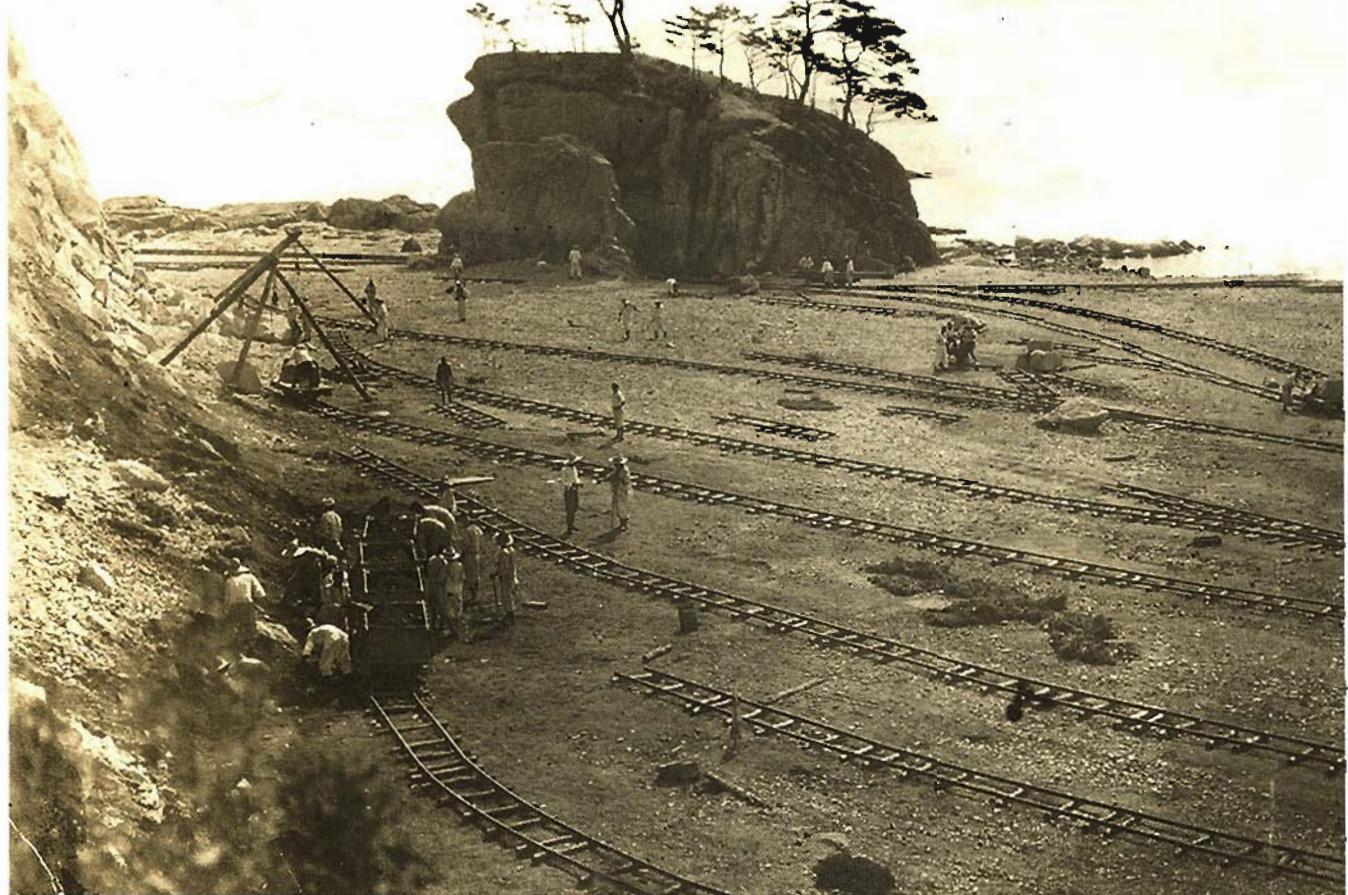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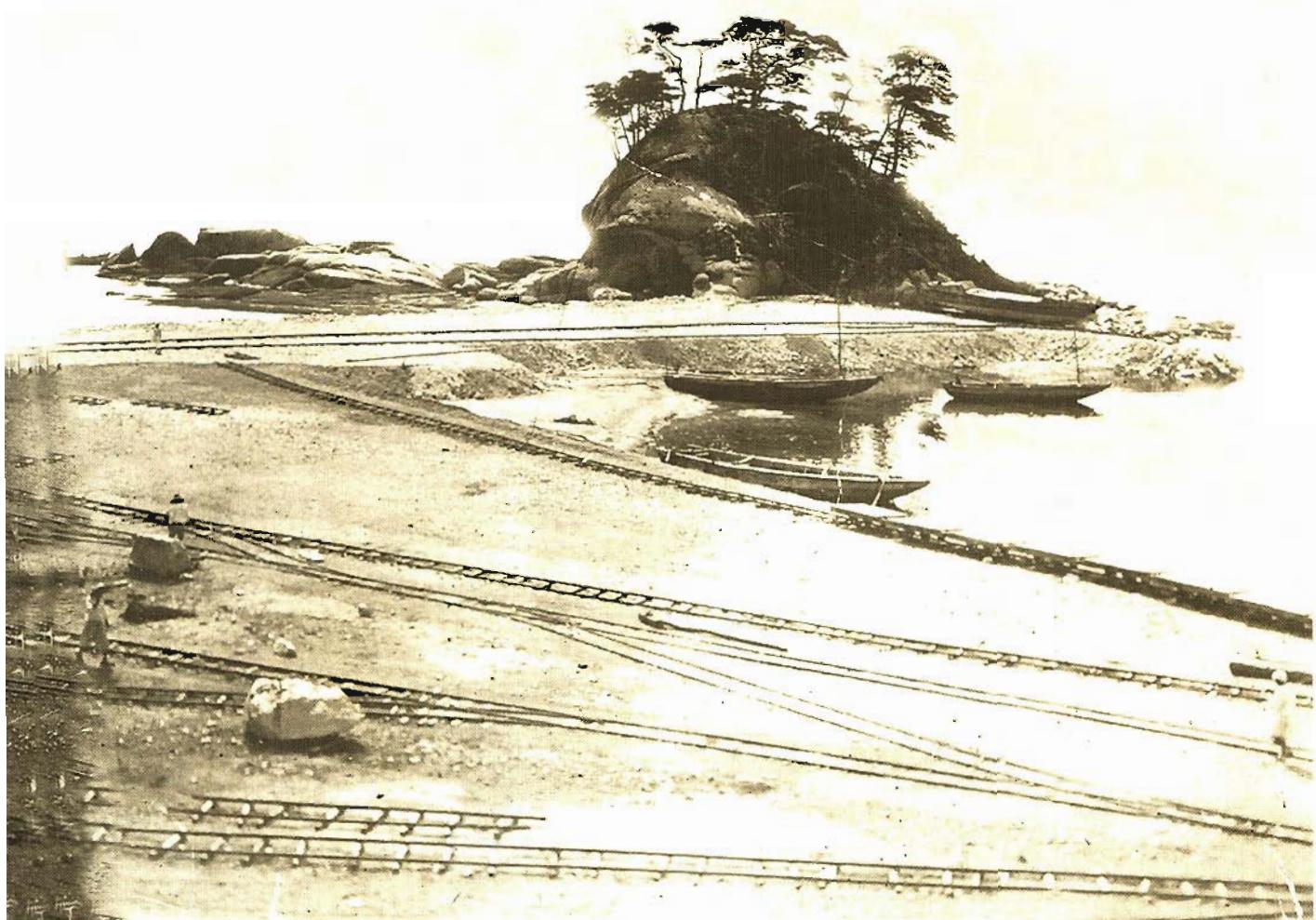


해방전 갓배나루의 겨울

증강의마과 청호동 지역의 한적한 모습과 출어하는 어선들







1940년대 영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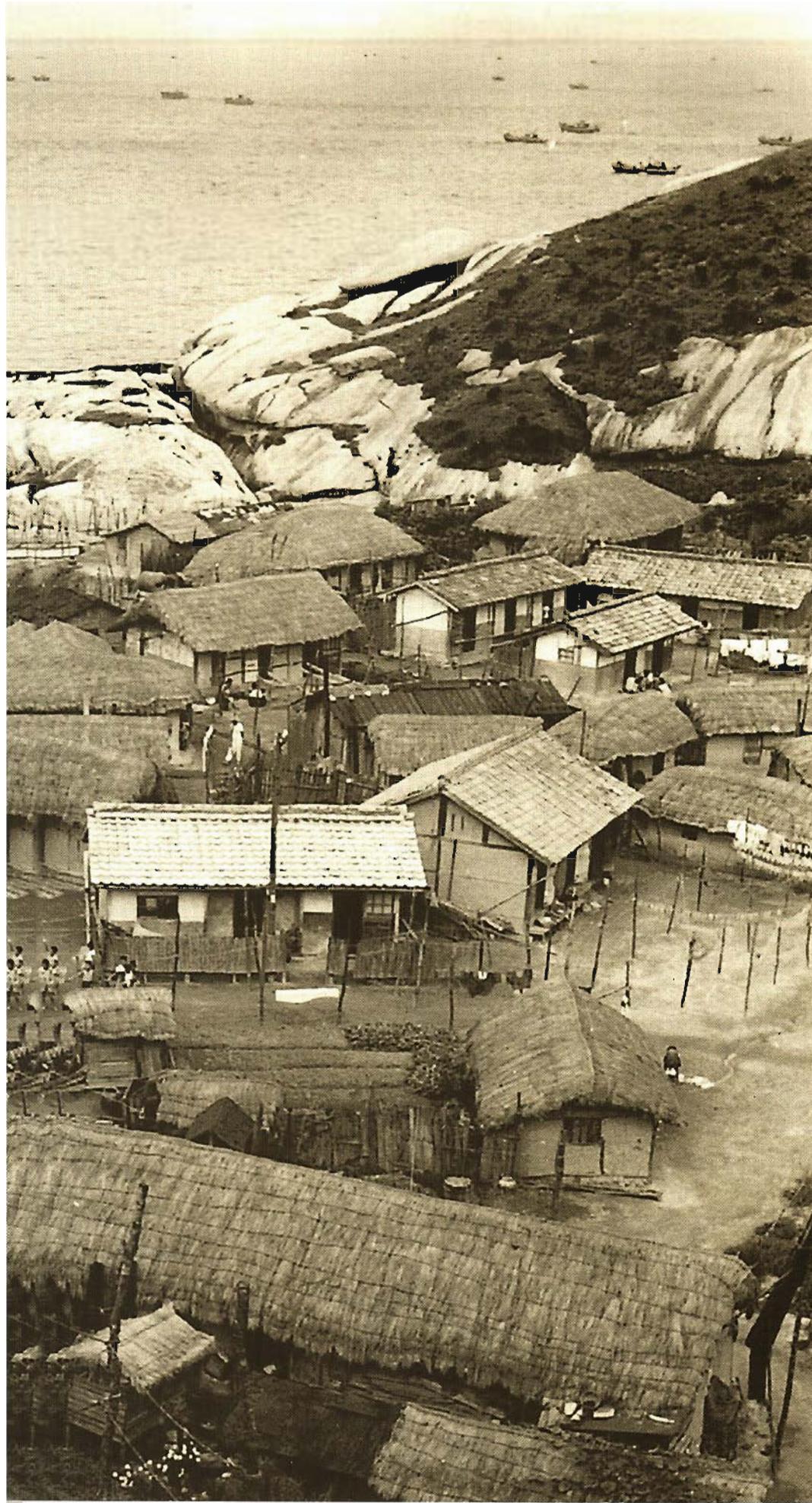
영금정에서 속초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 암반을 채취하는 모습과 이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레일

1956년도 영금정

영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꼭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다하여 영금정이라 이름지어졌으며, 선녀가 내려와 놀던 신비한 곳이라 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비선대로 기록되어 있다. 바다와 접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바위산이었으나 일제시대 속초항의 방파제를 축조하기 위해 바위 산을 파괴하여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는 동해의 싱싱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 횟집들이 즐비한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유원지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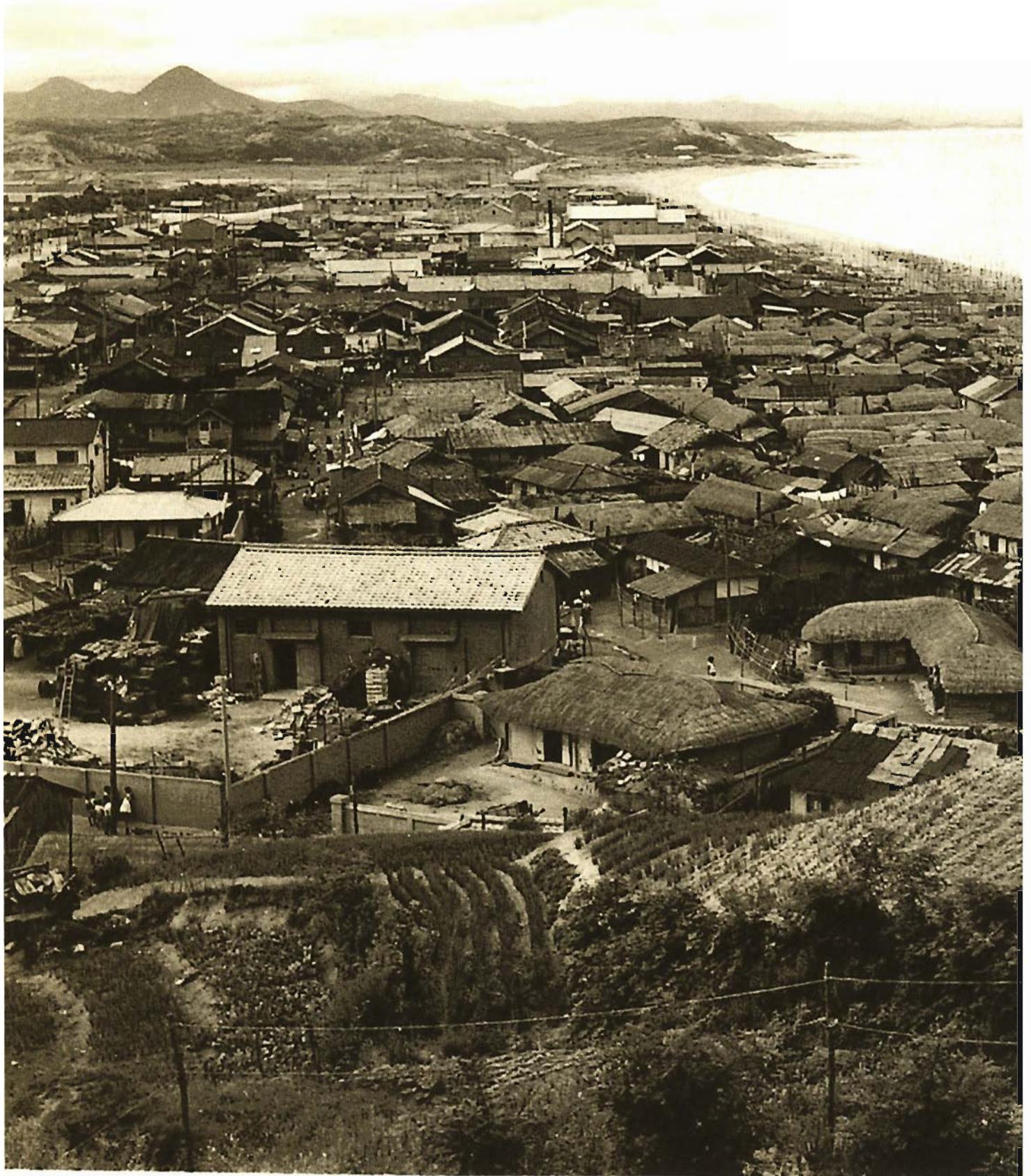
아래사진에는 홀로 남은 바위산과 고기잡이 하는 돛단배 그리고 멀리 조도와 외옹치가 보인다.





속초읍 마을(1960년대)

속초읍에 아래에 있는 마을로 초가집이
대부분이며 바다 멀리 출어한 어선들이
많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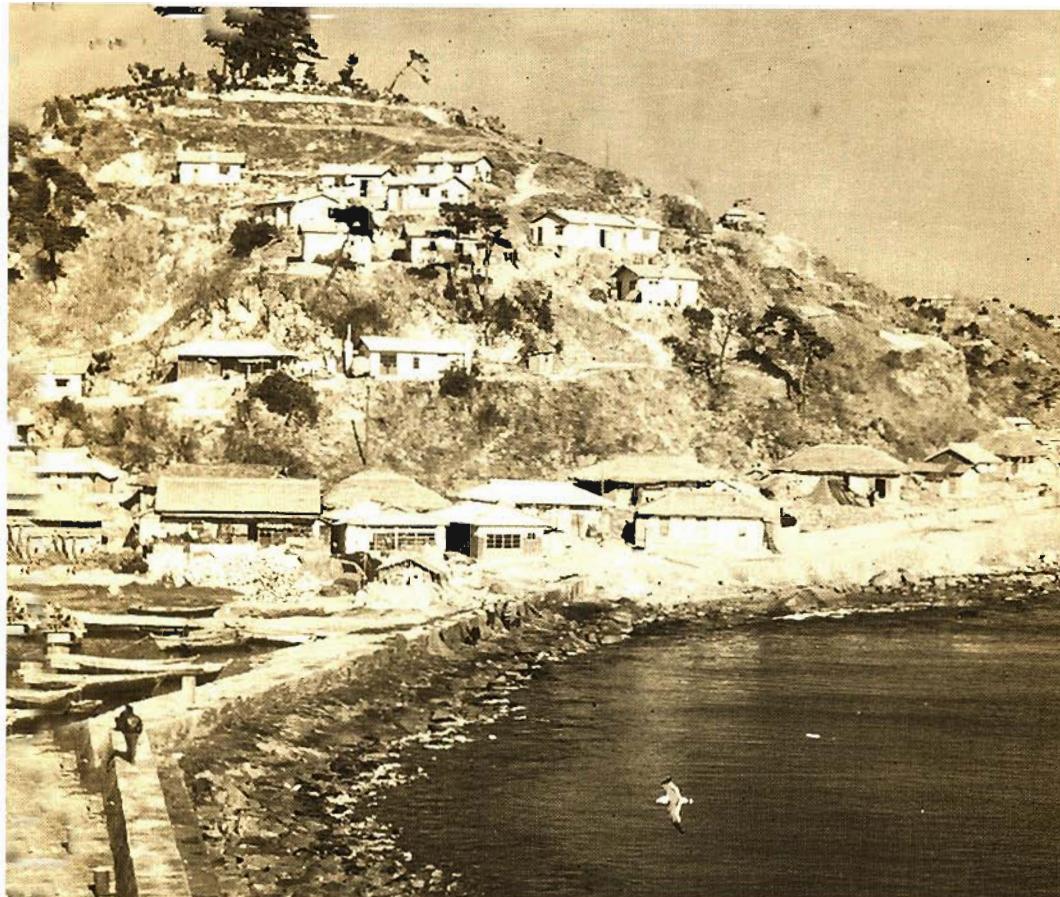




1960년대 영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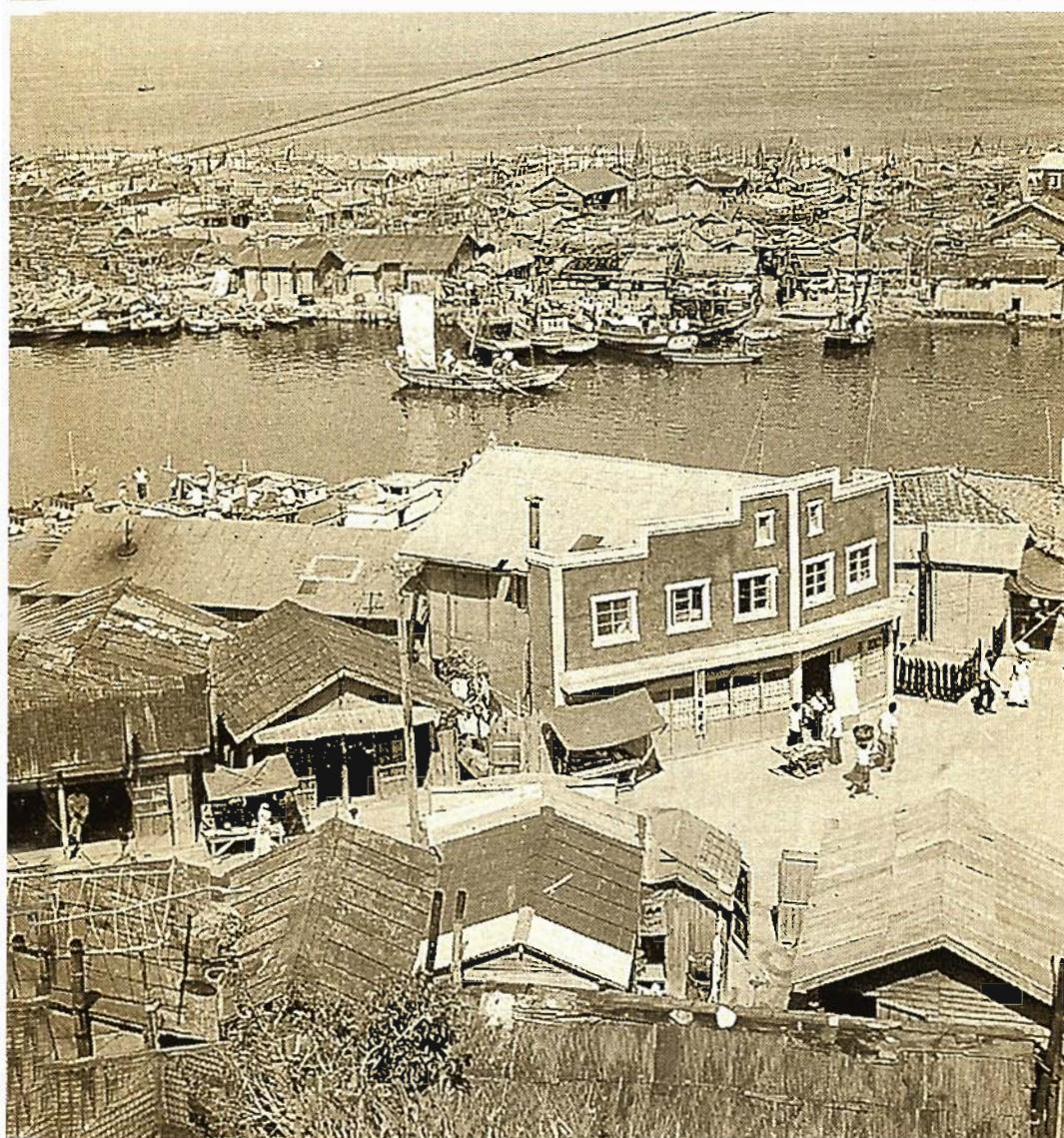
해안선을 따라 밭을 짚은 초가집들과 해변에
생일장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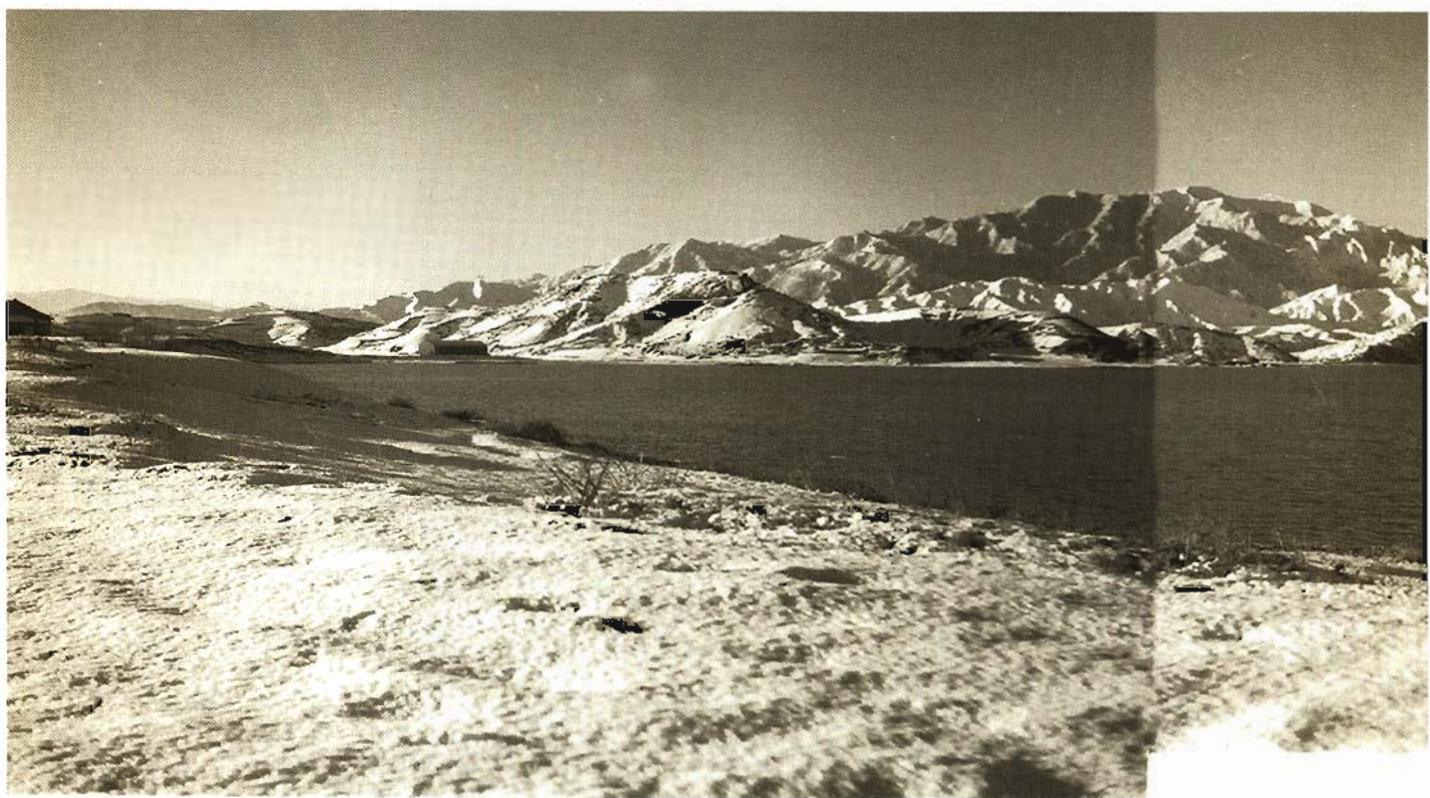


1970년대 대포항 전경

항구에 접안한 어선과
항구를 따라 형성된 어
촌의 모습



1960년대 속초 중심가



영랑호 범바위와 금장대

한국전쟁 이후 범바위 정상부근에 건립한 정자이다. 한국전쟁 당시 속초지역 수복에 공이 많은 제11사단장 김병휘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이다.

1950년대 영랑호 전경

신라 화랑 영랑의 전설이 전하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석호. 현재 유원지로 개발되어 있으며, 카누경기장과 지역주민의 흥미로운 산책코스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중앙 · 금호동간 국도(1968년)



금호동 국도 주변 전경(1960년대)



낙천여관 앞 국도(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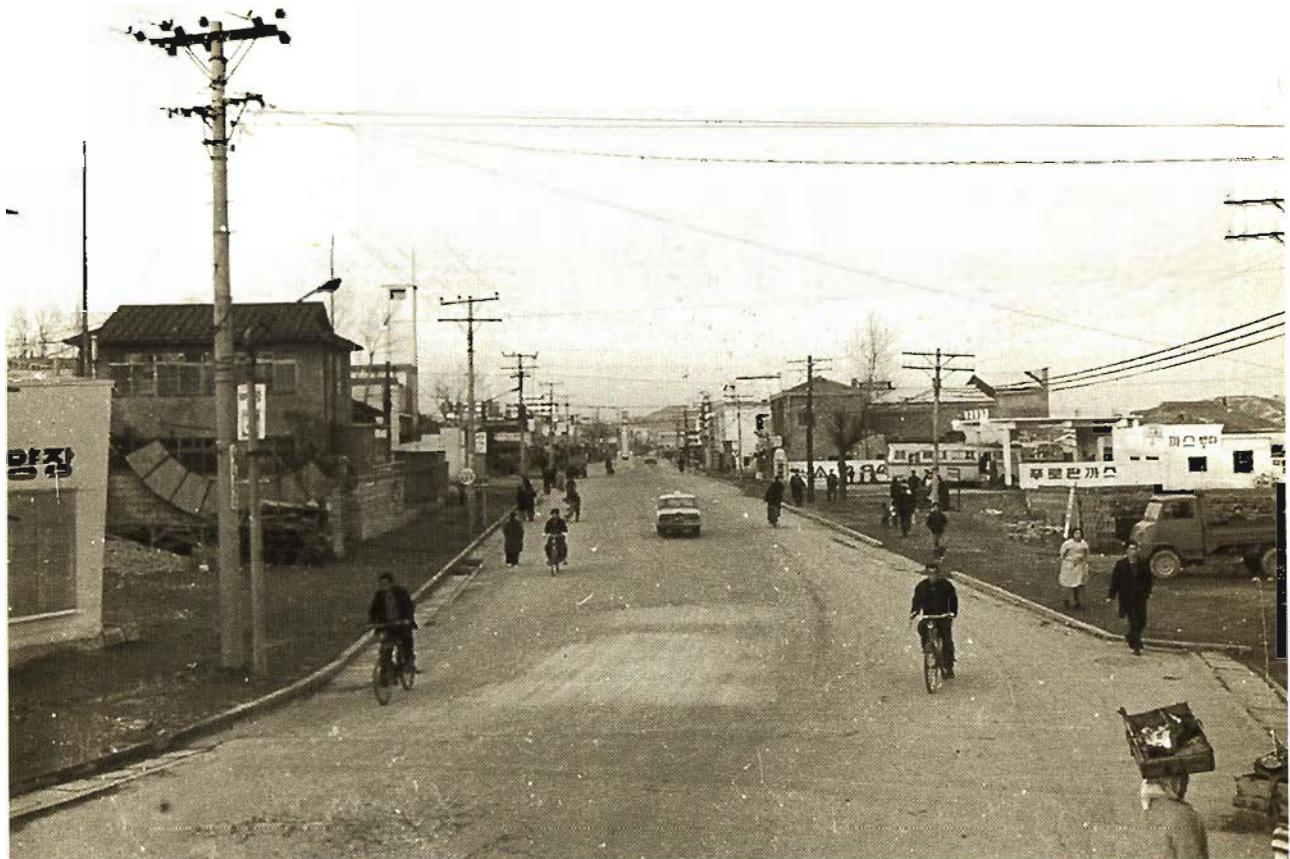
7번국도 전경(1960년대)



청대산에서 본 시내 전경 및 국도(1974년)



금호동 국도(1973년)



시청앞 국도(1972년)



영랑동 국도(1975년 2월)



구 조양동사무소 앞 국도(1970년)



청학동 국도(1980년)



교동 구 보건소앞 국도(1981년 3월)



교동 구 속초중학교앞 국도(1981년 3월)



영랑동 전경(1966년)



영랑동 가로 확장 공사(1966년)



영랑초등학교 뒤편 영랑호(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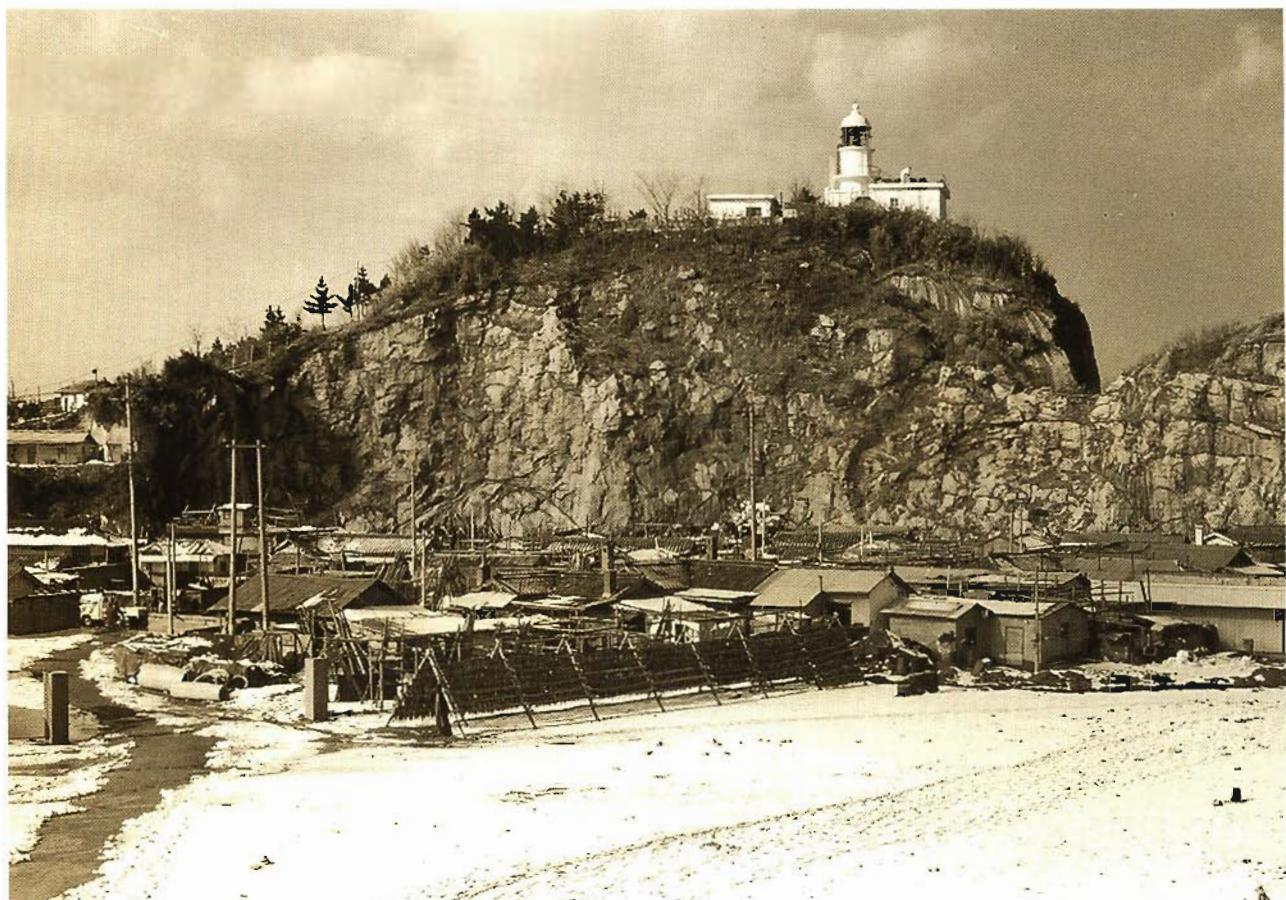
속초문화회관옆 로타리(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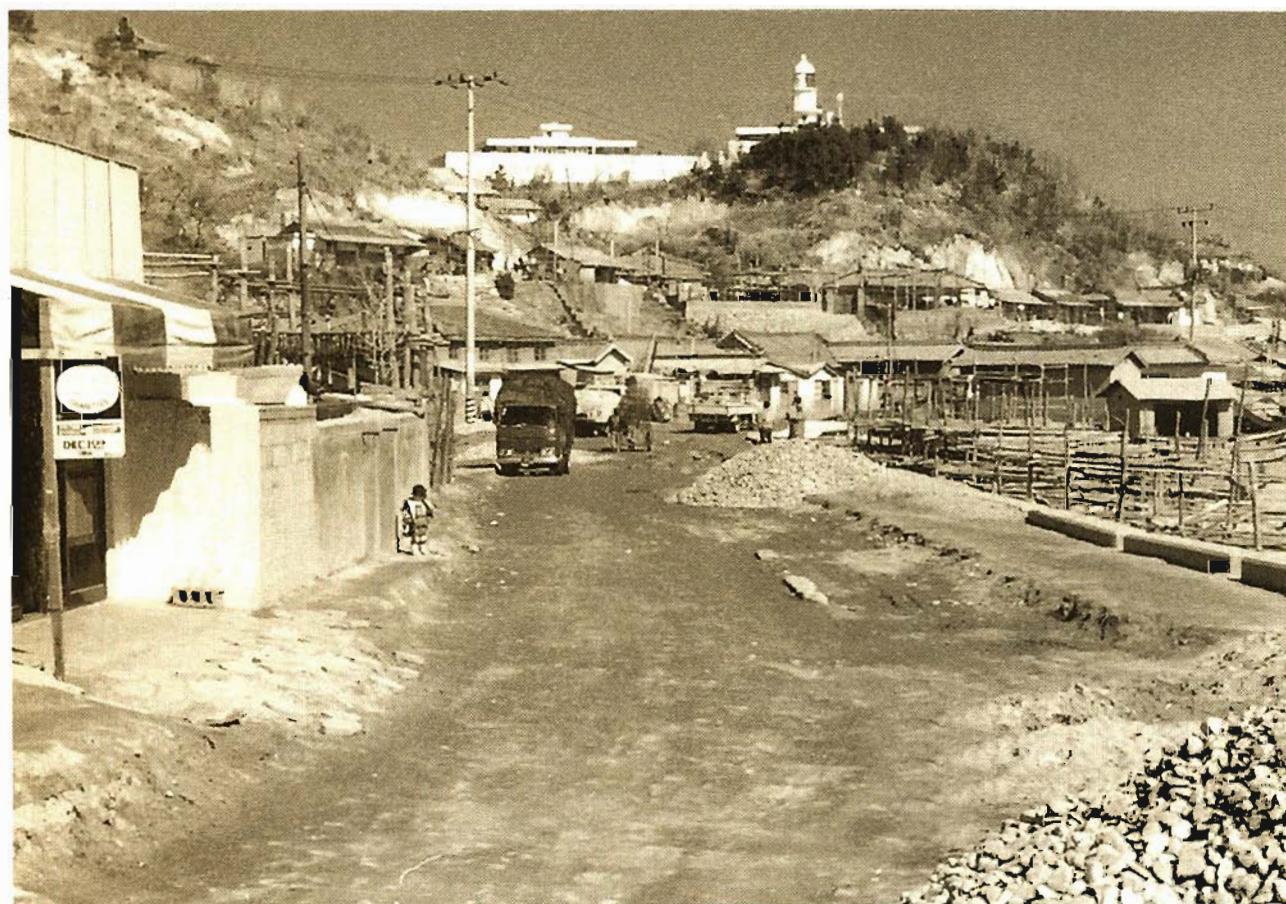
속초방송국 진입로(1974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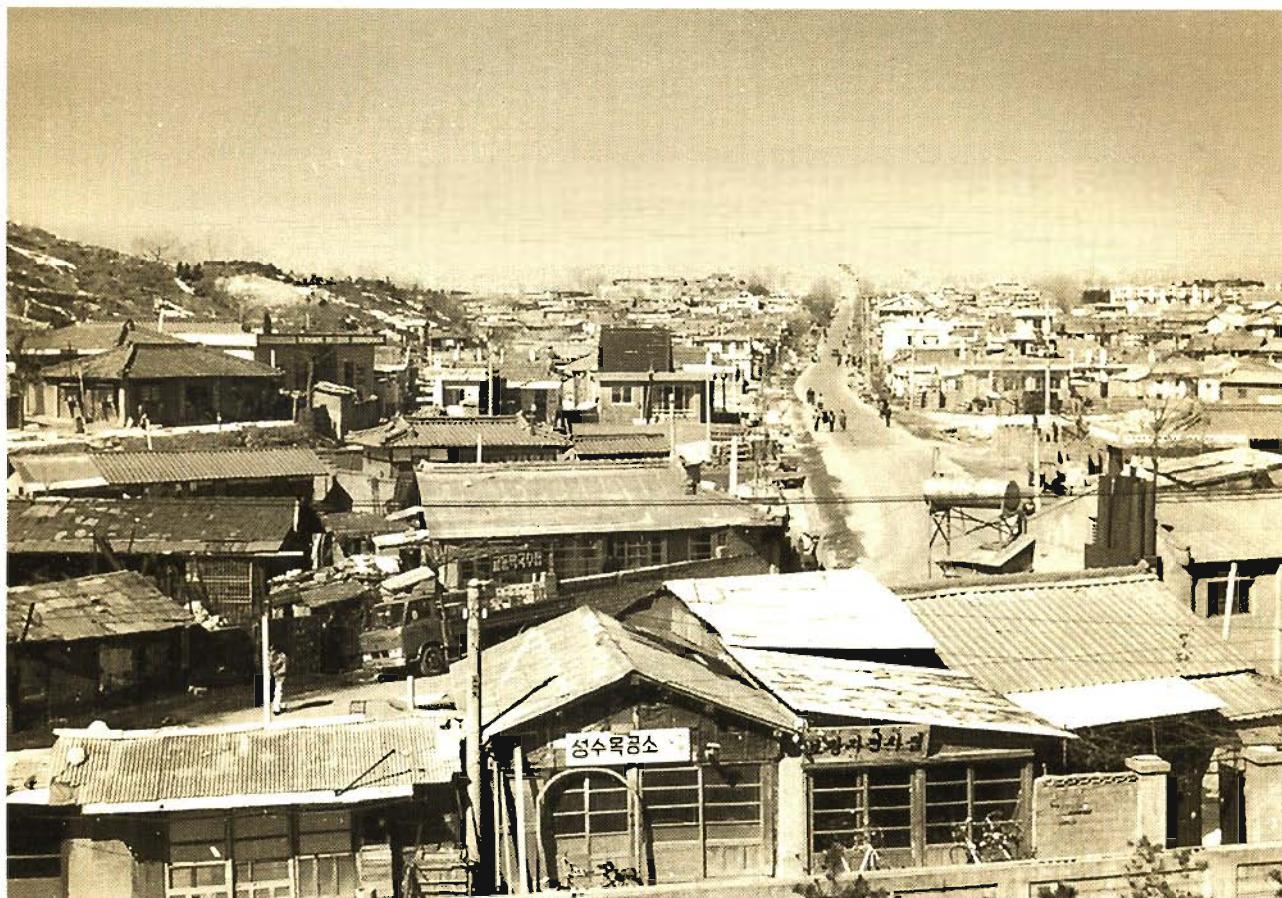
동명항(매립전 1980년대)



동명항 주변과 속초등대(1980년대)



영금정 진입로(1990년)



교동가로(1981년)



교동택지 아남프라자 앞 진입로(1985년 2월)



속초여자중학교 앞(197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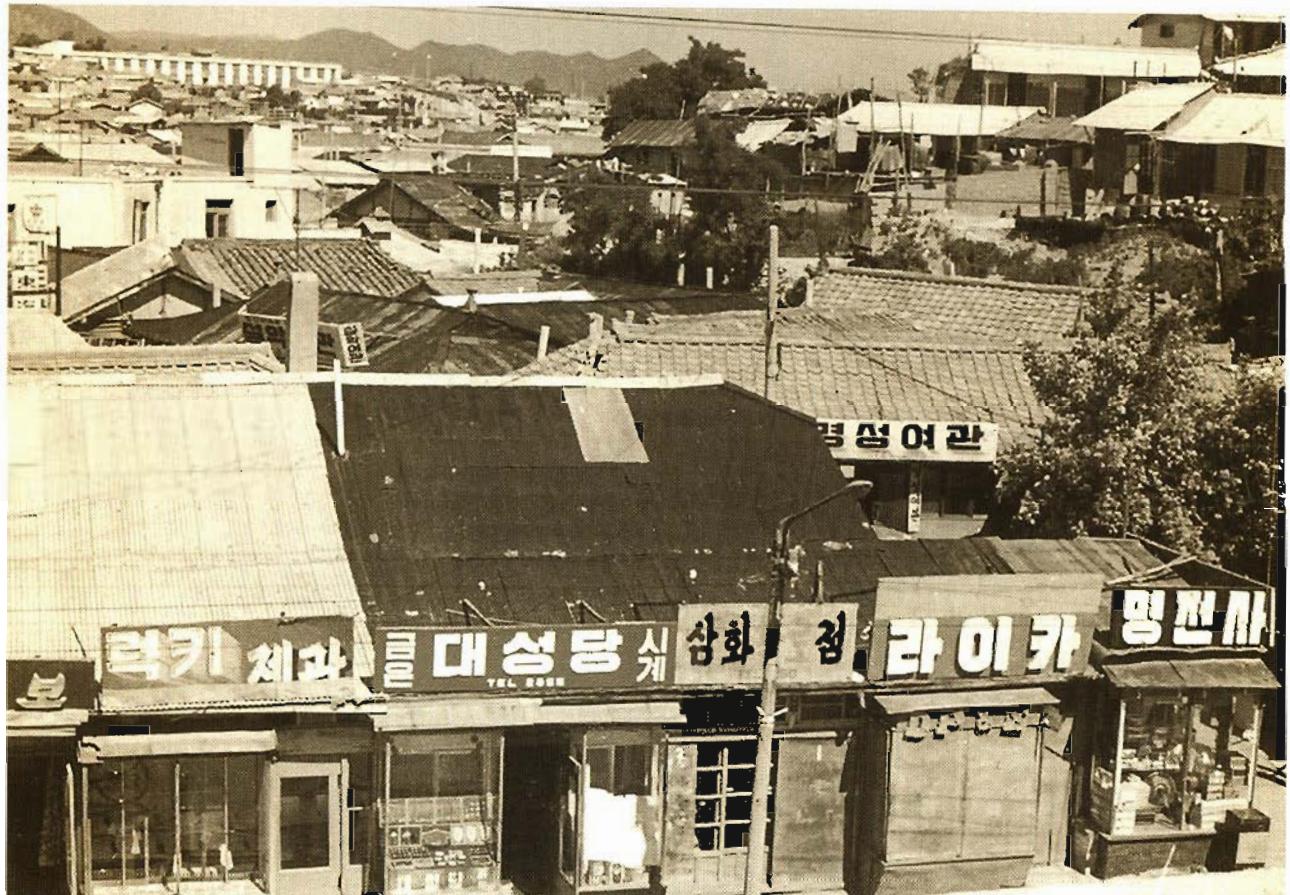
구 교육청 뒷길(수복로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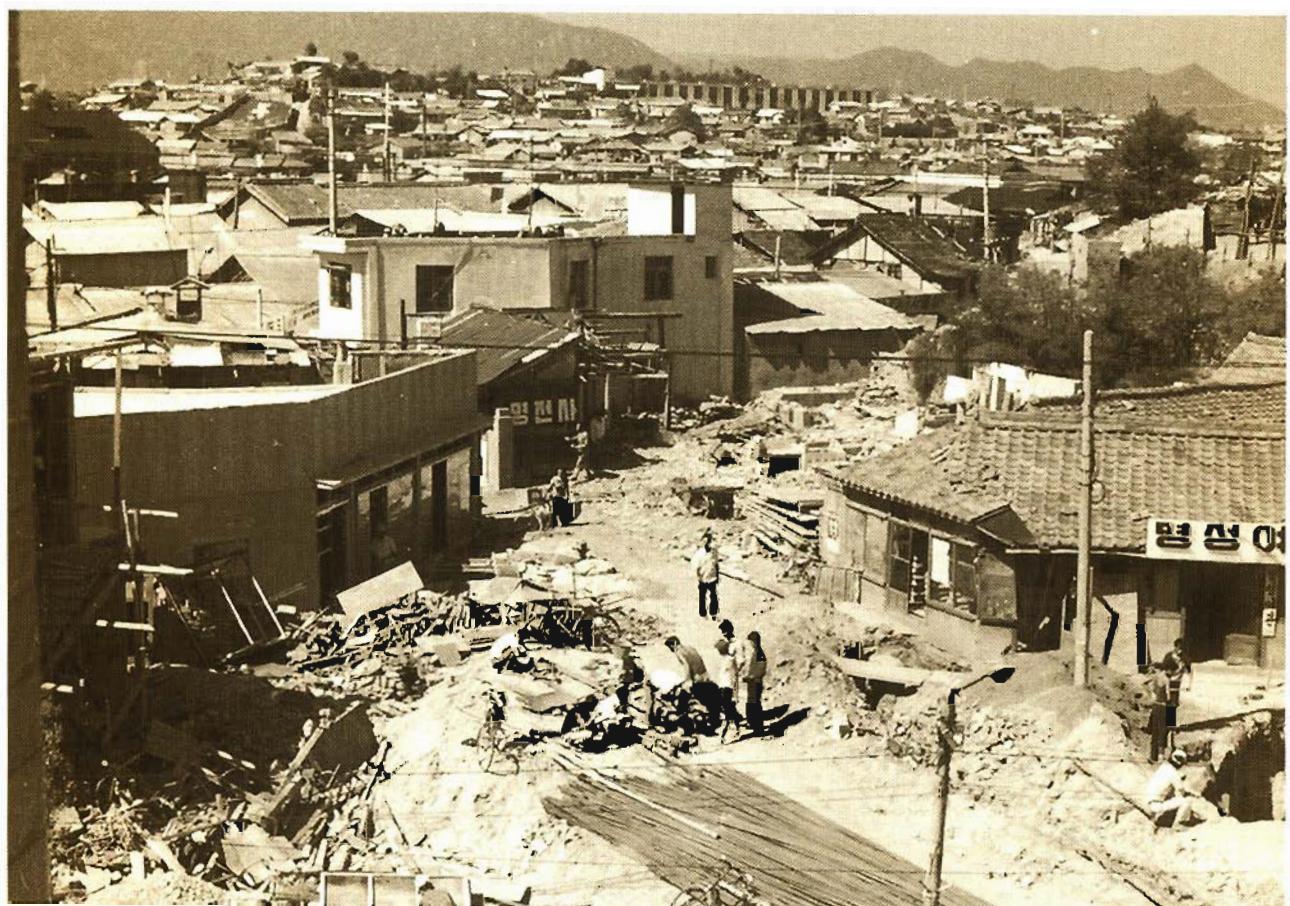
중앙동 4거리 국도(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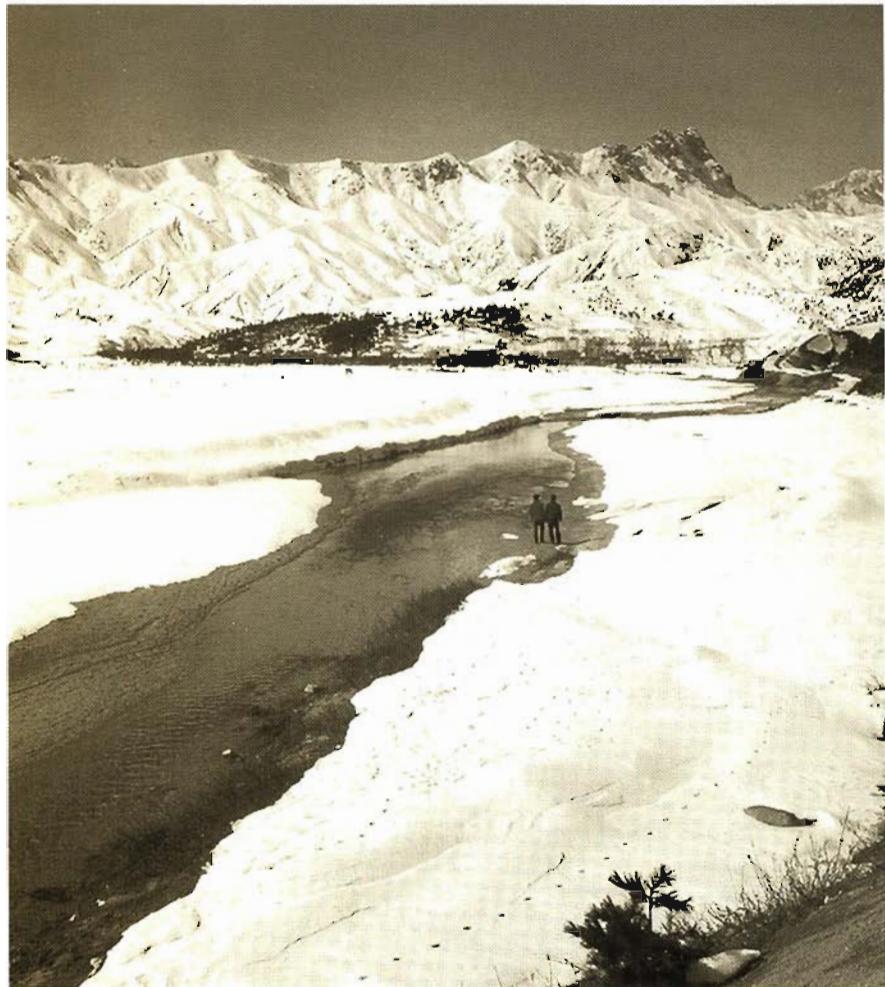
중앙극장 뒷편 골목포장 새마을사업(1970년대)



중앙가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된 건물(1975년)



중앙가로 개설공사 편입건물 철거후(1975년)



장마루리 천산(담마루리 천산 1958년)



폭설이 내린 학사평(을산바위 설경 1958년)



척산 진입로(1972년)



목우재 진입로(1976년 12월)



미시령과 속초원경(1960년대)



경지정리와 청초천 직강공사 전 노학동 전경(1970년)



노학동 도리원리 진입로(1970년대 초)



시청앞 속초항(1960년대)



시청앞 속초항(1960년대)



시청앞 광장(1964년)



정비되어 가는 7번국도 주변(1970년대)



공설운동장 5거리 주변(1940년대)



공설운동장 옆(1980년)



가원주택 설악타워맨션 앞(1979년 8월)



속초초등학교 뒤(1981년)



노학동 경지정리 철거전 가옥(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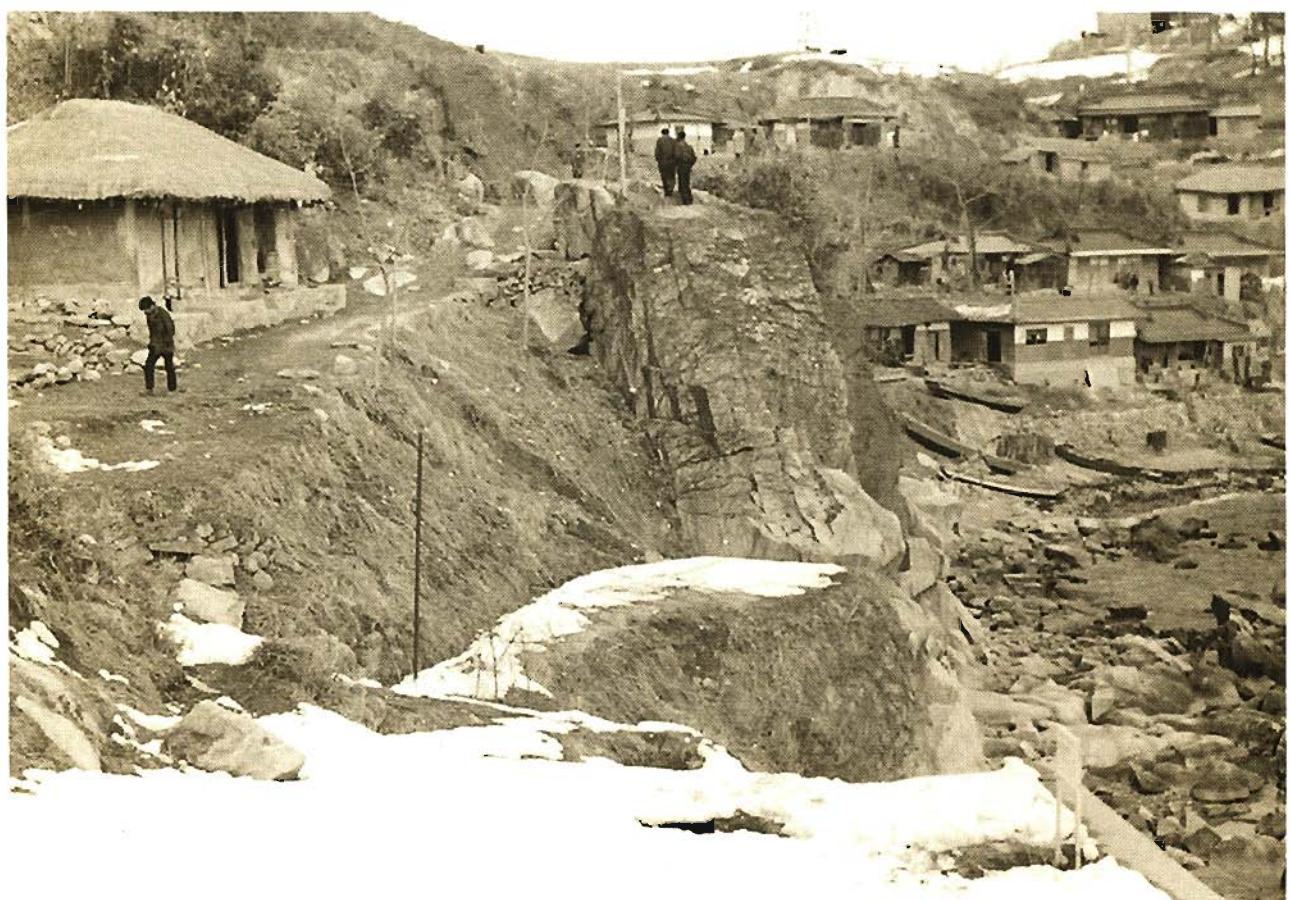


청대산과 청대리

1970년대. 좌측에는 소나무 3개가 보인다.



대포고개(1970년대)



외옹치 순환도로 개설전(1976년)



대포동 내물치(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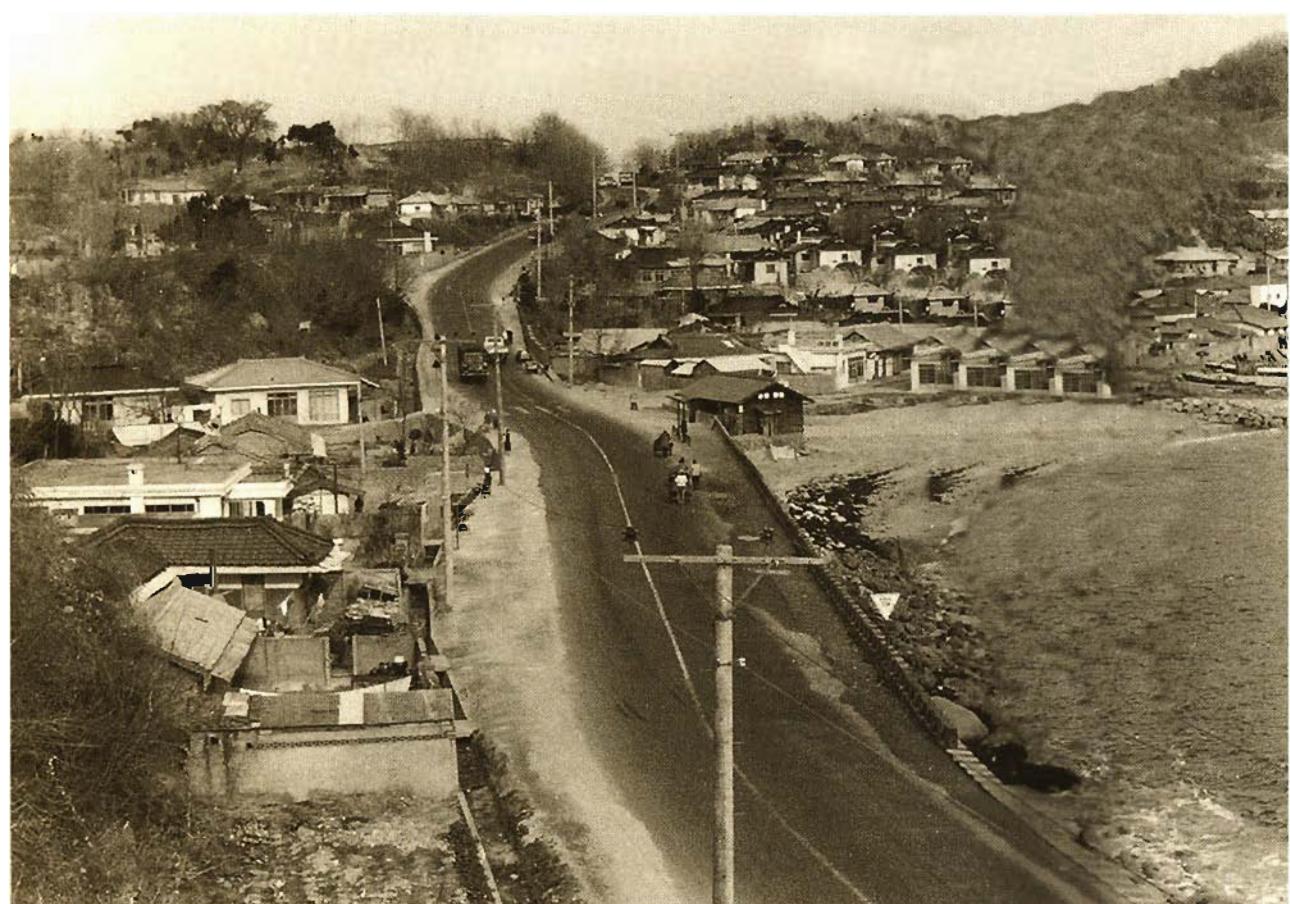


대포동 내물치마을 철거전 설악산 입구(1979)

내물치 마을이 철거된 후 현재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대포농공단지 입구 전경(1970년)



대포항 입구 마을과 국도(1981년)



대포동 내물치 마을의 초가집(19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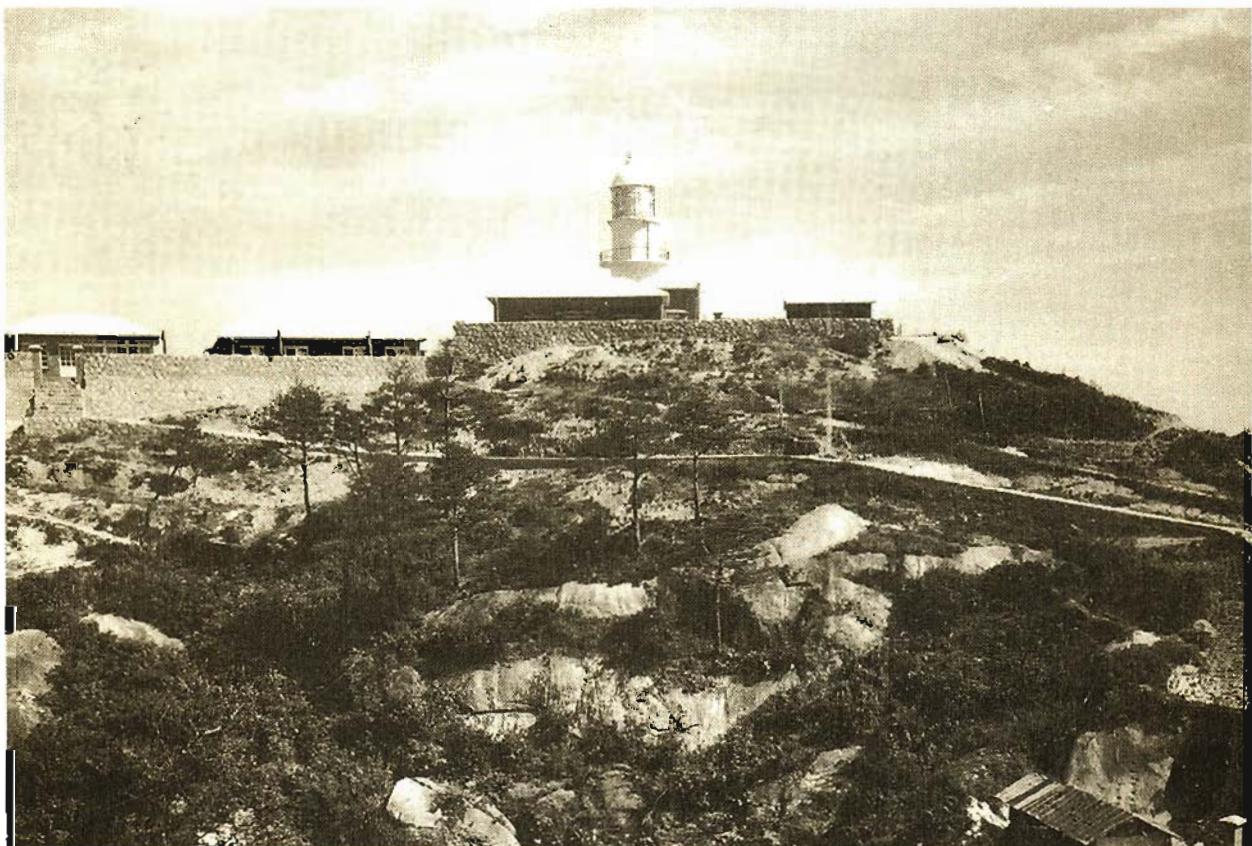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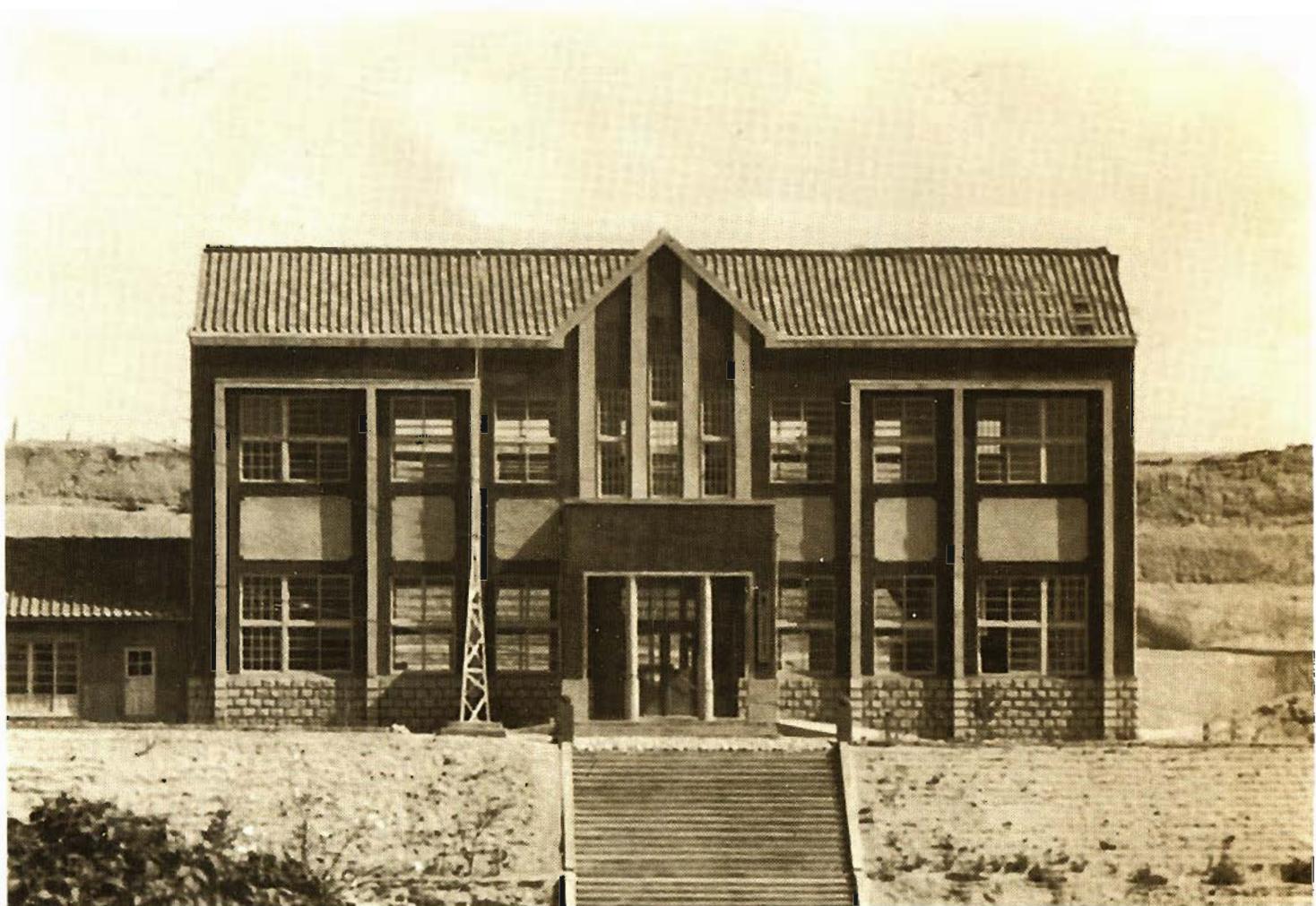
대포동 내물치마을 지붕개량 사업(1970년대)

II. 주요건물

속초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는 양양군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행정기관과 산업과 관련한 주요시설이 크게 건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각종 행정관청과 산업시설이 건립되었으며, 1963년 시로 승격되면서 각분야의 행정관청과 산업시설이 유치되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가 지속적으로 건립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종교시설이 건립되고, 1960~70년대 시세가 급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약하면서 도시 곳곳에는 기업체와 극장이 국도주변에 건립되었다. 그 후 설악산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지개발사업과 더불어 각종 숙박업소를 비롯한 관광관련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면서 현재의 속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1950년대 속초읍사무소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된 이후 건립된 읍사무소는 당시 속초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으며. 읍사무소 앞 광장은 시승격 기념행사 등 각종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속초시 청사

1963년 시로 승격된 이후 1964년 7월 21일 착공하여 1966년 9월 28일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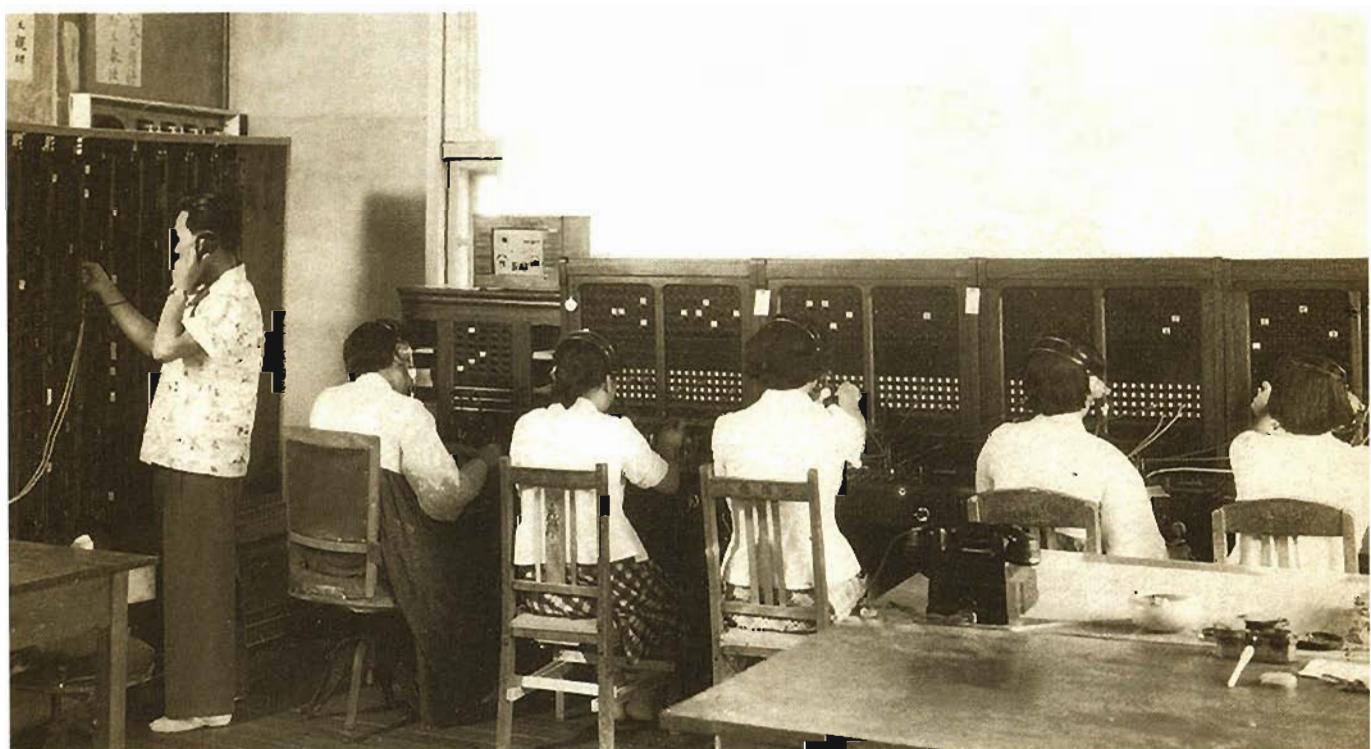


속초읍사무소 집무 전경(1960년대)



1950년대 속초우체국

속초항구의 개발에 따라 어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시청옆 중앙동 468-3번지에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건물 칭사로 1938년 12월 1일 준공되었다.





대포동사무소(1966년 6월 30일 준공)



일복문화관

1975년 10월 17일 기공하여 1977년 4월 3일 준공. 정일권 국회의장과 재일동포 황칠복씨의 회사로 건립되어 속초문화원에서 운영하였다. 1987년 4월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 속초문화회관이 1990년 10월 10일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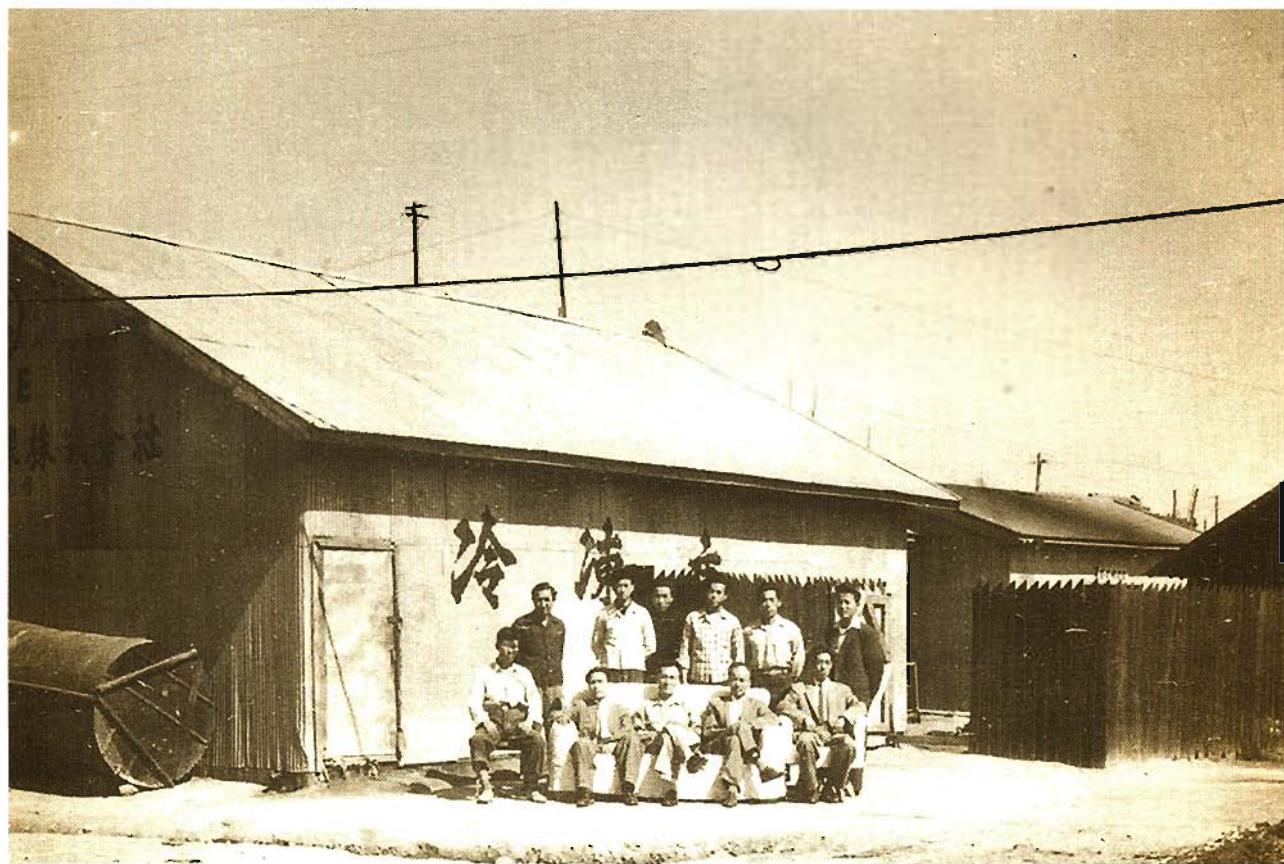
동림수산 주식회사 속초출장소(1950년대)



朝運속초출장소(1950년대 현 대한통운)



동해상운 속초출장소(1950년대)



동해제빙 냉동공장(1950년대)



농업은행 속초출장소

1956년 개설되어 속초지역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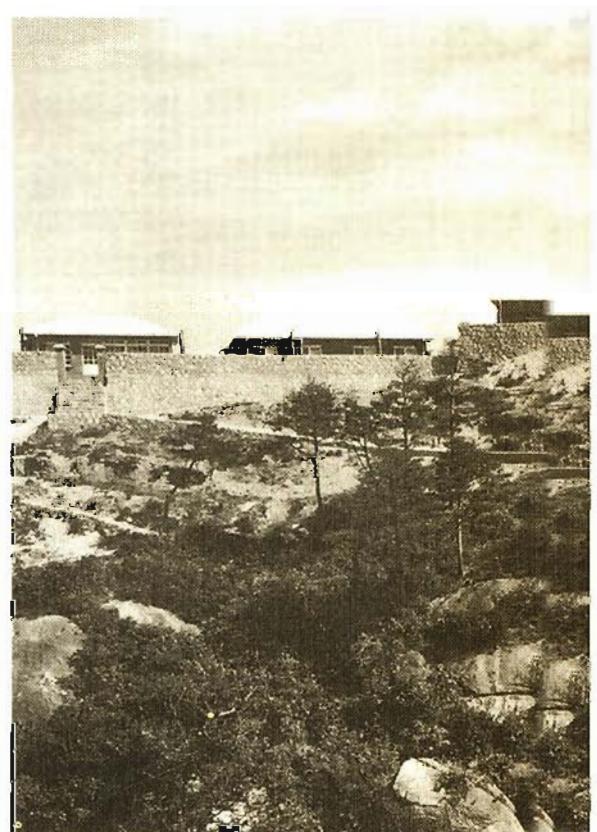


속초의용소방대(속초읍 당시)



속초소방서

1980년 移轉까지 시청옆에 있던 속초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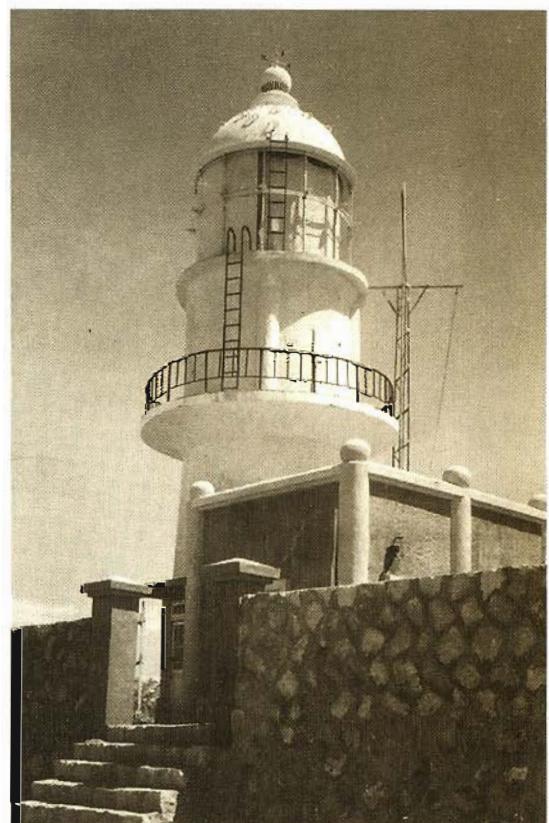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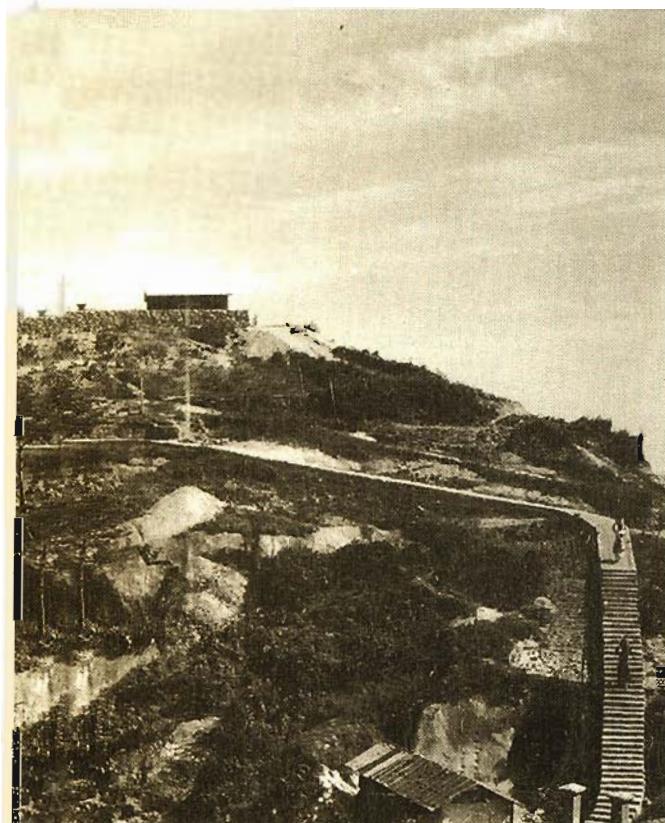


1950년대 속초방송국

시청옆에 위치한 KBS속초방송국의 전신으로 1956년 8월 1일 개국하였다.

속초등대

1957년 6월 8일 건립과 함께 최초 점등된 후 현재까지 속초어민들을 위해 속초앞 바다를 밝히고 있다.





束草驛舍

속초시 동명동 450-195번지에 있었던 동해북부선 12개 역사중 가장 오래까지 남아 있던驛舍였다. 1941년 프랑스식 고깔형 집으로 건립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북진 할 때는 화장장으로, 미군 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고, 1956년 4월에는 명신고등공민학교가 들어서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였다가 1978년 4월 10일 37년간의 애환을 간직한채 철거되었다.



속초어업조합

1920년 도천면 어업조합 발족이 발족하여 1953년 속초어업조합으로 개칭한 속초수산업협동조합의 전신이다.



속초어업조합 집무 광경(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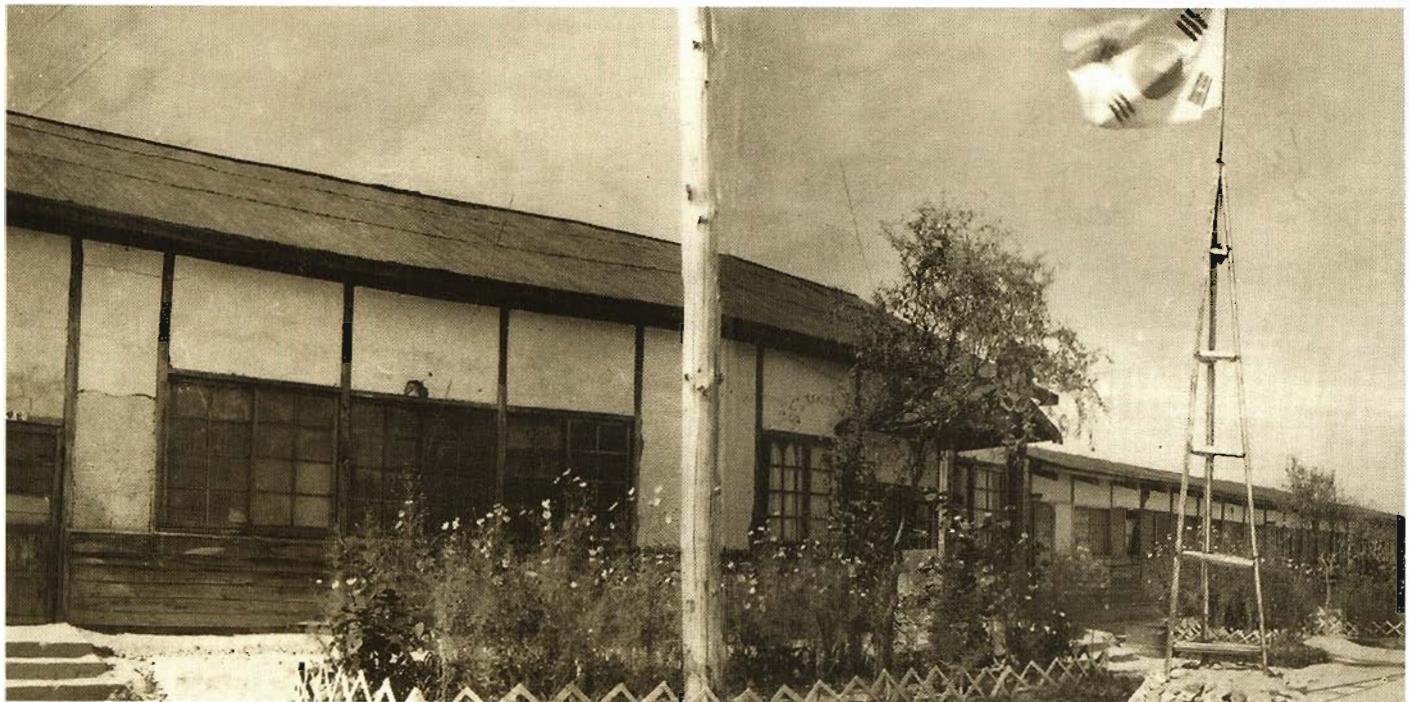


속초시교육청(1968년 4월 13일 건립)



1960년경 영랑보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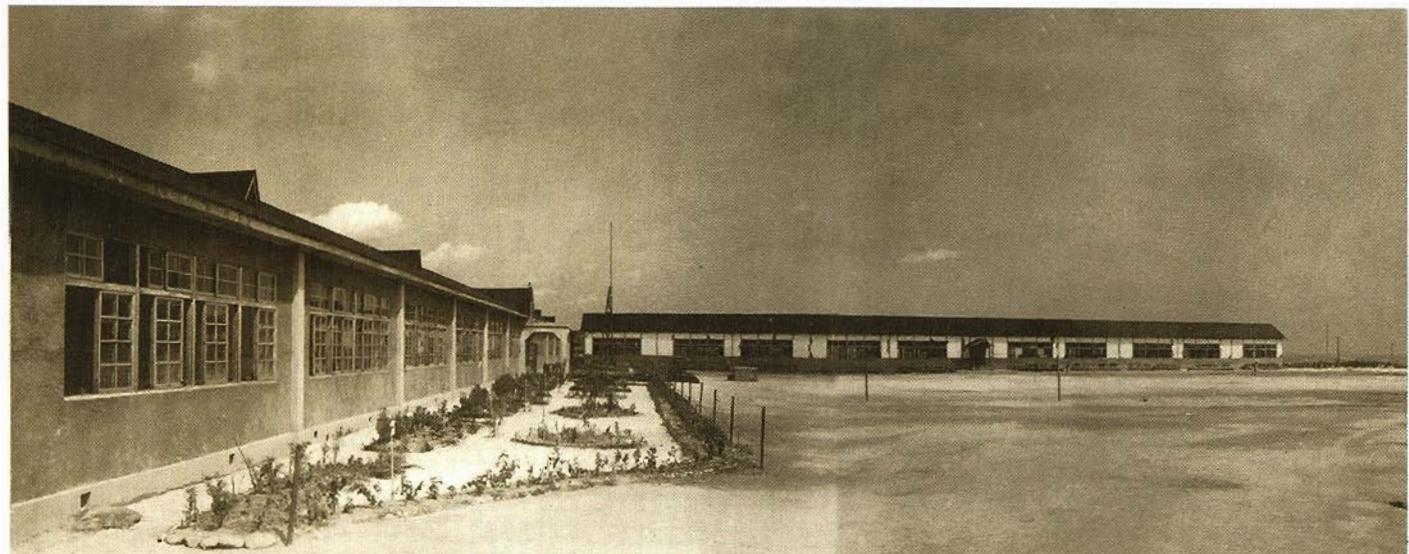
1952년 5월 18일 속초시 동명동 343번지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에는 영랑고아원이라 불렸다.



속초여자중학교(1955년 개교당시)



대포국민학교 전경(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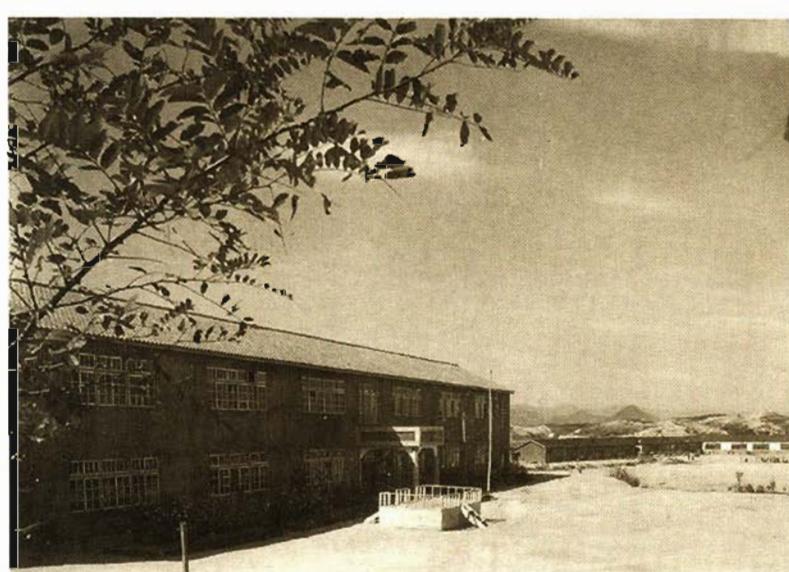
영랑국민학교(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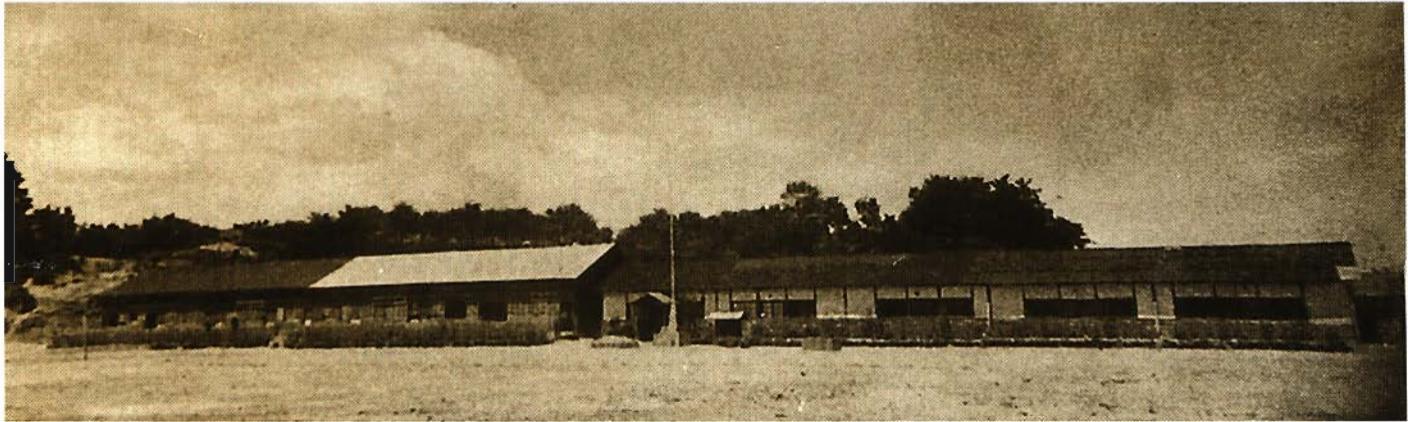
속초국민학교 전경(1950년대)



속초중학교(1953년 교동 657번지에 개교)



속초고등학교(1955년 영랑동에 개교)



설악국민학교 전경(1950년대)



명신고등공민학교 전경(1961년)

속초시 영랑동 592-4번지(현 원각사 자리)에 있었으며, 영세민
자녀들에게 중학과정을 이수시켰다. 1978년 폐교되었다.



양양경찰서 속초지서(1950년대)



백마사장(영랑동 소재 1950년대)



승리사장, 백립약국(1958~59년)

승리사장(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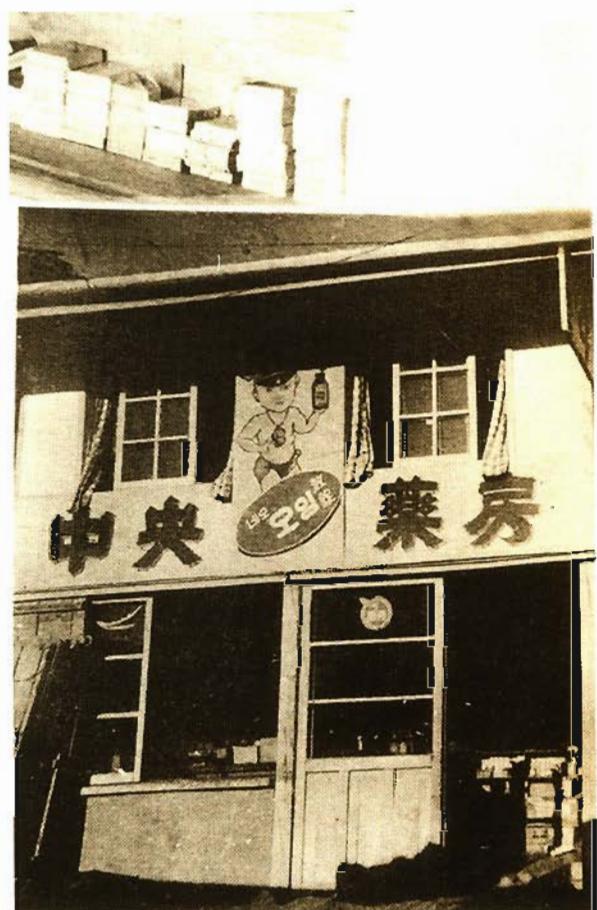
문천시계점(문천당 5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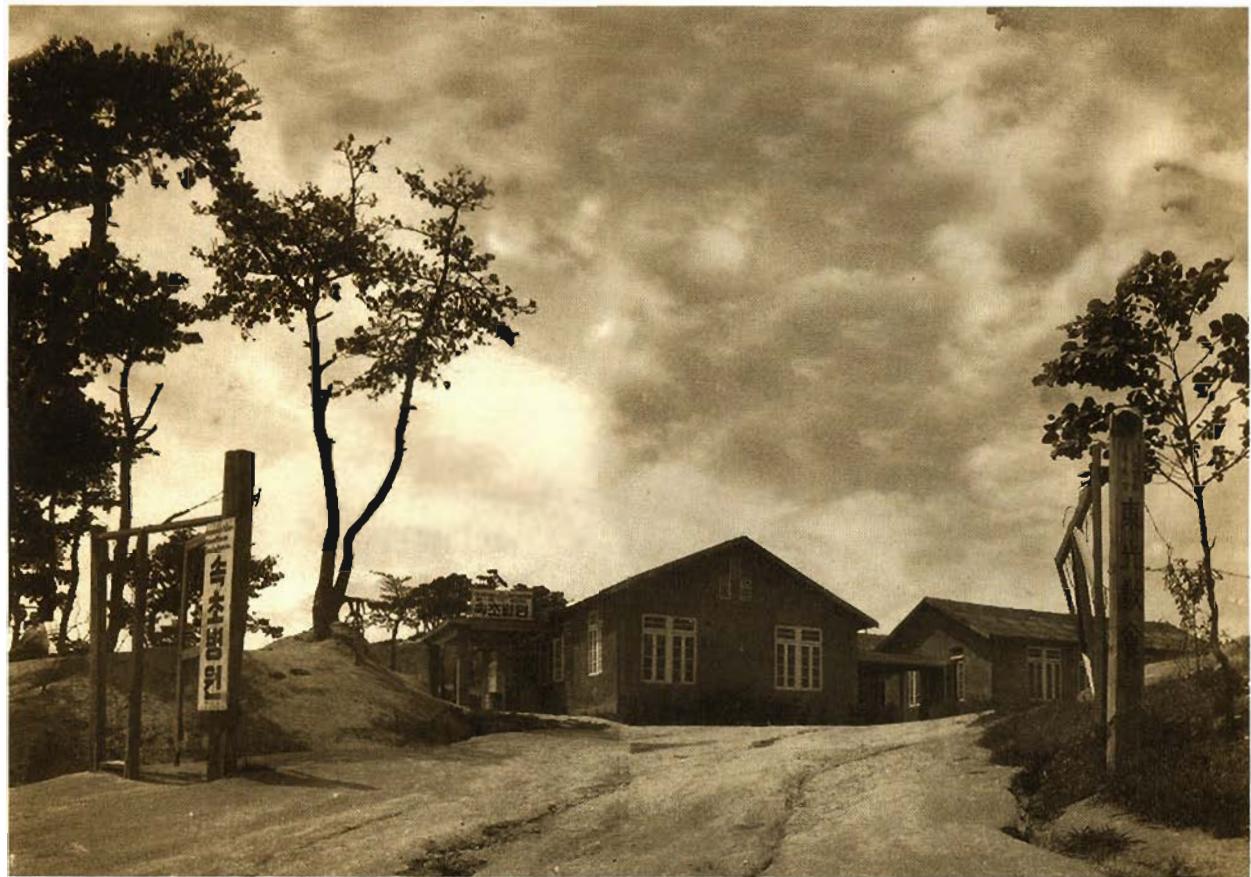
대흥면옥(영랑동내)



원산약방(1950년대 후반)



중앙약방(1950년대 후반)



속초병원

1950년대, 현재 교동천주교회 위치에 세워졌다.



강원도립속초병원(1956년 12월 31일 설립)



계조암 삼성각 전경(1950년대)



신흥사 적목당 전경(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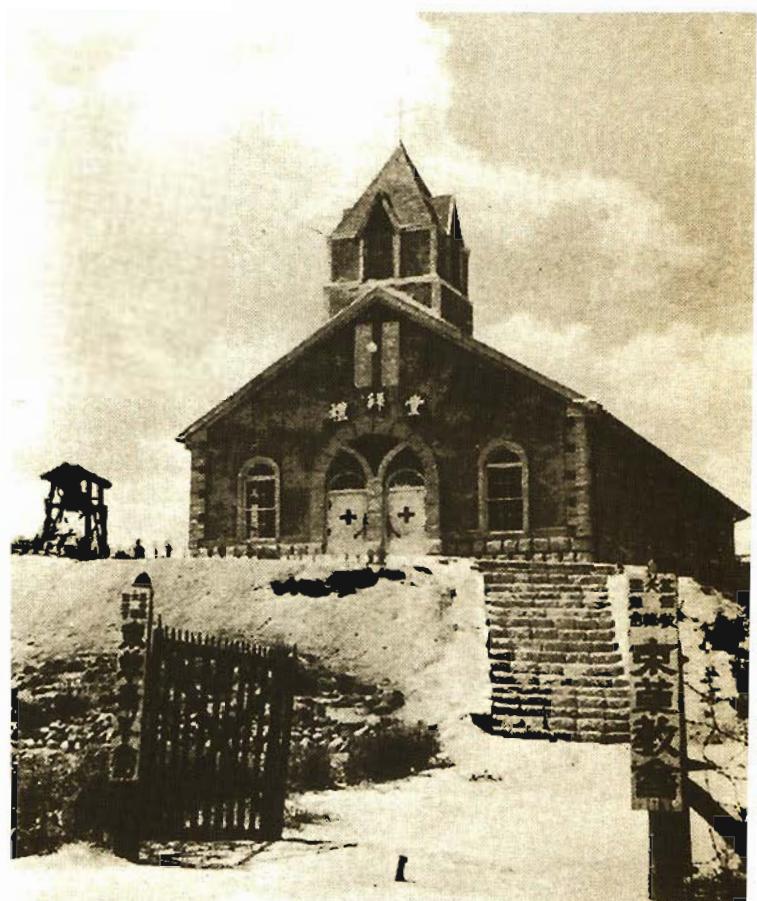


중앙교회

1952년 11월 12일 속초리 4구 청학동 석산철물점 자리에
건립한 속초 최초의 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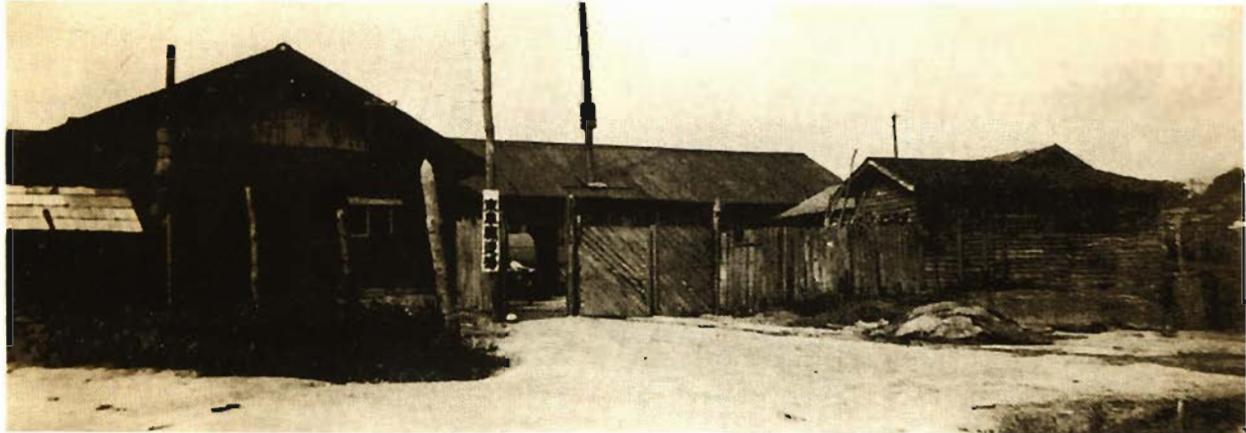


동명동 천주교회(1953년)



속초교회

1939년 속초리 1구 현 동명동에 건립한
속초 최초의 교회



속초양전장(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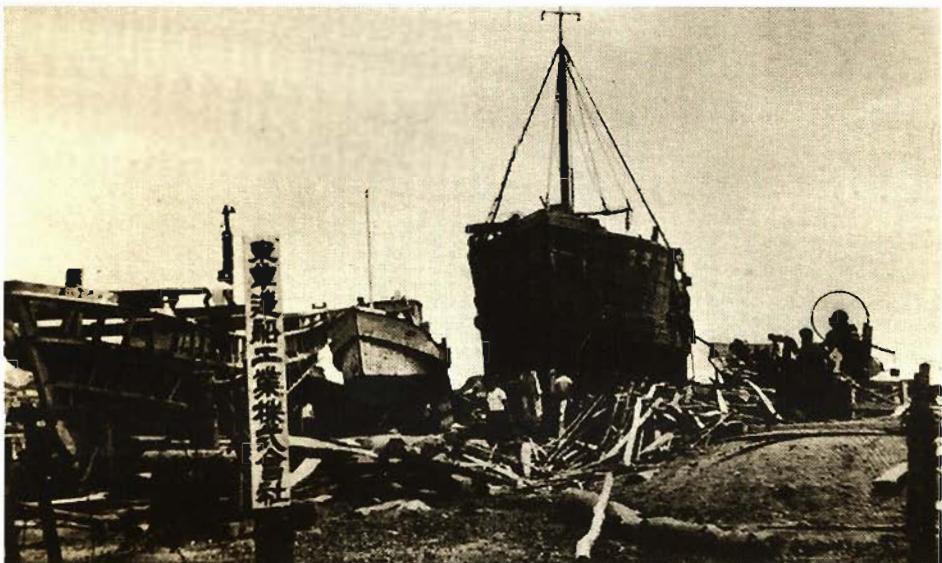
파주노진에서 복지사업의 온화이로
운영하던 돈사(1979년)



동해전기 속초지점

1954년 설립되어 일봉주시 송전하고 자정에
정전하는 송전제한방식으로 속초읍내의 밤기
리를 밝혔다.

속초조선공장주식회사(1950년대)



속초조선소(1950년대)



한국화학사료공장

(1971년 8월 10일 오전에 내차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기 위해
가동한 화학사료 공장이었으나,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주
민의 피해 청구며, 1979년 11월 20일 폐쇄되었다.)





동보극장 1959년 7월 3일 현대극장으로 설립되어
동보극장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쇄되었다.



중앙극장 1962년 9월 10일 중앙동 425-1번지에 설립되었으나 폐쇄됨



대원극장 1966년 5월 9일 금호동 482-18번지에 설립



천안온천장 1968년 4월 30일 온천개발사업당시 천안온천장



대한항공 1968년 5월 1일 대한항공 속초지사 설치

III. 어촌생활

동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속초는 선사시대부터 바닷가 인근에 집을 짓고 어로활동을 해왔음이 조양동 선사유적에서 어망추와 낚시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확인 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속초의 특산품으로 수산물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속초항의 축조로 인해 어업활동이 원활해지고 많은 어선의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어민들의 이주정착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어촌마을이 생성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실향민이 청호동에 정착하면서, 경작토지가 없었던 이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속초의 어업은 더욱더 활기를 찾고 대표적인 어민마을로 발전하게 되었다.

속초의 주요 어족자원은 명태와 오징어로 대표할 수 있으며, 속초항을 중심으로 해안가에는 명태와 오징어의 건조장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직접 어로에 참여하는 남자 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에 종사하는 아낙네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활발했던 어업은 1960~70년대 속초의 산업을 주도하였으며, 속초의 시세 확장과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어선 출어 전경(1950년)

만선의 꿀풀을 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항하는 어선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미역을 채취하는 속초 근해의 대규모 선단(1950년대)



명태잡이(낚시태)를 하고 있는 어선과 어부(1950년대)



멸치잡이 하는 모습

1960년대, 속초뱃소리 중에 다리어소리(그물을 거둬들이면서 힘든 노동을 달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물을 걷고 있는 어선과 어부



어로를 마치고 입항하는 어선(1950년대)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수협 어판장 부두에 운집한 상인과 아낙네들(1950년대)



어로를 마치고 입항하는 어선을 맞이하는 어민(1950년대)



갯배나루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과 어민들(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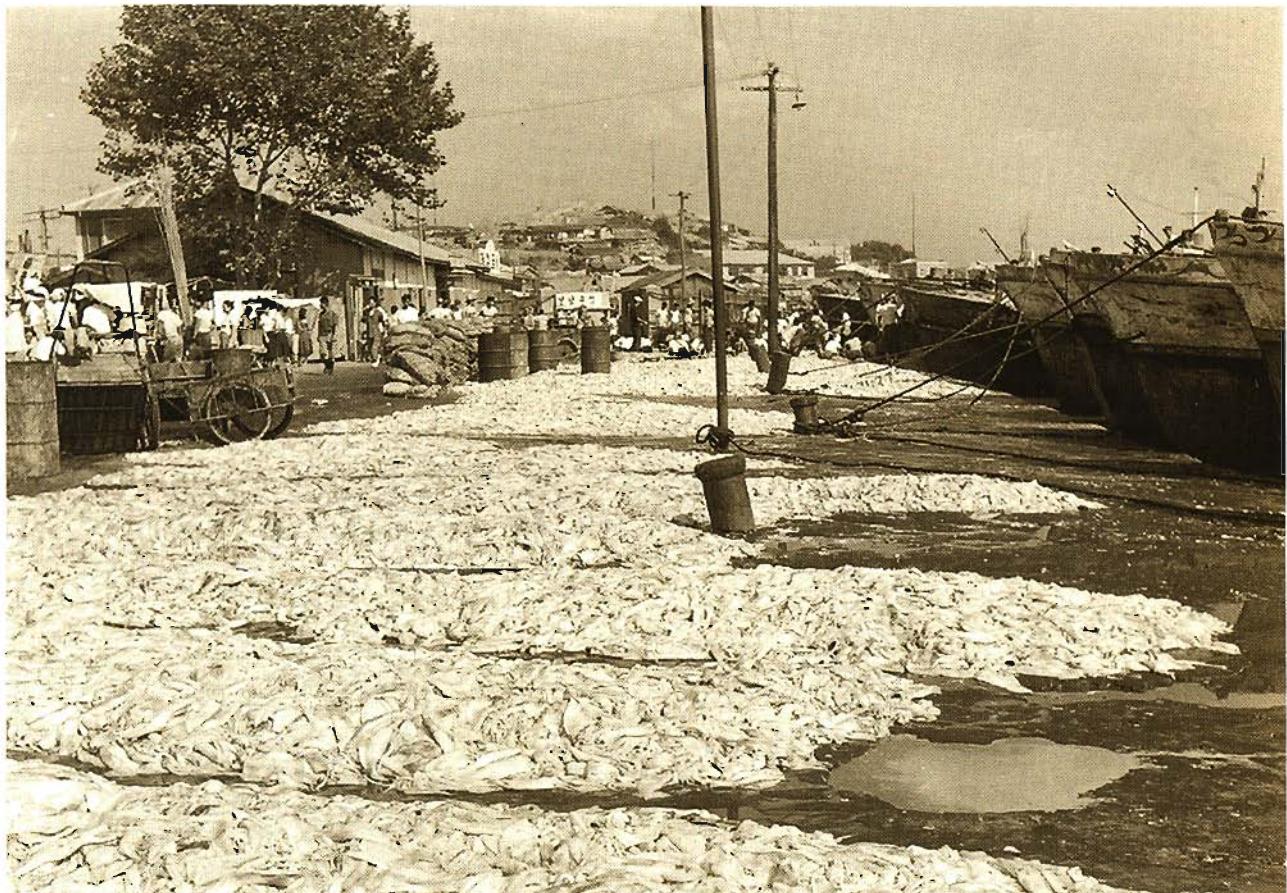


동명동 부두에 정박한 어선(1950년대)

멀리 속초시가지와 설악산이 보인다.



동명항 부두에 입항한 어선(1950년대)



수협 어판장 부둣가에 내려진 오징어(1950년대)



오징어를 할복하고 있는 아낙네(1950년대)

오징어 할복의 댓가로 한 마리당 다리 2개를 받던 시절에는 오징어다리 숫자의 시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활복한 오징어를 건조장에 걸고 있는 어촌풍경(1950년대)



오징어건조장(1950년대)

건조하고 있는 오징어를 보기좋게 손질하고 있다.



건오징어를 판매하기 위해 수협 어판장 모여든 어민들(1950년대초)



건오징어 시장 모습(1950년대)

곳곳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상인과 아낙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오징어 매매 시장 전경(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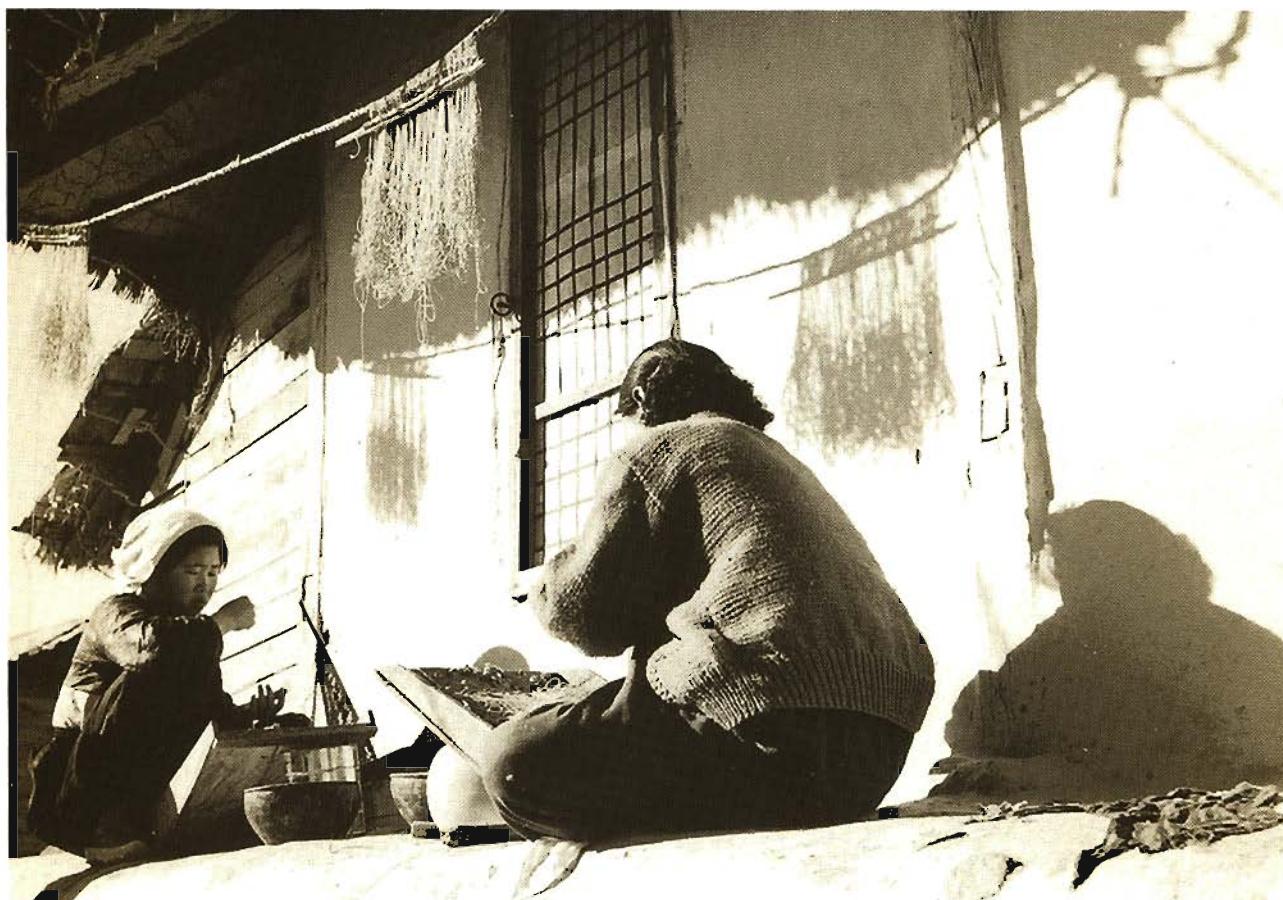


건오징어 시장 전경(1950년대)

가정에서 손수 달린 오징어를 팔기 위해 산더미처럼 미리에
이고온 아낙네들



명태 잡이 준비(1950년대)
명태 낚시에 미끼를 끼고 있는 아낙네



명태 낚시함지에 미끼를 끼고 있는 아낙네(1950년대)



명태를 할복하고 있는 어촌 아낙네(1950년대)



쌍천 하구에 있던 명태건조장(1976년)

이 건조장으로 인해 쌍천이 오염되어 은어가 하천을 따라 오르지 못하여 폐쇄되었다.



설악해 캐파-한국 전통 수제(1950년대)



다래동 해금강 해수욕장에서 캐파한국 전통 수제(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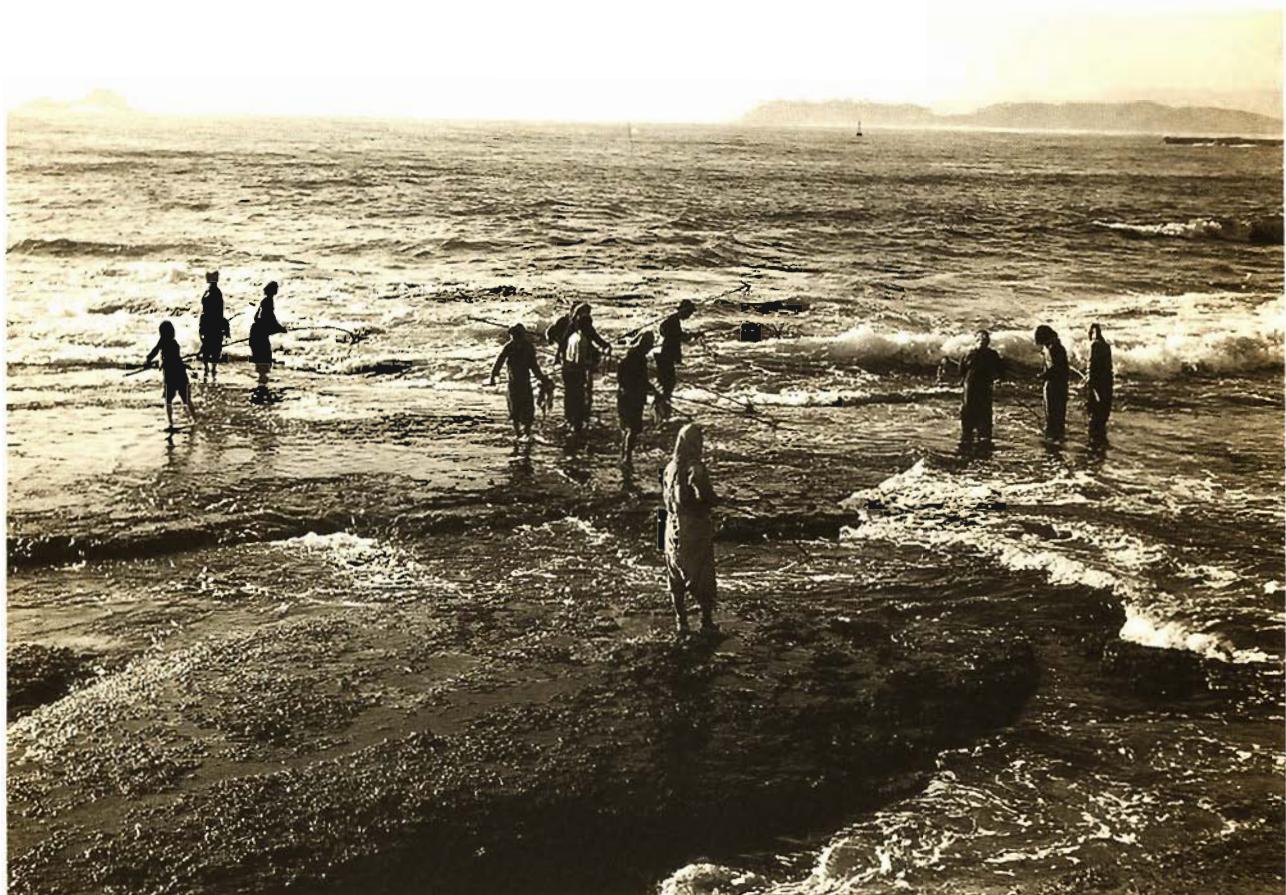


명태덕장 전경(1950년대)

덕장이 현대화 되면서 햅볕에 말리던
덕장은 점차 역사속으로 사라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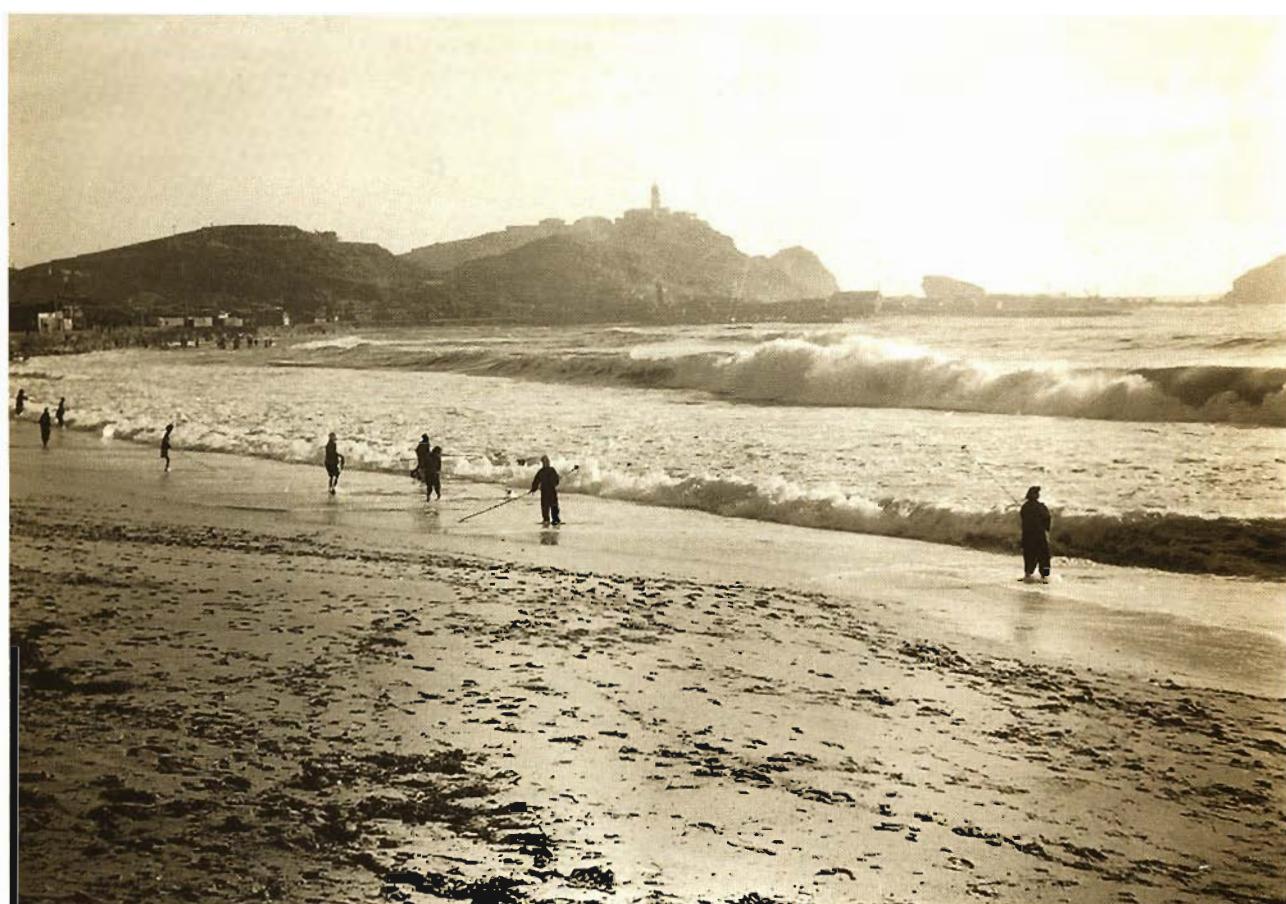


명태덕장 전경(1950년대)



파도에 밀려온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1950년대)

현재에도 가끔 볼 수 있다.



파도에 밀려온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1950년대)

현 동명동. 중앙동해변



미역을 건조하는 모습(1950년대) 청호동 백사장



미역을 건조하는 모습 (1950년대) 청호동 백사장



고기잡이 나간 날짜에 기다리는 어부(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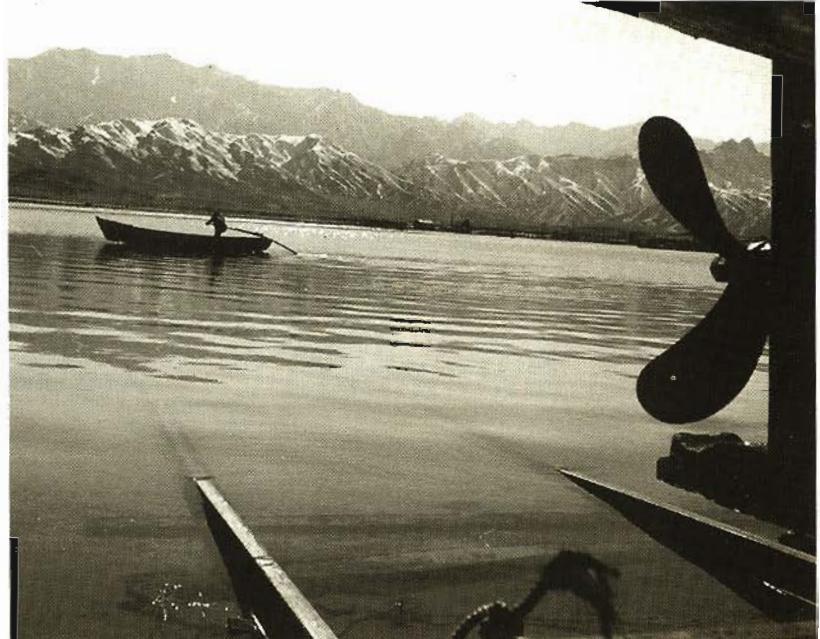
청초호 부둣가에 정박중인 어선들(1950년대)

고기잡이 하는 그해의 어선(1950년대)
나무배 만재로 진 봉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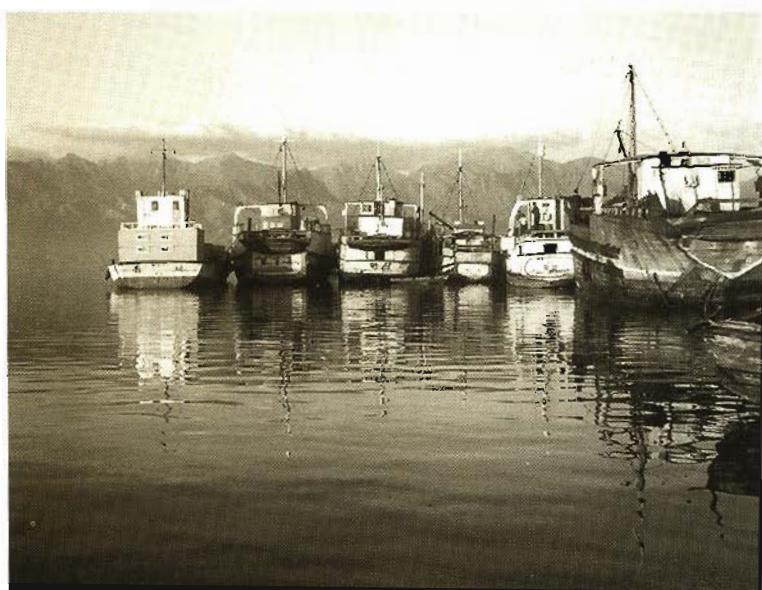


청초호의 거울 한때(1950년대)

정박한 동백선의 스크류 뒤로 작은 전마선이 노젓어
가고 멀리 청대산과 설악산이 보인다.



청초호 뿐만 아니라 정박한 동백선(1950년대)
물이 맑았던 시절 어선의 모습이
수면에 비치고 있다.





목선 바닥에 방수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 (1950년대)



목선을 건조하는 모습 (1950년대)



동명항 부둣가 모습 (1950년대) 속초등대 밑 부둣가에 쌓은 로프와 견조장



어구를 손질하는 모습 (1950년대)



미역틀을 손질하는 노인과 어선(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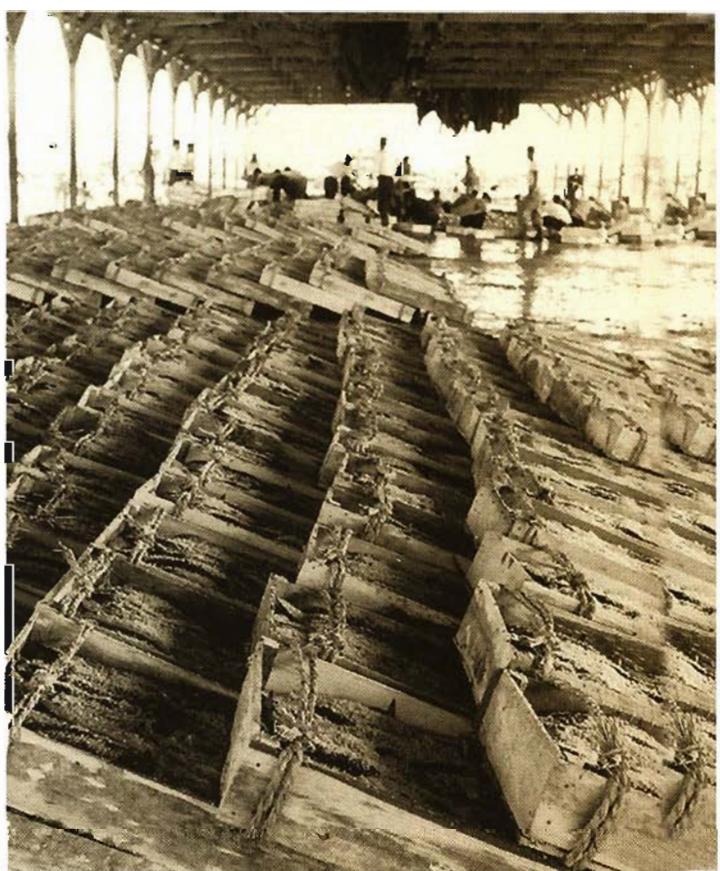
백사장에서 미역을 말리는 아낙네(1950년대)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1950년대)



그림 9. 절기 물고기를 베끼는 어부(1950년대)



어부들이 물고기(1960년대)



어구를 이고가는 아낙네(1950년대)



출어하는 어부와 가족(1950년대)

어부의 손에는 공골대라 부르는 오징어잡이 도구와 항구가 들려있다.



출어하는 어부와 부둣가 풍경(1950년대)



고개를 기다리는 어판장의 손주례꾼(1950년대)



어촌마을 풍경(1950년대)

IV. 농촌생활

속초는 동쪽 해안에 접해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기후조건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의 입지여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속초지역의 농촌분포는 쌍천 연변의 도문동 일대와 청초천 연변의 노학동 평야지대를 비롯하여 장천마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수산업과 상업의 발달에 비하여 그 성장 속도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크지 않지만 현재 속초의 도시형태를 유지하고 초기 속초 경제발전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공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속초의 농촌모습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사진을 통해 속초의 옛 농촌생활의 향수에 젖어보는 것도 고도로 산업화·도시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청초천의 빨래터(1950년대) 달마봉에서 발원하는 청초천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농업용수의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빨래터 등 훌륭한 생활용수의 공급처이었다.



청초천의 빨래터(1950년대)

단지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삶기 위한 화덕과 장작도 있었고, 아낙네들의 정보 공유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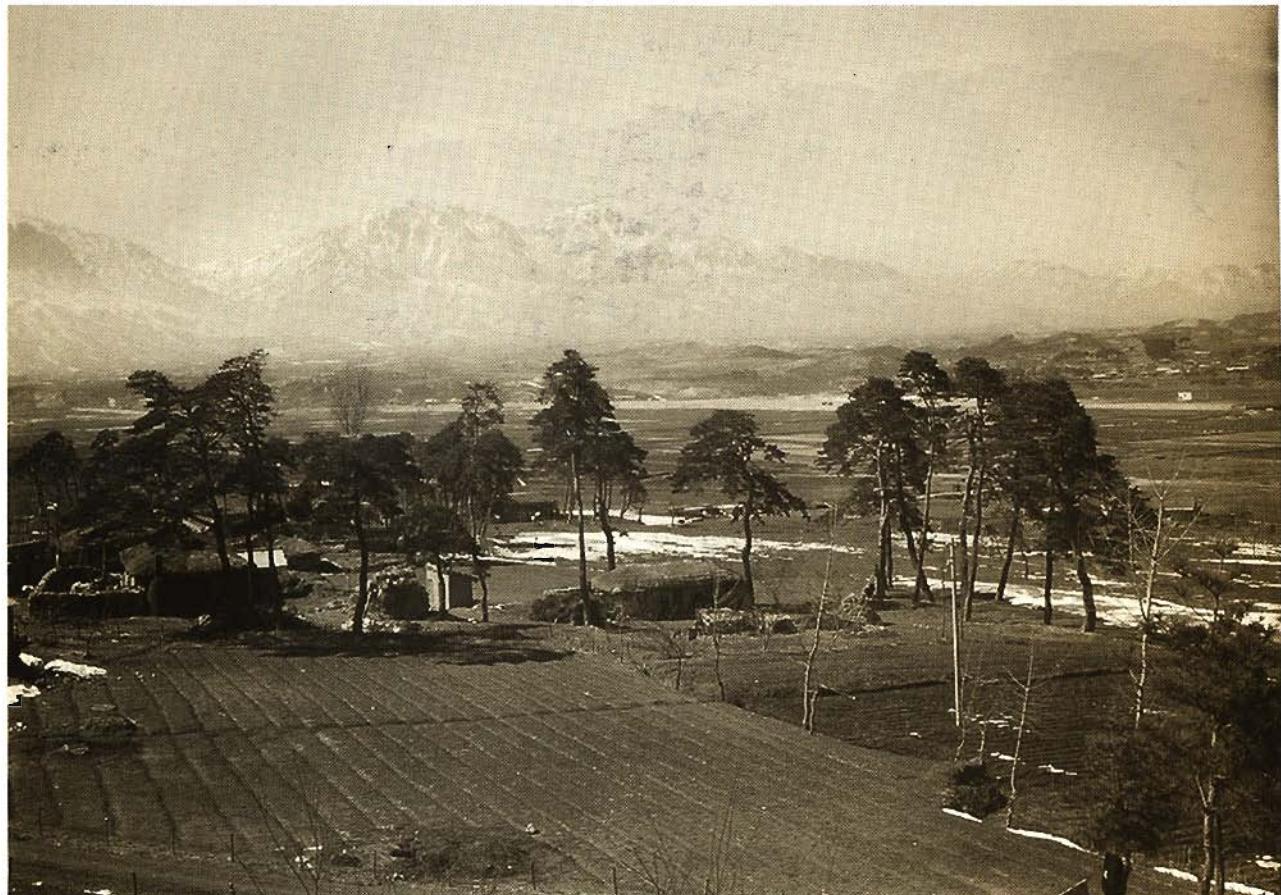
마을 공동 우물(1950년대)

당시 읍사무소 앞에 있던 우물이다. 상수도 시설이 원활치 않았던 시절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우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물동이를 머리에 인 아낙네들(1950년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동으로 생활 용수를 이고 나를 수 밖에 없었으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당시 속초방송국이다.



척산마을의 농가 풍경(1950년대)



도리원에 있었던 물레방아(1960년대) 1970년에 착수된 청초천 직강공사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나무단을 머리에 인 아낙네들(1950년대)

월동준비를 위해 떨감을 준비하는 것은 겨울
을 앞에 둔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퇴비증산 사업 추진(1970년대)



챙기질 하는 풍경(1950년대)



도리원 마을 모내기 풍경(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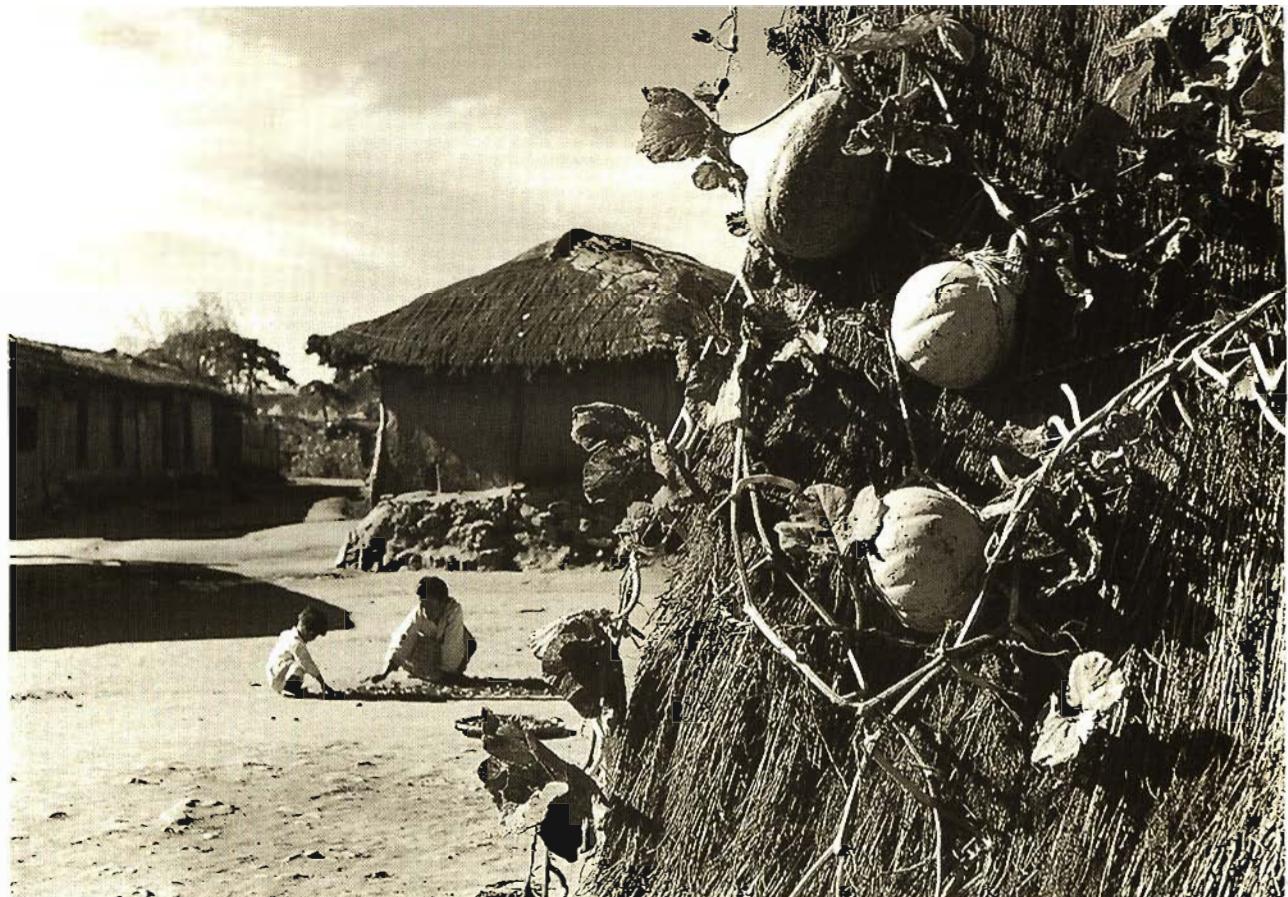


모내기 풍경(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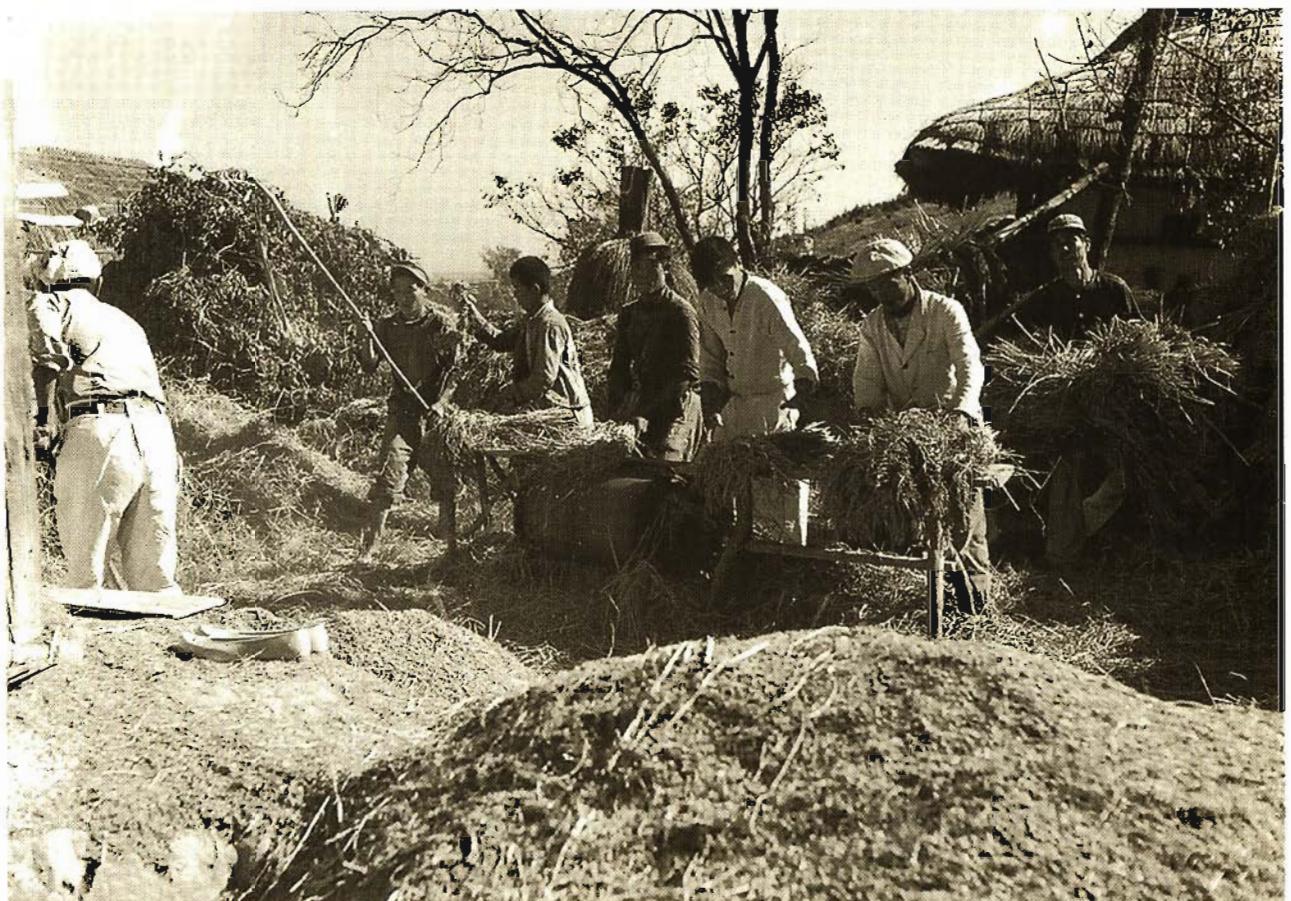


새참을 먹는 모습(1960년대)

바쁘게 일손을 놀리다 논밭 한가운데에서 허전한 배를 채우는 새참의 맛은 최고이다.



초가을 농가(1950년대)



탈곡하는 모습(1950년대)



벗짚 가리기(1950년대)



가마니짜기 경진대회(1950년대)



북청사자놀음(1950년대)

말 실향민들이 대보름과 농한기에 즐겼던 북청사자놀음은 속초에서 처음으로 재현되었으며,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농악대 공연(1950년대 말)

농한기 농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농악놀이로 속초에는 도리원마을에서 농악이 크게 유행하였고, 이 농악은 현재까지 전승되어 공연되고 있다.

V. 설악산의 옛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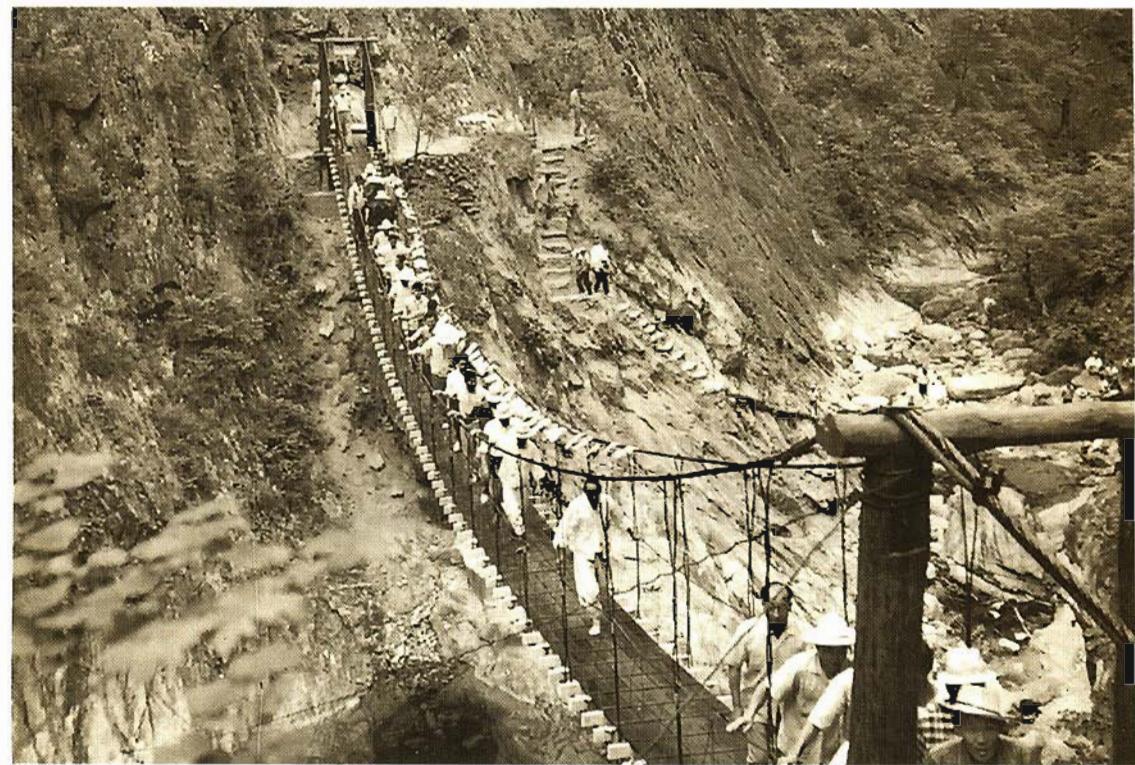
국내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은 기암절벽과 폭포 그리고 계곡이 철에 따라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일 뿐만 아니라 속초의 역사·문화적 뿌리이며 지역주민의 안식처이다.

해방전만 해도 금강산에 가려지고 교통이 불편한 탓으로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한국전쟁이후 서서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1965년 천연기념물(설악산천연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본부에서는 1982년 세계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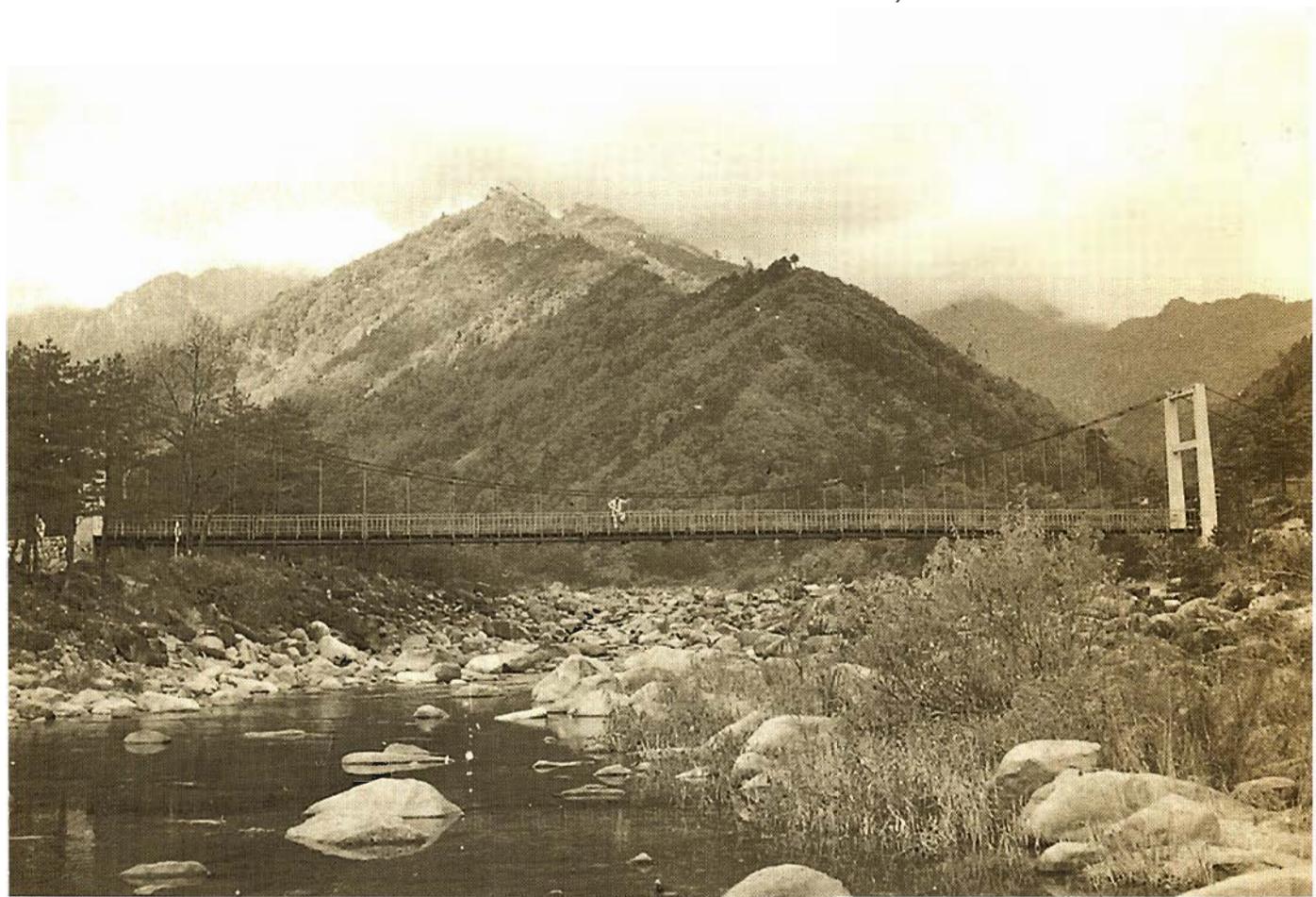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미를 자랑하는 설악산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되자. 1976년부터 설악산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지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소공원을 조성하고 대규모 숙박단지와 상가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의 주산업이 관광산업으로 틀바꿈하게 되었고, 속초시는 어촌도시로서의 기능보다는 국제관광도시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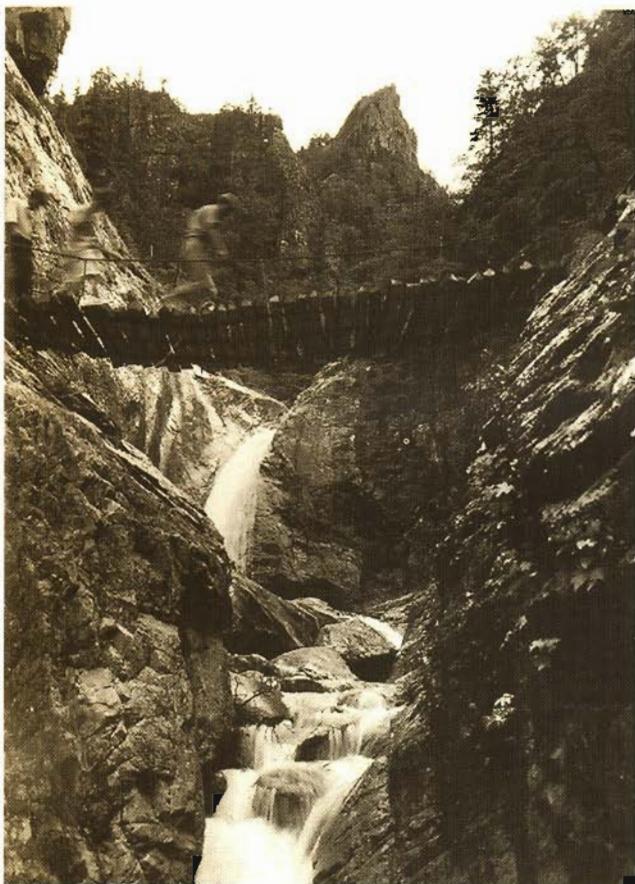




육담폭포 구름다리 (1965년 6월 26일)



비룡교 완공(1967년 8월 30일)



천단폭포 구름다리(1950년대)

비선교 준공(1963년 9월 16일)





설악산 구단지에 있던 설악여관(1950년대)



설악동 관광단지 조성 전(1972년)

설악산 구단지에 있던 신륵사 지정여관(비선여관, 1950년대)



설악산 구단지에 있던 신륵사상회(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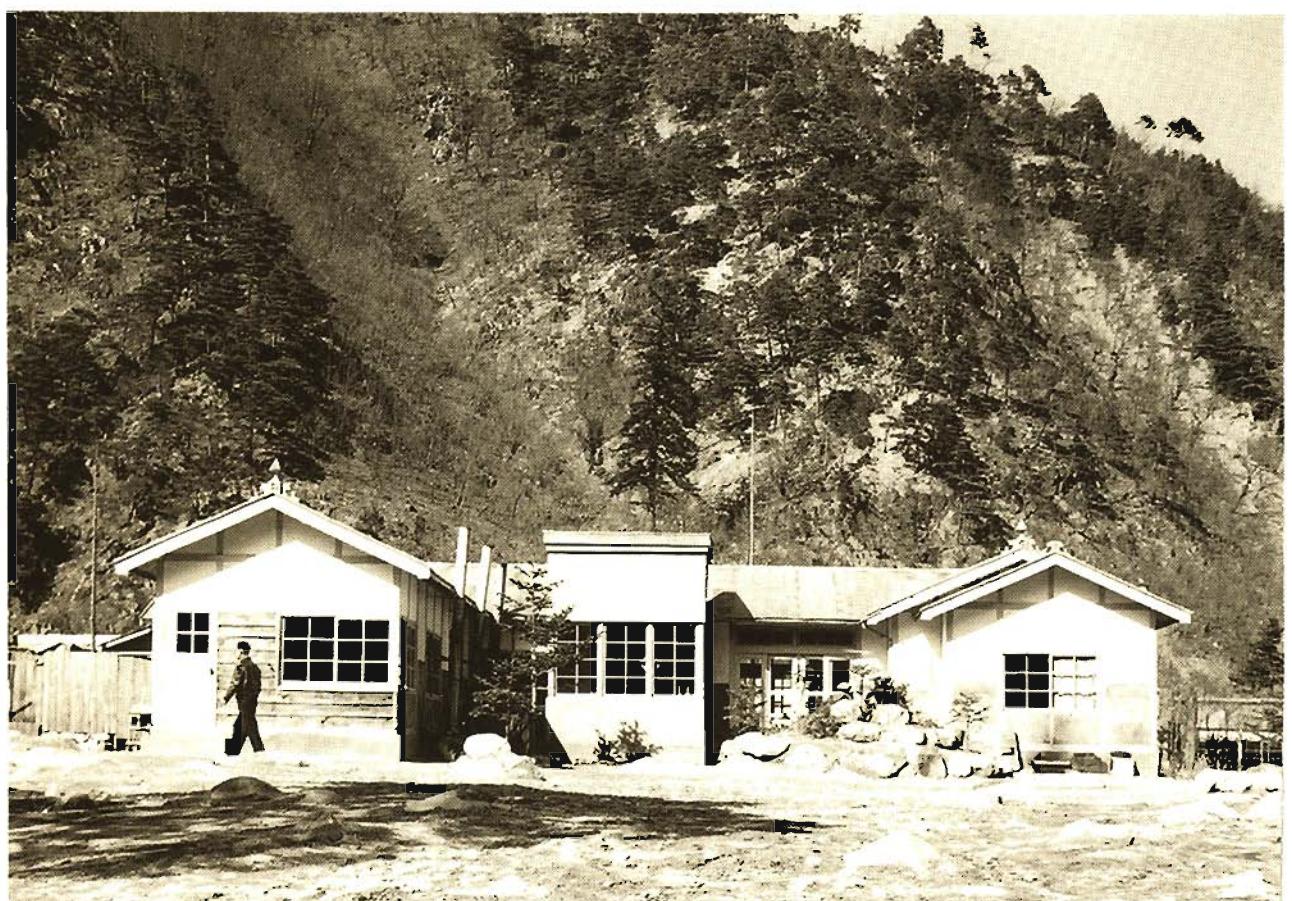


설악산 구단지에 있던 여관(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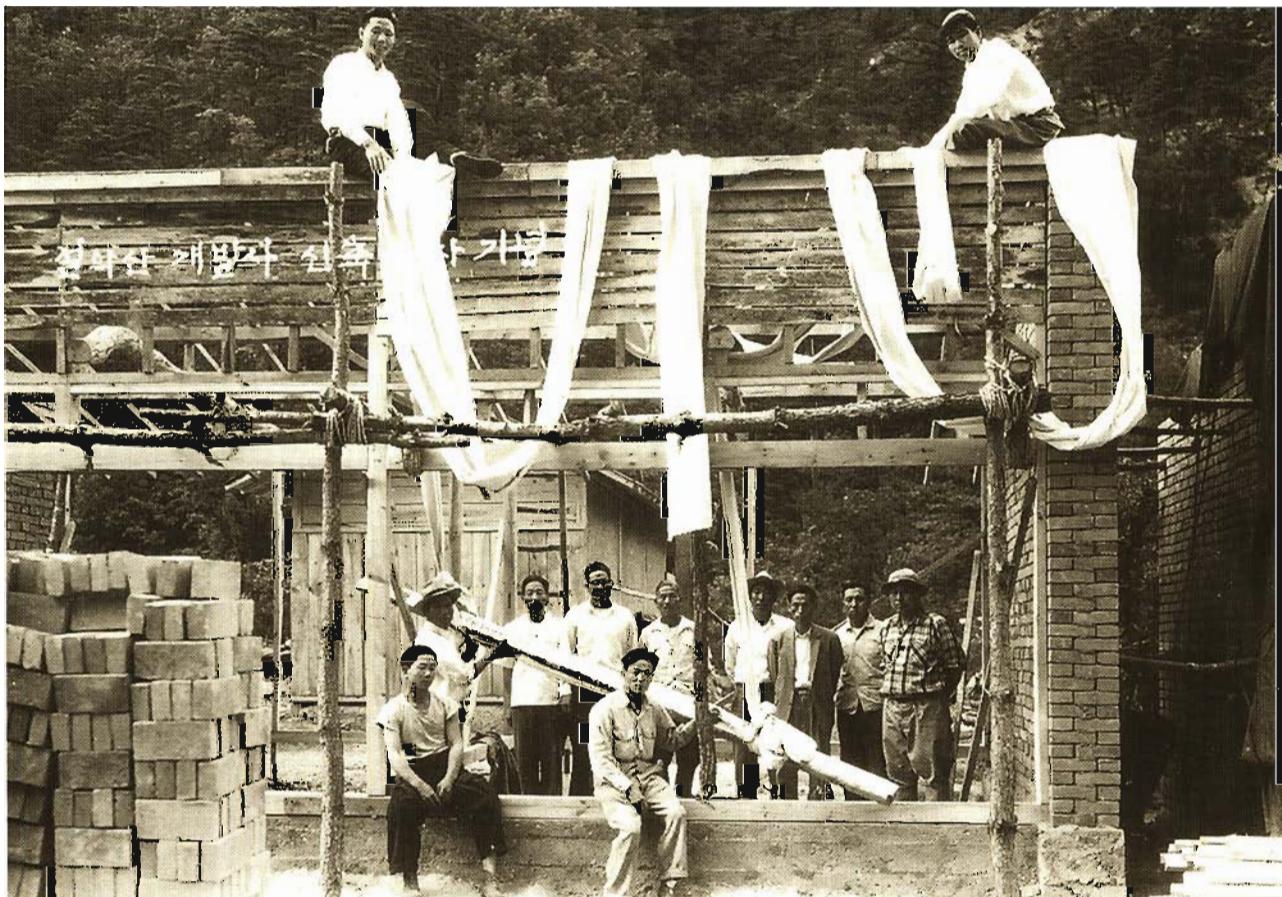
설악산 구단지 풍경 (1960년대초 현 설악산 소공원)



설악산 소공원에 있던 설악여관(1960년대)



설악산 여관단지 철거전 모습(1973년)



현 설악관광호텔 상량식 모습(1957년도)

설악산 관광개발의 첫 건물로 지어진 당시 교통부 직속 설악 관광호텔 목조건물 상량식 장면이며, 기념촬영한 사람들이 설악산 관광개발의 첫 주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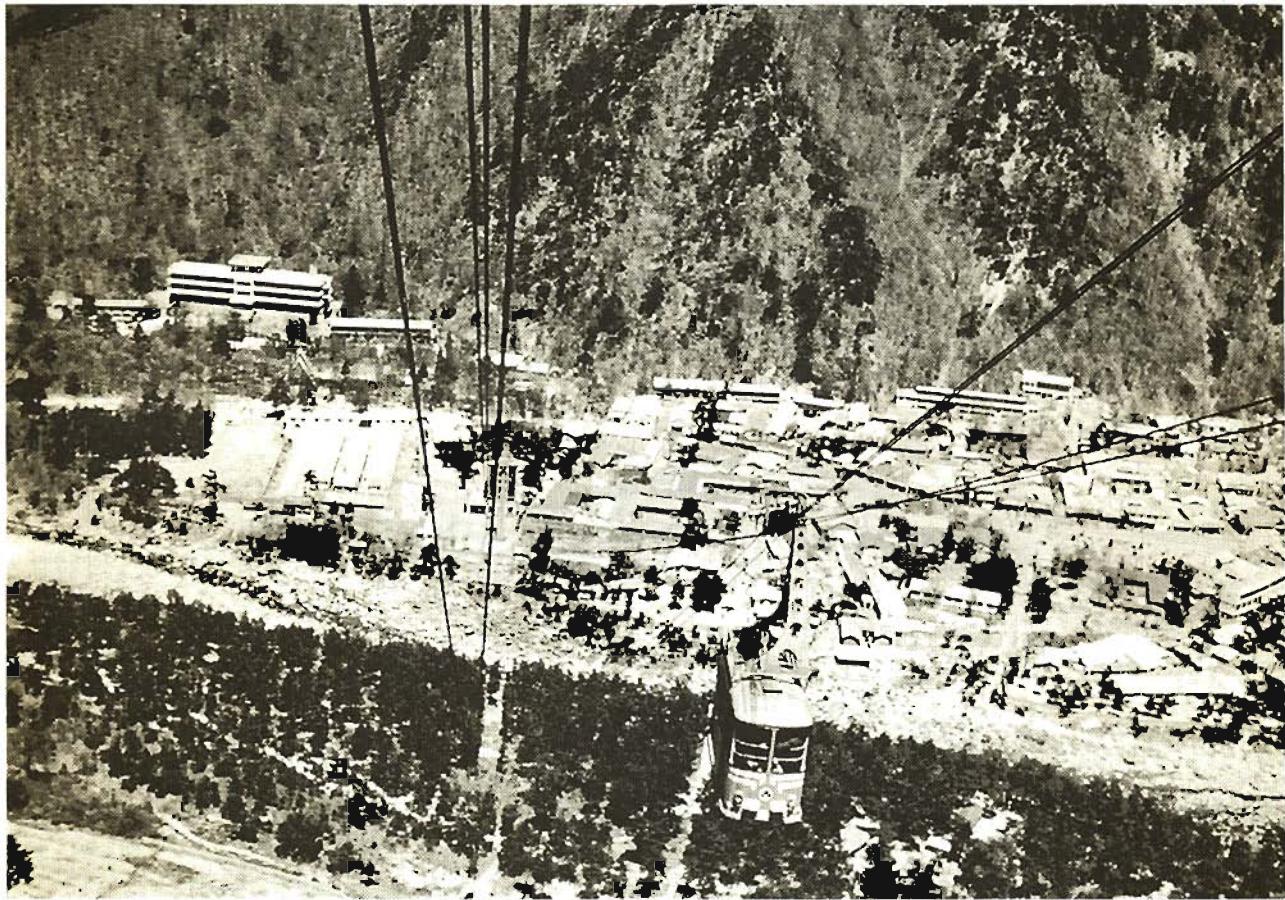


설악산 소공원(1957년 8월)

설악산 소공원이 조성되기 전
천경으로
현재 소공원 매표소 부근이다.



설악산 구단지 풍경(1960년대초) 현재 설악산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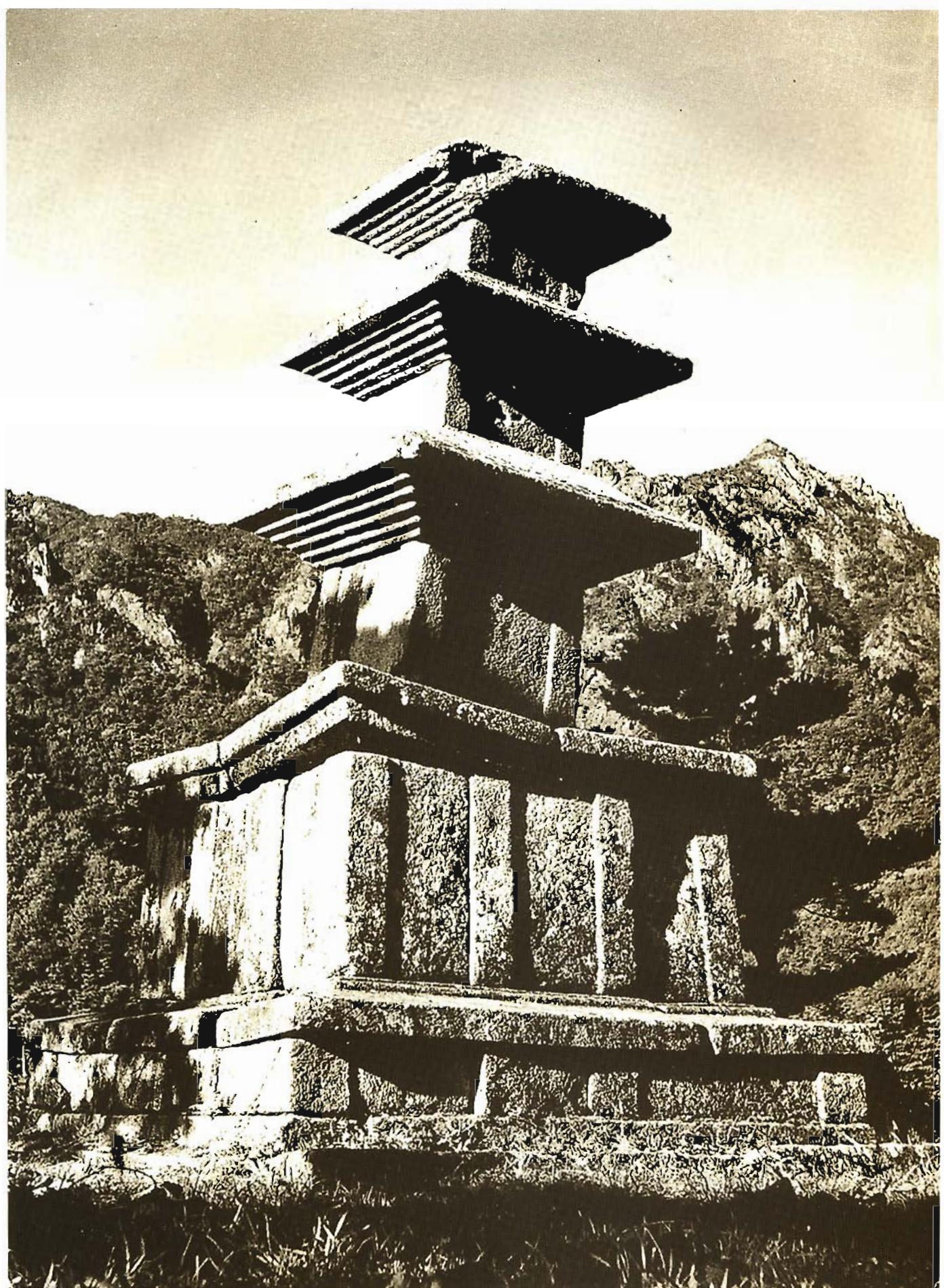


설악산 케이블카 개통(1971년 7월 1일)

철거전 설악산 소공원내 전경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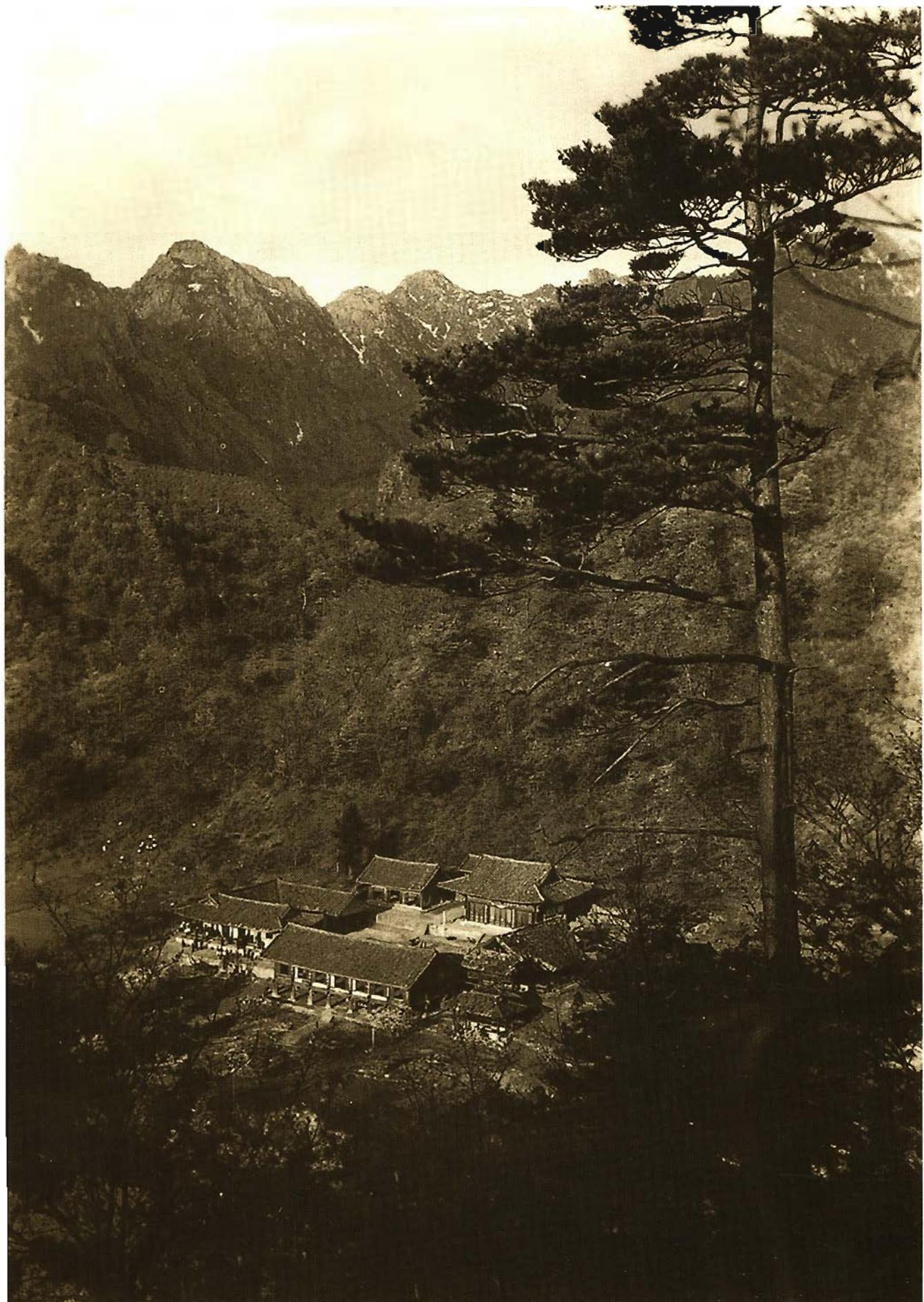


권금성에서 본 구단지 케이블카 개통전 현재의 소공원 전경



향성사지 3층석탑(1956년)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향성사터에 남아 있는 석탑으로 보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흥사 전경(195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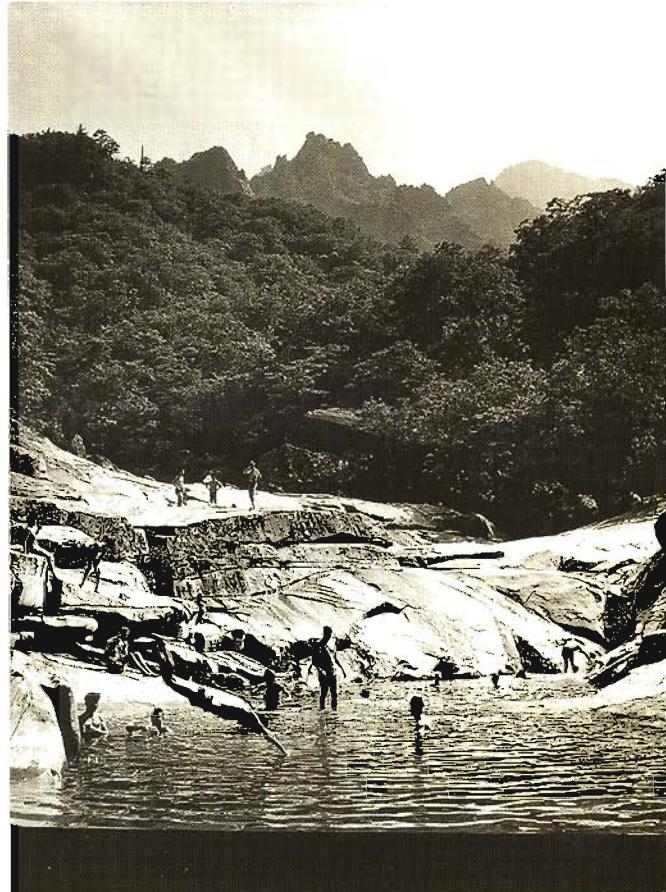
조선 인조때 중창한 설악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이다.



권금성(1963년)



계조암에서 본 설악산 전경과 관광객(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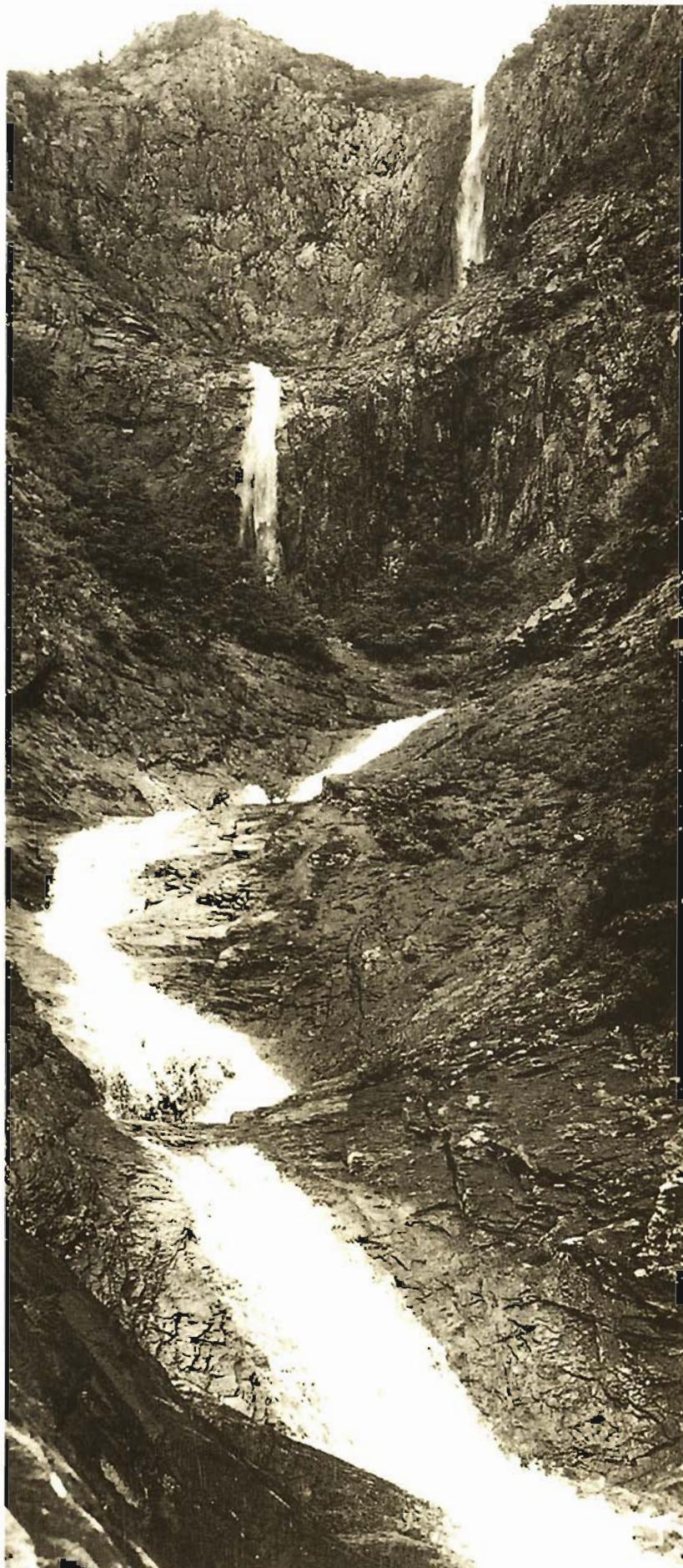
비선도(1950년대)
제전도는 제작물에서 수영하고
여가시간
마련에 편리한 바위 수 있는 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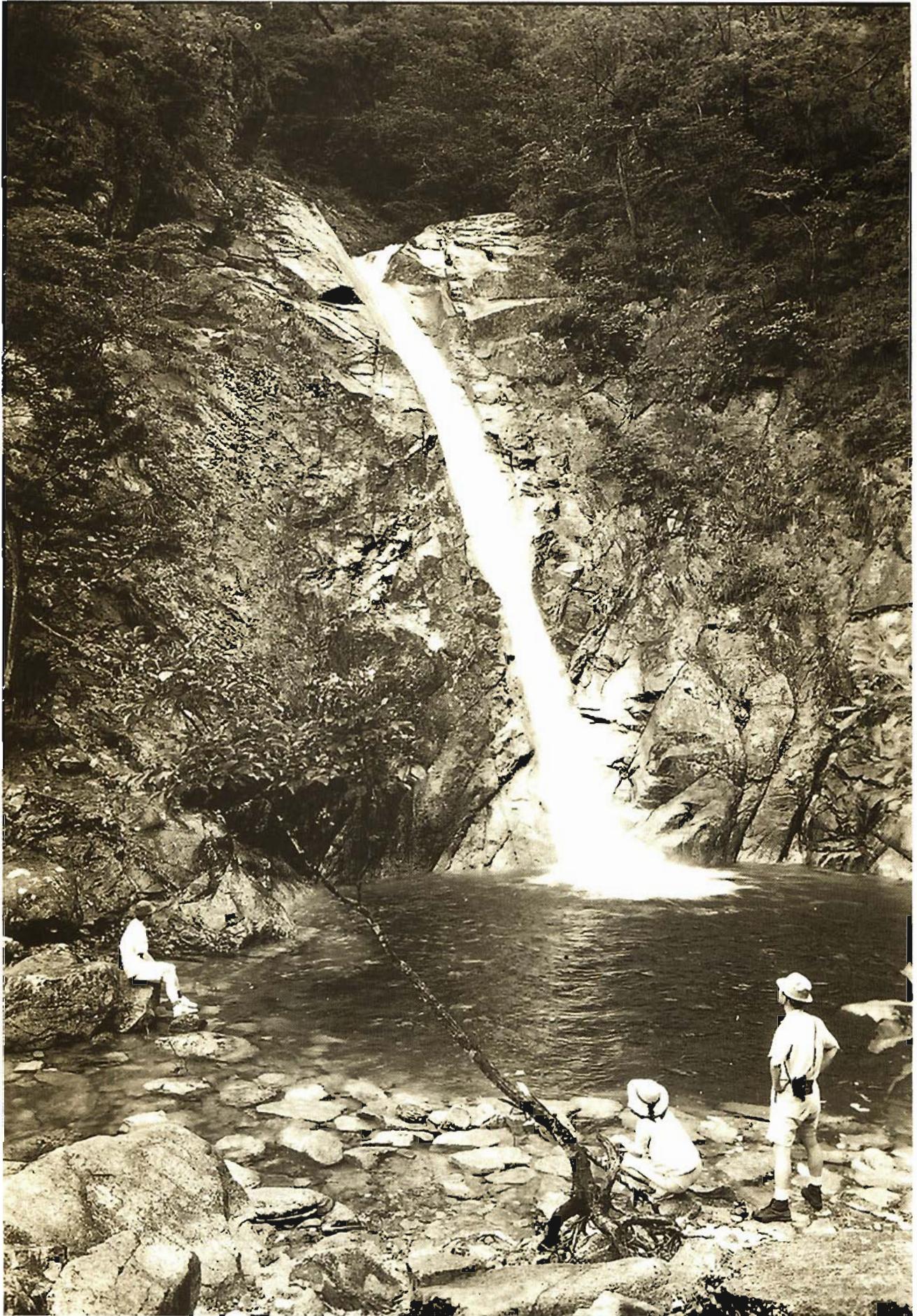


울산바위(1962년)

도해정 폭포(一천리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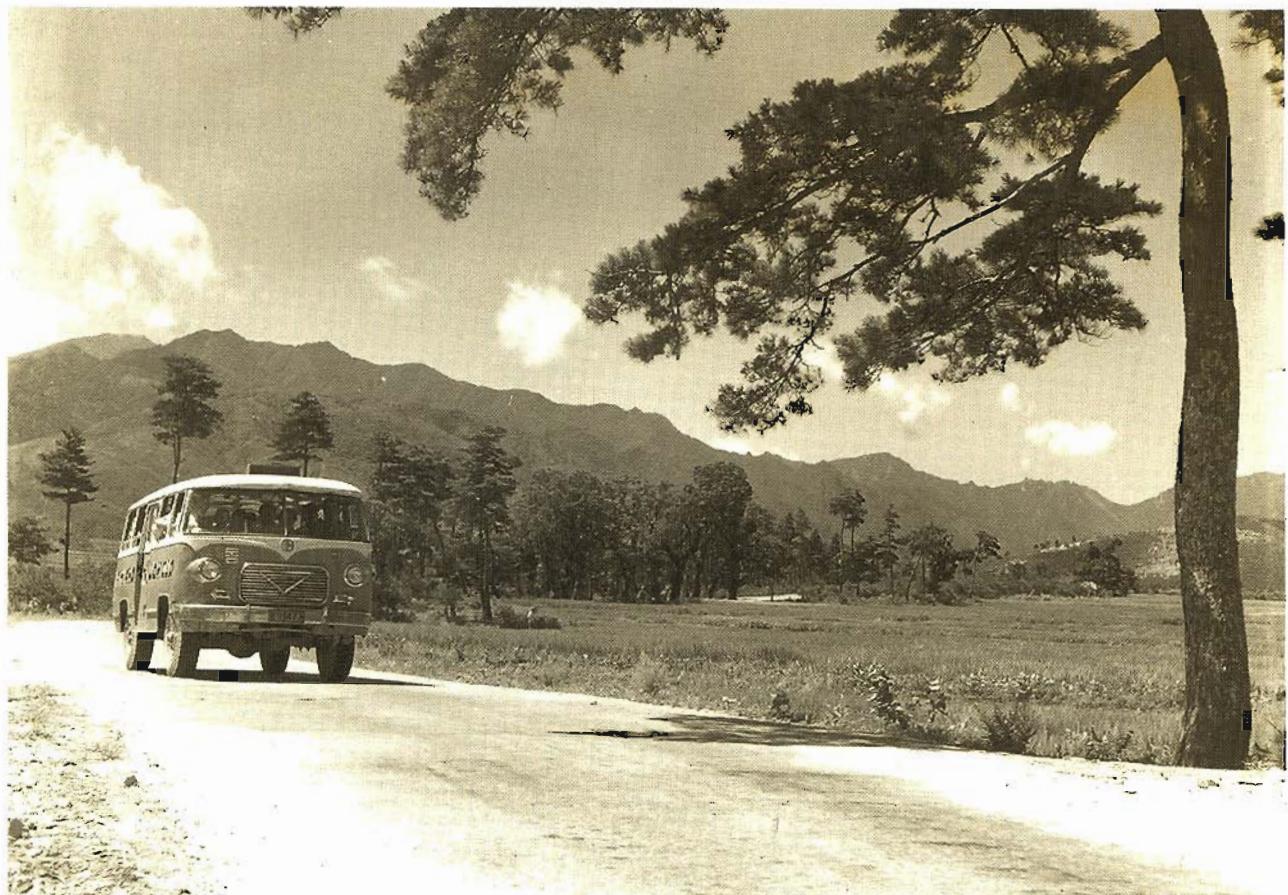
외설악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폭포이며 성폭처럼 까아진 구이로 飛流直下하고 그야말로 奇景이 연출 한다. 겨울철 빙장되었던 환관장이기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명 신교폭포라 하다.





비룡폭포(1950년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좁고 험한 골짜기에서 한가닥의 물줄기가 흘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이 물줄기를 타고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설악산 운행버스 (1960년대 도문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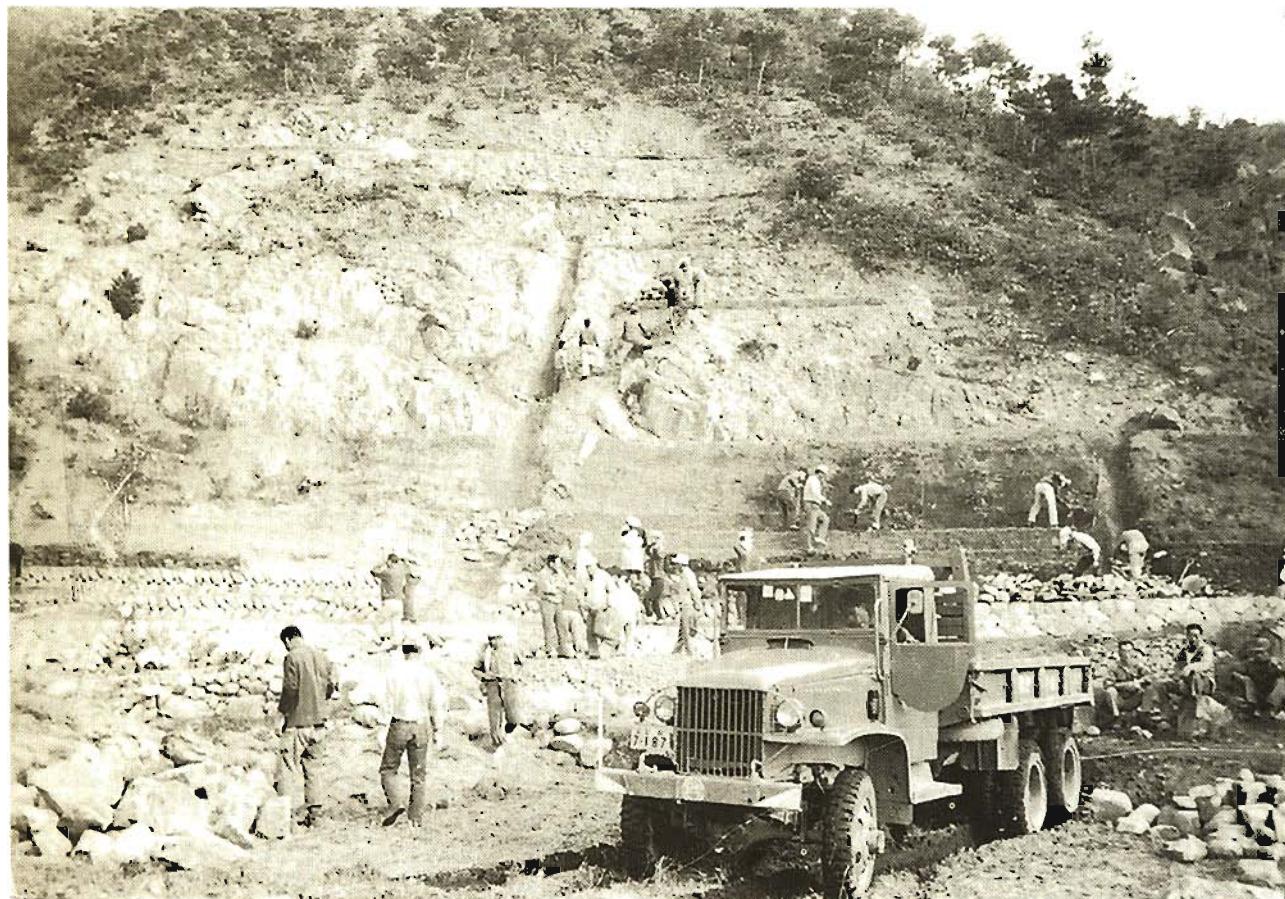


설악산 진입로(1963년 9월 7일)

현재 설악동 C지구 설악교앞 부근이다.



설악산 관광로 정비사업 전경(1972년)



설악산 진입로(1973년 10월 30일)

10.5km 석축 및 조경공사 전경

VII. 사건사고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시절에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많았다. 장비도 현대화되지 못했고 항구시설도 낙후된 상태에서 대자연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으며 인간은 무릎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속에서 바다와 함께 생을 마감했으며, 어민들의 정성과 꿈이 담겨있던 어선들 또한 수장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폭우와 폭설 그리고 강풍은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했다.

겨울 등반훈련 장소로 인기를 끈 설악산에서는 해외 원정의 짚은 꿈을 눈속에 묻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또한 남북이 극도의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던 시절에 바다를 경작하던 어선들이 남북되는 사건이 일어나 가족들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하였다.





퐁랑에 훨싸여 침몰하는 어선(1962년 1월 2일 시청앞)



침몰하는 어선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1962년 1월 2일 시청앞)



강풍으로 주저앉은 속초국민학교(1980년 4월 19일)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간 대포새마을학교(1980년 4월 19일)



청호동 해변의 해일피해(1968년 10월 24일)



해일 피해주민을 위해 건립된 조양동 재해주택(1968년 12월 18일 입주)



해일로 침몰된 어선 인양작업(1968년)



해일피해 어선 복구현장(1968년 11월 10일) 어선복구 건조단을 청초호변에 설치하여
어선 208척을 건조하였다.



동해안 해일(1972년 9월 18일)
시청앞 해변



동해안 해안에 강타하는
태풍 파도(1976년 9월 14일)
태풍 파도로 인해 동해안 일대에서는 선
박 192 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속초항에 강타한 파도(1976년 9월 14일)
태풍 파도의 영향으로 속초항 주변 가옥
채가 4부서지고 30채가 침수, 400여 주
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 지진으로 발생된 해일 피해(1983년)



태풍 엘리스호로 발생된 피해(1982년)



태풍 엘리스호 북상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시가지가 침수(1982년 8월 27일)





1954년 건립된 수복기념탑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이 부러짐



1983년 11월 17일 재건된 수복기념탑



일본지진으로 발생된 해일로 운행에 고초를 겪는 갯배(1983년 5월 26일)



일본자진으로 인한 해일피해 현장(1983년 5월 26일)



폭우로 인한 대포동 산사태(1984년)



대포동 산사태 집단이주 주택 건설 현장(1984년)



대포동 산사태 집단이주 주택 건설 철야작업 현장(1984년)



대포동 외옹지 집단이주 주택 완공(1984년 12월 28일)

조난 발굴현 한국 산악회원(1966년 2월 17일)
설악산 동제홍련중 죽음의 계곡에서 눈사태로 조난당한
한국 산악회원



설악산 등반중 조난당한 산악인 영구(1968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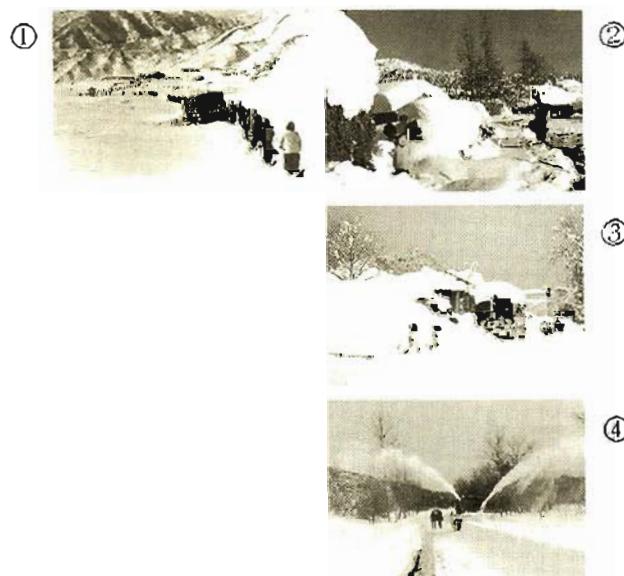
카톨릭의대 등반대원 7명의 영구가
강당에 안치된 모습



에버레스트 등반대원 셸링턴 폴저 닉파이어선(주) 헌금작업
눈사태로 매몰(1971년 2월 20일)



매몰된 등반대원 발굴작업(1976년)



① 노학동 폭설(1950년대)
② 1978년 폭설
③ 1990년 2월 1일 폭설
④ 제설작업 모습(1990년)





설악산 산불(1983년 6월 8일)

봉정암 부근 산불 발생 많은 원시림이 피해를 입었고
28시간만에 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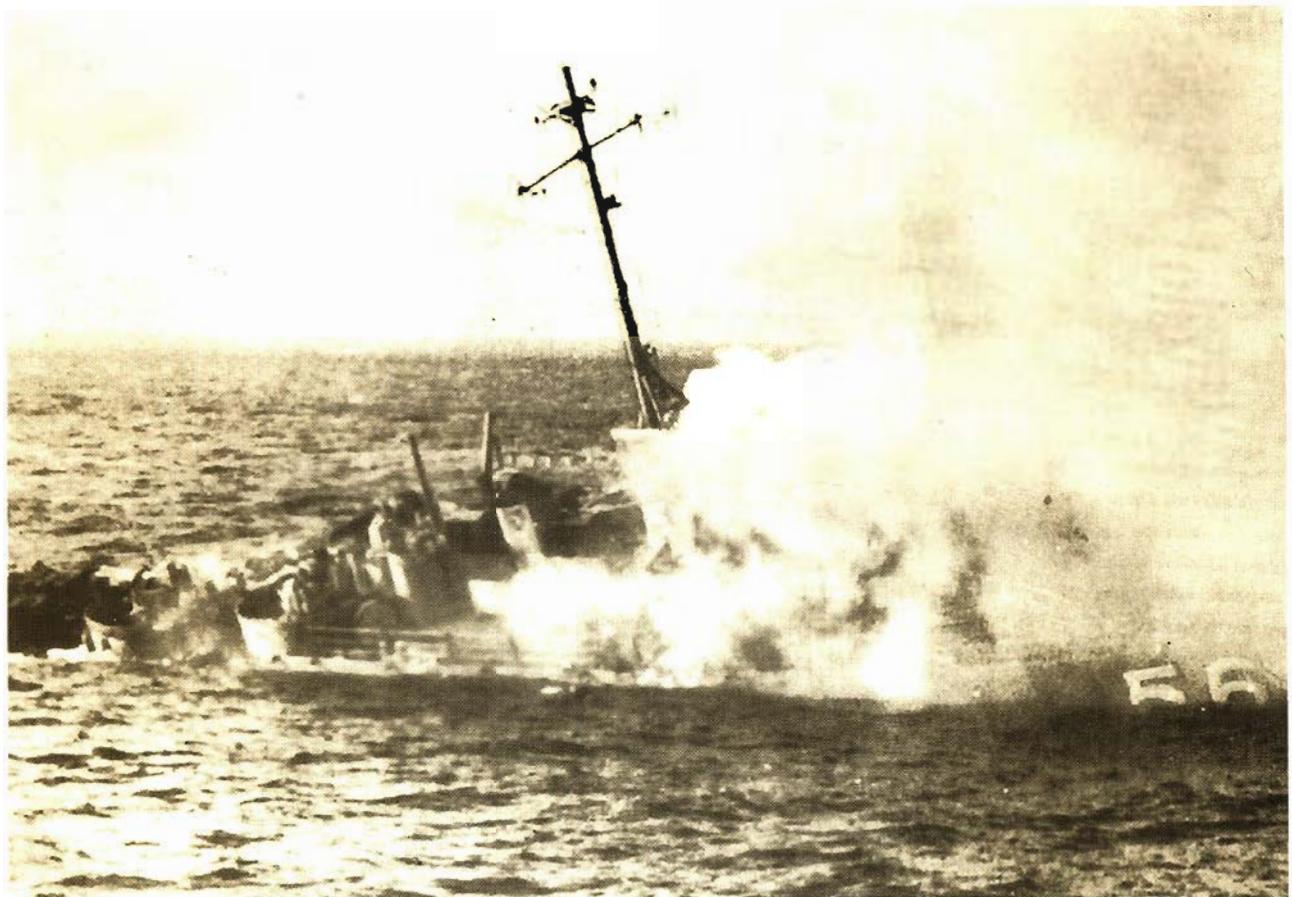
설악산 산불(1983년 6월 8일)



중앙시장 화재(1991년 1월 11일)



중앙시장 화재 진압후(1991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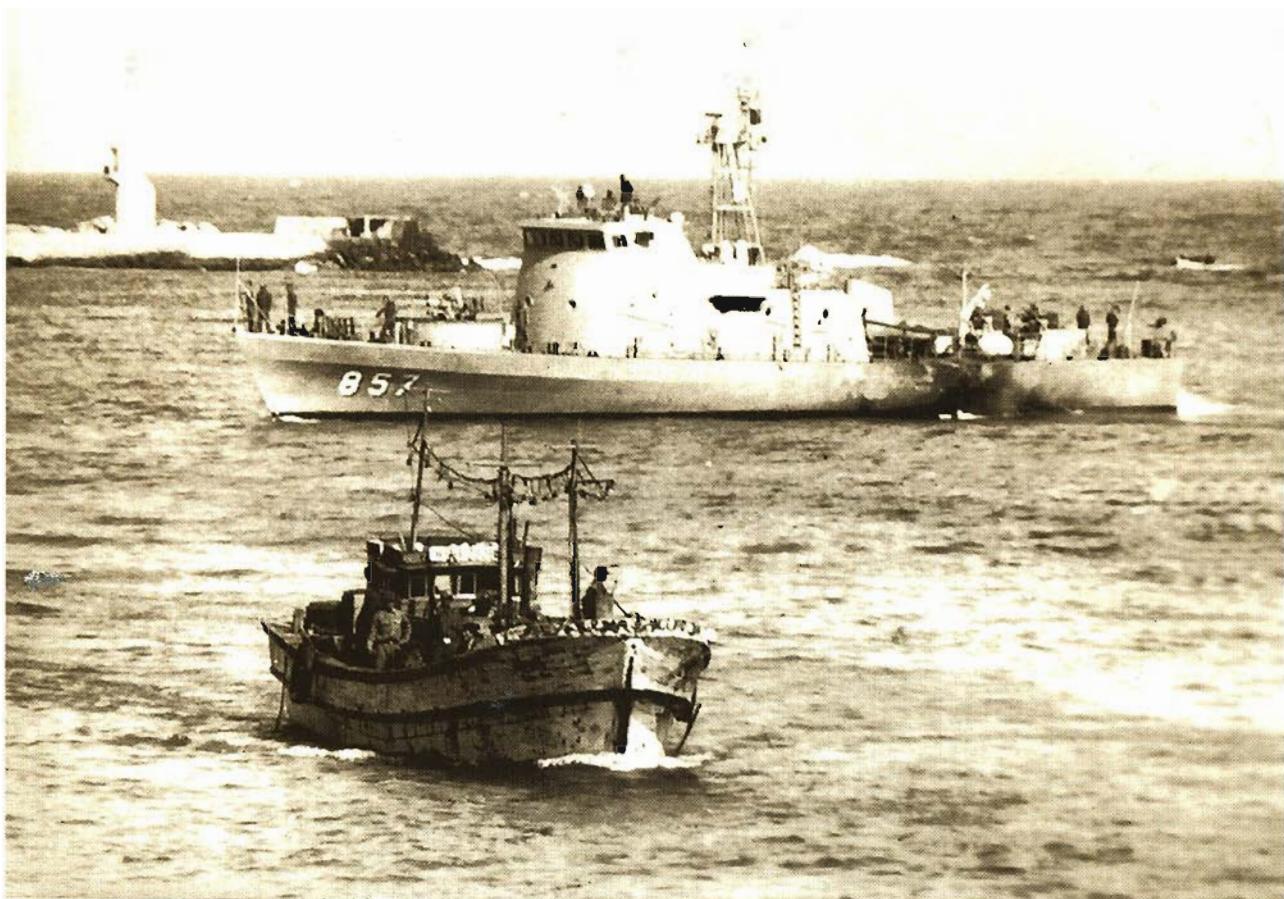


피격되어 침몰중인 해군함정 56호(1967년 1월 19일)



피격 침몰된 해경경비정 863호 승무원(1974년 6월 23일)

동해어로보호 작업중인던 해경경비정이
피격 침몰되어 28명이 희생되었다.



납북되었다가 귀항하는 신진호와 후미에서 경호하는 해경 857함(1976년 10월 15일)



납북 255일만에 귀환한 제2남진호(1981년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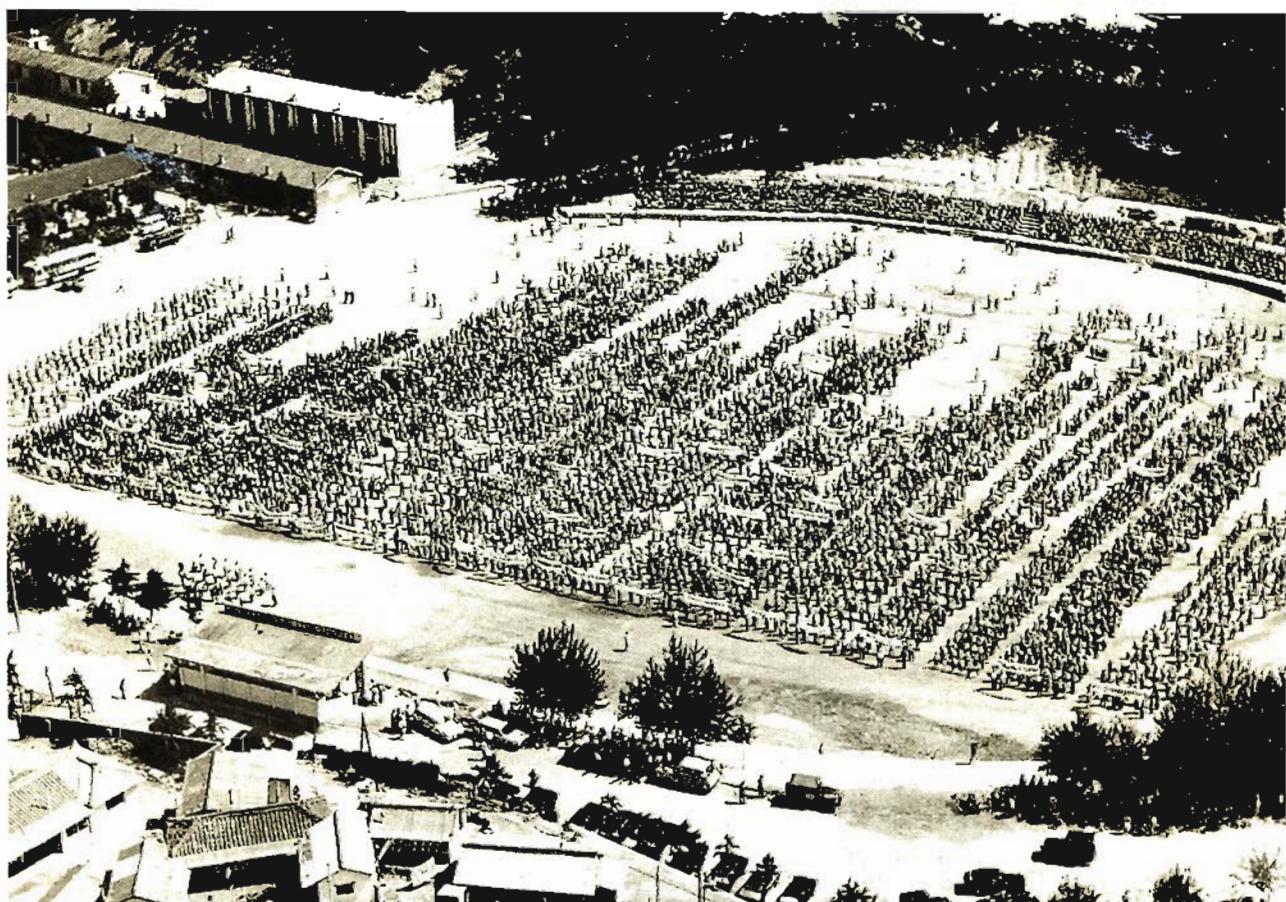
남북 도중 비상착륙한 KAL여객기(1971년 1월 23일)



속초공항(1971년)



소련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영기호(1981년 8월 7일)



공설운동장에서 제5마산호 남북에 따른 시민궐기대회(1982년)



밀양군에 의해 총살에 임이 반달가슴곰(1983년 5월 22일)
총상을 입은 반달가슴곰이 마을로 북쪽에서 발견되어 구조에
나섰으나 22일 끝내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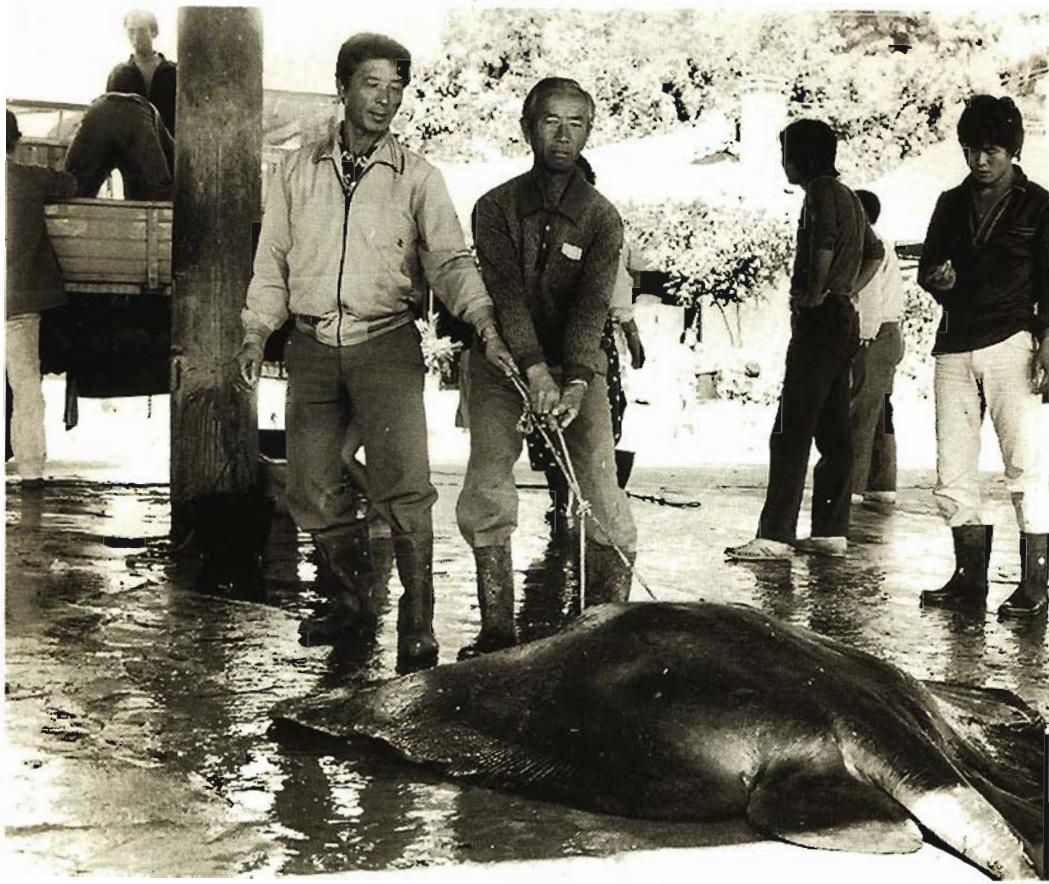


구조대에 의해 운반중인 반달가슴곰

구조대에 의해
유모차에
반달가슴곰



박제 전시된 반달가슴곰(강원도 임업시험장내)



대형 가오리(1982년 9월 28일)

덕영수산 정치망에 걸린 보통 가오리의 8~9배에 달하는 대형가오리



대형 물치(1984년 5월 5일)

정치망에 걸린 고등어과에 속하는 대형물치



대형 물치(1989년 4월 13일)

삼성호의 정치망에 걸린 무게 2톤의 대형물치



대형 가오리(1990년 6월 19일)

영금정 앞바다에서 잡힌 대형가오리

VII. 행사일반

고단하고 바쁜 생업에서 잠시 탈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놀이시설이 전무했던 시절에는 그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였으며 즐거움이었다.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경축할 만한 일들이었으며,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헐벗은 산하를 푸르게 만드는 데에는 너나가 따로 없었다.

그리고 라디오, TV가 귀했던 그 때에는 영화와 노래자랑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모든 시민이 모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축제가 없었으므로. 산악인들과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설악제를 탄생시켜 시민의 한마당 축제로 정착되었다.





광복절 경축 읍면종합체육대회의 그네경기 모습(195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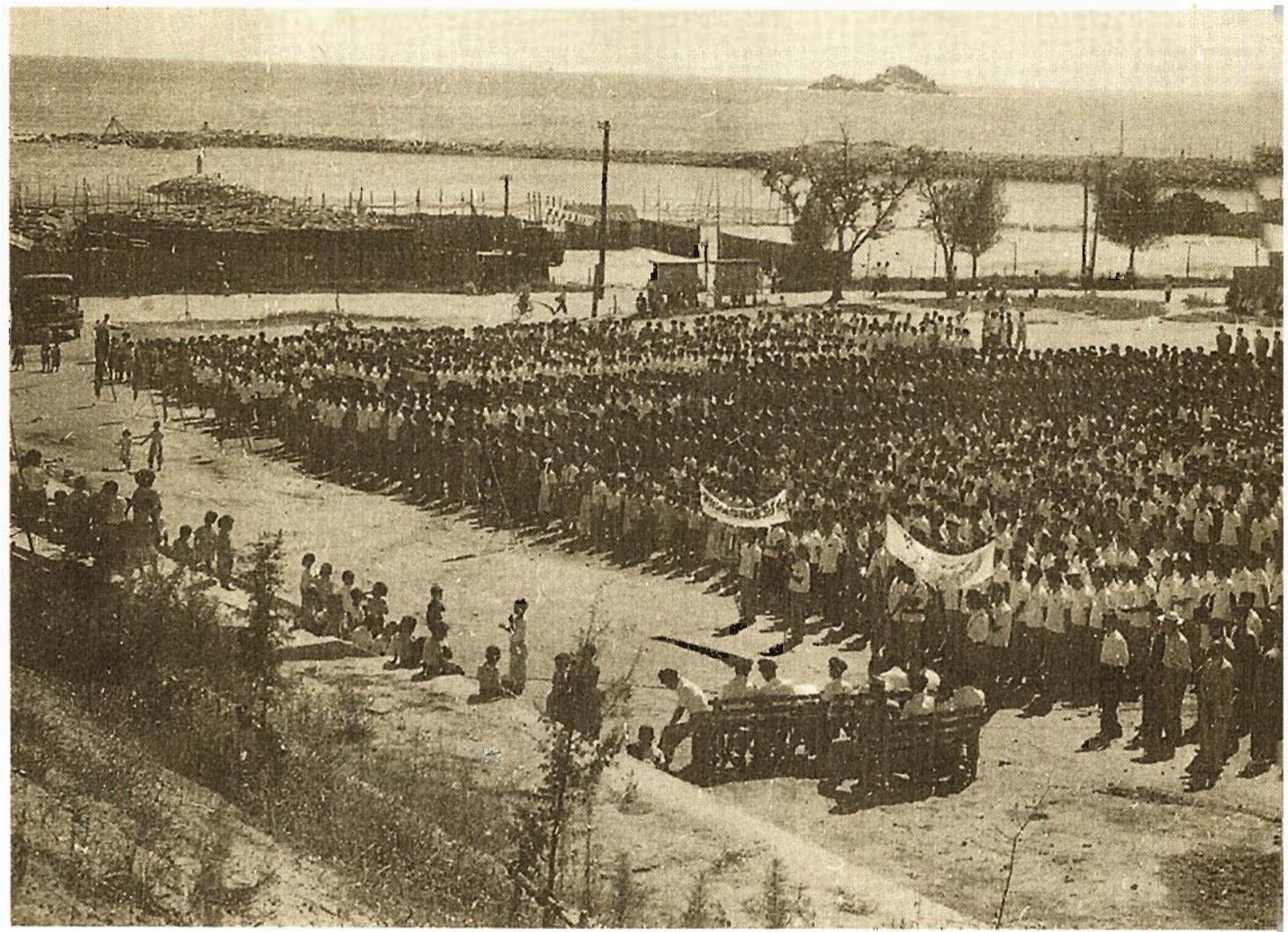
8·15 광복기념 읍면종합체육대회(195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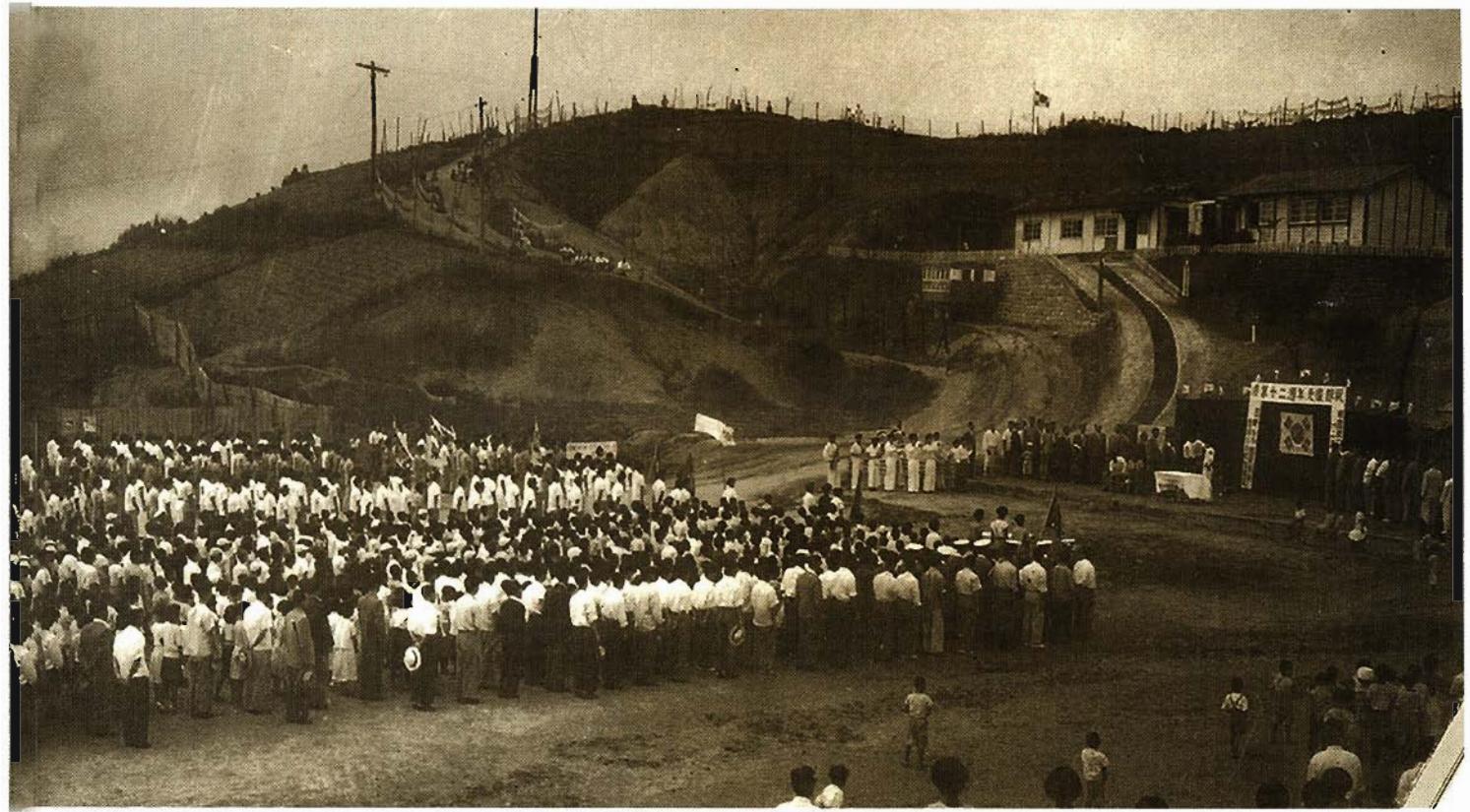
개회식전 읍장 전성우(좌)와 체육회장 백유봉(우)와의 씨름 시범경기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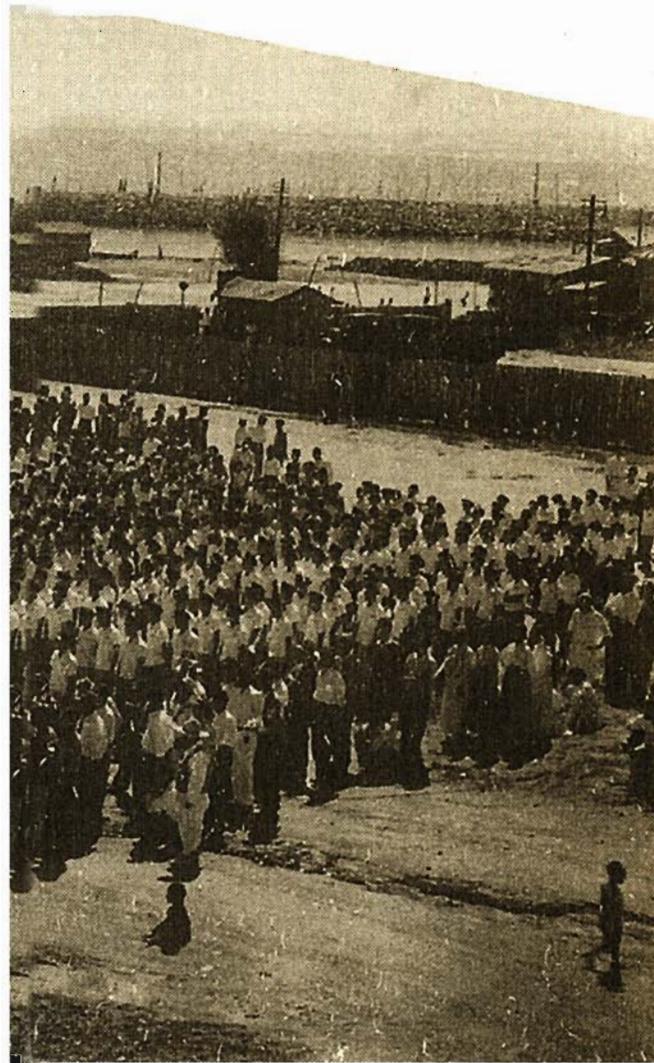
8·15 광복기념 읍면종합체육대회 입장식 장면(1954년 8월 15일)

당시 스탠드는 명태 덕목으로 급조된 향경도식 스탠드





제12주년 광복절 경축대회 전경(1957년 8월 15일 현 시청광장)



속초읍민 축기대회(1958년)



東草市制實施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 모습(1963년 1월 7일)



東草市制實施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 모습(1963년 1월 7일)



束草市制實施 경축 기념대회 전경(1963년 1월 7일. 속초읍사무소 광장)



束草市制實施 경축 기념대회 전경(1963년 1월 7일. 속초읍사무소 광장)



제3회 속초중학교 졸업생(1954년 3월 9일)



속초중학교 보건조회 전경(1967년 10월 5일)



제1회 영랑국민학교 졸업생(1944년 3월 20일)



영랑국민학교 학생들(1944년~1950년사이)



속초실업고등학생들의 청대리 식수작업(1973년 4월)



영랑국민학교 학생들의 보광사 옆산 식수작업(1973년 4월)



노학동 일대 양수작업 전경(1973년. 하루 16,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동원되었다)



한해 극복 급수작업(1972년)



제 1회 설악제 전경(1966년 10월 1일)

설악산에서 최초 개최이래 속초시민의 한마당 향토문화축제로 현재까지 매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태하여 설악리에 개최되고 있다.



제 4회 설악제

1969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산악행사 위주로 설악제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이름모를 자유당사의 비에서 개최된 무용공연 및 산악조난자 위령제 모습이다.



제 6회 설악제 노래자랑(1969년 10월 2일)



제6회 설악제(1971년)

전국 각지의 산악인들이 참석하여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제8회 설악제(1973년 10월 6일)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고 있는 산악인들



설악제 전마선 경기(1970년대)

제 11회 설악제 전마선 경기 전경(1976년)
속초항



제 11회 설악제 그물만들기 경기(1976년)
속초시





시민위안의 밤 행사를 위한 무대 전경(1961년)

KBS속초방송국에서 시민위안의 밤 행사를 위해 제작하는 무대, 드럼통과 덕목으로 만든 특설무대이다.



시민위안의 밤 행사(1961년)

속초읍사무소 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한국전력 영북지구 전기 1964년 12월 23일 시청앞 광장에서 거행된 준공식으로 속초~강릉간 72km의 고가설공사 준공식장 전경 압선 송전시설 공사를 4개월 만에 완공하여 속초의 전력사정이 크게 좋아졌다.



한국전력 영북지구 전기가설공사 준공식장 전경



노학동 상수도 통수식(1969년 9월 28일)



노학동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1969년 6월)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한 어린선수들(영랑호 1960년대)



스케이트 대회 전경(영랑호 1960년대)

한여름 모래찜하는 아이들(1950년대)



시민위안 영화의 밤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1958년 9월 21일)



제1회 속초시민문화상 수상자부부와 심사위원

1975년 강원일보사에서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제정. 초대수장자로는 체육 : 최종록, 문화예술 : 윤홍렬, 교육 : 김형기, 봉사 : 정창도, 근로 : 김부율이 수상하였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전달 광경

1962년 4월 28일 속초방송국에서 상도문 2리 마을을 찾아가 라디오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일주 산업시찰단 출발직전모습

1963년 4월 15일 조선일보 영광지사에서 주최한 전국일주 산업시찰단이 제일고장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지역인사 24명이 전국의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11일간



미시령 개통식



서울~속초간 고속버스 개통(1977년 8월 1일)



동명동 종합버스주차장 전경(1970년대)



설악산 순환관광버스(1982년 11월 5일)

설악산의 절경을 누비던 속초여객소속 버스

편집후기

1963년 속초시 승격이후 시 전반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속초시지』 『시정 30년사』 『속초의 역사와 문화유적』의 발간으로 기초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활자 위주의 책자는 일부 관심분야의 학자나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발간된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밭자취』는 이러한 활자위주의 문제점을 불식하고 속초의 옛 모습과 생활문화를 사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미약하나마 사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1년여 동안 사진자료집 발간을 위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속초의 옛사진을 공개 모집하여 기꺼이 회사해주신 사진은 최대한 이번 자료집에 수록코자 하였으나, 사진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미가 미약한 사진은 수록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시민들의 정성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지면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음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귀한 사진들이 지역주민 가정과 기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사진자료집 발간에 수록하지 못한 사진들은 훗날 증보의 기회가 주어지면 보다 훌륭한 자료집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최용문 속초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속초시청 문화공보실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평생의 업으로 간직하고 있던 사진을 기꺼이 회사해주신 최구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속초시 문화공보실장 김 철 수

도움 주신분

이 기 섭(89세) : 속초시 동명동 (설악산악연맹 고문)

박 철 암(84세)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최 구 현(82세) : 속초시 중앙동 (속초예총 고문)

박 춘 원(73세) : 속초시 청호동 (태창조선소)

최 홍 영(61세) : 속초시 중앙동 (속초시 사진협회 운영위원)

노 광 복(59세) : 속초시 중앙동 (속초문화원 부원장)

석 기 동(57세) : 속초시 동명동 (온누리여행사)

장 명 석(53세) : 속초시 조양동 (속초시청 수질환경사업소)

김 준 만(43세) : 속초시 영랑동 (속초시청 수질환경사업소)

김 주 일(42세) : 속초시 교 동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정 관 신(41세) : 속초시 금호동 (시대일보)

김 기 찬(32세) : 속초시 교 동 (속초시청 도시과)

KBS속초방송국

속초중학교

옛 사진으로 보는 속초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 : 속초시 · 속초문화원
인쇄 : 강원인쇄사

(비매품)

본 책자에 수록된 사진의 무단 복제사용을 금합니다.

